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879
www.baekyoungju.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ISSN 1554-6942

세인트 존스베리 아카데미에 던지는 공개 질문

편집국에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세인트 존스베리 아카데미는 제주영어교육도시의 네번째 국제학교다. 4월 29일 제주국제교육도시에 자리할 세인트 존스베리 아카데미 제주의 착공식이 열렸다. 그럼에도 버몬트에 자리한 세인트 존스베리 아카데미는 생소한 사립학교이다. 제주와의 인연이 아니었다면 보스톤에서 차로 꼬박 3시간 반 이상을 달려야 하는 이 학교를 알 길이 많지 않다. 물론 아담하고 작은 세인트 존스베리 타운의 아름다움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다만 세인트 존스베리 아카데미가 생소할 뿐이다.

세인트 존스베리 아카데미가 제주국제영어교육도시에 2012년 선정되고, 올해 착공식까지 올랐으니 축하할 일이다. 버몬트 소재 언론들도 이를 상당히 반기는 분위기다. 버몬트 공영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탐 라벳 교장은 “제 2 캠퍼스를 짓는 것이 아니다. 재정적인 부담은 모두 한국 정부가 진다. 우리는 ‘우수한’ 우리 교육시스템을 수출하는



세인트 존스베리 아카데미 제주는 4학년에서 12학년을 대상으로 한 남녀공학 학교로 1250명의 국내외 학생을 수용할 예정이다. 사진은 착공식 모습

것”이라고 말했다. 세인트 존스베리 아카데미로서는 밑질 게 하나도 없는 거래다.

세인트 존스베리 아카데미가 어떤 학교인지 궁금했다. 주위에 아는 사람은 적었다. 국제 학생들을 미국내로 소개하는 교육사업을 하는 한 전문가에게 물었다. 최근 중국학생들이 많이 들어가는 중급 학교란다. 보딩스쿨을 평가하는 한 웹사이트는 버몬트 사립학교 중 최하위권에 배치했다. 상당수 버몬트 소재 사립학교들이 90점대인 반면 이 학교는 63점이 었다. 보딩스쿨리뷰닷컴에 따르면 평균 사립학교 인원이 960명의 거대한 학교다. AP 25 과목을 제공한다. 특히 과외활동이 가장 많은

사립학교중의 하나다. 그러나 그외 다른 평가에서는 평균 이하이다. 평균 SAT가 1550에 불과하다. 대부분 지난 1월 입학신청이 마감됐지만 이 학교는 아직도 등록을 받는다. 그만큼 입학이 어렵지 않다는 이야기다.

한 교육 전문가는 “명문 사립은 결코 제주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굳이 새로운 모험으로 학교의 명성에 누가 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소위 말하는 필립스, 초에트 등 명문사립은 제외해야 한다. 비록 최고는 아니지만 사립학교로 명망있는 학교는 보스톤 인근에도 수없이 많다. 버몬트 작은 타운의 사립학교가 한국의 제주 국제영어도시 네번째 학교로 선정된 계기에 대한 의문이 자연스럽게 뒤따른다. 정부에서 하는 일이라면 좀 달라야 하지 않겠는가.

이 학교가 한국에 진출할 때 만든 회사가 KDC(Kingdom Development Company)다. 대표는 브레들리 애슬리란 교육가이자 세인트 존스베리 아카데미 교장 탐 라벳의 친구다. 버몬트주 주정부 사이트에서 사업체를 검색했다. KDC는 영리회사이며 7명의 주주가 있

▶▶2면으로 계속



(사진 제공)Taso Papadakis Photography

재즈 신동은 잊어라 성숙한 그녀가 왔다

보스톤 귀환 연주회 갖는 색소폰니스트 그레이스 켈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재즈 색소폰니스트이자 싱어송라이터 그레이스 켈리(23)는 ‘재즈신동’이란 별 기억을 끄집어낸다. 그도 그럴 것이 12살때부터 연주 무대에 섰다. 14살 때 보스톤 팝스 오케스트라와 협연했고, 16살 때 오바마 취임식에서 연주했다. 그런 그가 쉽게 잊혀질 수 없다.

그레이스 켈리는 더 이상 옛날 소녀도, 풋풋한 ▶▶5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업
만행사소송
이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a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kijulaw.com



5월 출발 특가 보스톤-인천 왕복항공권

From \$1190
싱가포르행 (Only 1 Way)

본 금액은 세금과 유류보충료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1.866.619.4223 (Toll Free)

상업사범 : 월요일~토요일 / 오전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출발일 : 999-819-8222 (Toll Free) / 617-434-8889
예약처 : www.nice-tour.com 예약전화 : 아미디 통역센터
보스톤 사무실 : 1-877-438-8222 (한국, 일본어 상담 가능)

항공여행 전문
NICE TRAVEL



애나 정
최고의 고객서비스
최상의 부동산서비스를
제공받으시기 바랍니다.

뉴스타 부동산 전국 1위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MA, NH Licensed
Million Dollar Guild
CLHMS, CRS, CIPS, SRES, ABR

617.780.1675
annajung@nexstarrealty.com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나원태 Realtor 제이슨 전 Realtor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송동호 종합로펌

SONGLAWFIRM
BOSTON OFFICE | Tel: 617-418-1127
385 Concord Ave. Ste. 002 Belmont, MA 02475



제주도에 건설될 세인트 존스버리 아카데미 제주 조감도

이 학교를 졸업해도 미국학점으로는 인정받지 못해

▶▶ 1면에 이어서
 었다. 주주 중 눈에 띄는 이름이 교장과 이사회 회장 이름이었다. 비영리단체 세인트 존스버리 아카데미가 영리회사를 만들어 한국에 진출하고 교장과 일부 이사들이 개인 주식을 보유했다. 법적인 하자는 없을지라도 모양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
 5월 6일 보스톤코리아는 세인트 존스버리 아카데미에 4개 항목의 공개 질문서를 보냈다. 학교 교장과 이사회에 1. 계약서를 모든 이사가 읽고 교장에게 계약 권한을 위임했는지 여부, 2. 비영리단체 교장, 이사 등이 영리단체 주식을 보유해도 되는지 여부, 3. 세인트 존스버리 아카데미가 한국정부로부터 받는 로열티 금액 밝히지 않는 이유, 4. 이사회는 교장과 일부 이사들이 영리단체 주식 보유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를 물었다. 보스톤코리아는 아직 답장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보스톤코리아는 보스톤 한인들이 세인트존스아카데미를 예

의 주시하고 있음을 계속 전달할 예정이다.
 제주영어국제학교 4번째 학교 세인트 존스버리 아카데미의 내부 사정은 교육적으로 좋아보이지 않는다. 많은 한국의 학부모들이 거액을 주고 보낼 학교이다. 이 학교를 졸업해도 미국학점으로는 인정받지 못한다. 한국에서 국제 사립학교 교육을 경험할 수 있다는 취지는 이해가 된다. 그러나 이런 사립학교로 일굴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다. 미국으로 유학와서 한동안 자신감만 잃었던 임시지 교수는 그의 책에서 이야기한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학교 밖에서 그들의 문화를 몸으로 배웠을 때 비로소 제대로 그들과 경쟁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세인트 존스베리 아카데미 제주학교 미래가 걱정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가 걱정된다.

editor@bostonkorea.com

본지에서 세인트 존스버리 아카데미에 보낸 영문 질의서

Open Letter to St Johnsbury Academy

Dear Headmaster and Board of Trustees,
 My name is Myong Sool Chang, the Editor and Publisher of Boston Korea, an on and off-line Korean news media based in Boston.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congratulate St Johnsbury Academy for being selected to establish an international school on Jeju Island, which is being developed as Global Education City with international private schools, colleges, residential and commercial facilitie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invested \$75 million to build a private boarding school modeled on St Johnsbury Academy.
 Under the current plan, St. Johnsbury Academy will re-

ceive undisclosed annual royalty fees pursuant to the project, Kingdom Development Company ("KDC"), a for-profit spin-off of St Johnsbury, has been managing the negotiations for St. Johnsbury Academy. Bradley Ashley—a close friend of St. J. Academy headmaster Tom Lovett—is CEO of KDC. KDC will receive management fees from Haewol, a Korean semi government authority.
 I would like to ask St Johnsbury academy 4 Questions:
 1. Has every member of the Board of Trustees read the contract and have they given Mr. Tom Lovett authority to sign the contract?
 2. Do you believe it is ethical for officials in a non-profit school to own shares in KDC, a for-profit company?
 3. Why does St Johnsbury Academy not disclose its royalties from SJA Jeju?
 4. Do Board of Trustees of St Johnsbury Academy know that some directors have shares of KDC?



2015년에 개최된 서울대 동창회 총회 모습

NE 서울대 동창회, 총회 및 야유회 개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Davis Road, Acton, MA 01720) 에서 열린다. 이의인 동창회장은 이에 앞서 11시에 이사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뉴잉글랜드 지구 서울대학교 동창회 정기총회가 5월 21일 토요일 낮 12시부터 Acton Clubhouse (111

이번 총회에서는 이사회에서 추천한 차기 회장을 인준한다. 또한 뉴잉글랜드지역 전체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선발된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한다.
 식사와 총회 후에는 한국의 현 정치 상황에 대한 강연 및 재미있는 실내 게임을 가질 예정이며 푸짐한 상품을 선사한다. 참가비는 일인당 20불 (학생 및 포닥 10불)이며, 참가 신청 및 카풀 신청, 문의, 그리고 장소 확인 등은 동창회 홈페이지 (sites.google.com/site/snuane)에서 할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잇몸 질환 치료
 *신경 치료 *보철 전문
 *보복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6.25참전유공자회 강경신 회장 재추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급격히 회원수가 감소하고 있는 한인 6.25참전유공자회가 강경신 전 회장(90세)을 회장으로 재추대 했다.

뉴잉글랜드 지역 한인 6.25참전유공자회 회원 7명은 4월 30일 이가그릴에서 총회를 열고 신장투석으로 인해 활동이 어려운 최덕중 회장의 사의 표명에 따라 강 전회장을 재추대기로 했다. 강회장은 이번 임기가 세번째이다.

지난 2014년 회원이 10명이었으나 최근 서정섭 전 회장이 별세함에 따라 9명으로 줄었다. 최근 한 명의 회원이 신규로 가입해 현재 다시 10명이다. 그러나 회원들 상당수가 이런 저런 노환에 시달리고 있어 쉽게 회의에 참석하기도 쉽지 않다. 강경신 회장은 “회원들이 이제는 잘 견지도 못한다. 앞으로 2-3년 안에 몇 명이나 더 있을지 의문” 이라고 말했다.

강경신 회장은 “단 한 사람이 남아도 이 회를 운영하겠다. 살아 있는 동안 쪽 밀고 나가겠다. 총회에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이 됐다” 고 말했다. “미국 참전용사들은 자녀들을 준회원 등으로 가입시키는데 우리도 그런 방법을 찾든지 해야겠다” 고 고민도 털어냈다.

강경신 회장은 “6.25참전유공자회를 활성화 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6.25 참전유공자회 강경신 회장이 11일 보스톤코리아를 방문해 메모리얼데이 퍼레이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고 밝히고 “우선 가장 당면한 과제로 이번 5월 30일 메모리얼데이 앤도버 재향군인 퍼레이드에 많은 한인들이 함께 참여해 달라” 고 당부했다.

특히 강 회장은 “한인 단체장들에게 참석해 달라는 요청을 직접적으로 말씀 드릴 시간이 없었다” 면서 “한인단체장님들이 같이 참석해주시면 정말 고맙겠다” 고 밝혔다. 메모리얼 퍼레이드는 30일 앤도버의 Park Street 몰 주차장에 9시 30분까지 모여야 퍼레이드 참석이 가능하다. 문의는 강경신 회장(978-725-9597)에게 하면 된다.

강 회장은 이외에도 매년 8회 이상 있는 한국전참전용사 퍼레이드에 한국 국기를 들고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한인 단체가 참석을 요구하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강 회장은 앞으로도 재향군

인회, 월남전참전용사회, 안보협의회 등과 밀접한 유대관계를 갖고 안보에 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이제 운전이 불가능해 외출이 반드시 큰 아들 강천성 씨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다. 그럼에도 강천성 씨는 늘 아버지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강천성 씨는 “참전용사에 대한 호응이 높아야 한인위상도 따라 높아질 수 있다. 노인들이라 자녀들이 지원해 줘야 하는데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 고 밝혔다.

강경신 회장은 6.25 전쟁당시 미 8군 5대대 카추사 책임자로 근무했으며 3년 6개월 근무 후 제대했다. 85년에 미국으로 건너왔다.

hsb@bostonkorea.com

슈퍼스타K 보스톤 현장 예선 실시

Mnet '슈퍼스타K 2016' 글로벌 스타 발굴 나선다!
LA(5월 14일), 보스톤(18일), 뉴욕(20일) 현장예선 진행!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국 보스톤, 뉴욕, LA에서 글로벌 스타 발굴에 나선 Mnet '슈퍼스타K 2016' 이 18일 보스톤 현장예선을 실시한다.

지난 1일 '슈퍼스타K 2016' 서울 첫 현장예선을 마무리한 Mnet은 국내에 이어 미국에서 현장예선을 진행한다. 오는 5월 14일 LA를 시작으로 18일 보스톤, 20일 뉴욕에서 순차적으로 글로벌 지원자들과 만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슈퍼스타K7' 우승자인 '케빈오' 가 미국 예선을 통해 선발된 만큼 올해에는 어떤 재능 있는 글로벌 지원자가 심사위원들의 눈길을 사로잡을지 벌써부터 기대를 모은다.

'슈퍼스타K 2016' 미국 예선 지원 방법은 '카카오톡' 과 '엠넷닷컴' 을 이용하면 된다. 카카오톡에서 '엠넷' 과 플러스친구를 맺고 자신의 노래 동영상 전송하면 지원이 완료되며, 엠넷닷컴에서도 자신의 노래 동영상 URL을 올리면 지원이 가능하다.

예선 당일 현장접수도 가능하다.

현장 접수자는 동영상 심사에 준하는 심사 과정을 거쳐 현장예선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제작진은 '슈퍼스타K 2016' 오디션에 참가를 원하는 예비 지원자들의 요청이 쇄도해 이번 글로벌 오디션은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기가 예상된다. 음악을 사랑하고 차세대 슈퍼스타를 꿈꾸는 패기와 열정을 지닌 도전자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 고 전했다.

한편 케이팝 스타가 프로그램 폐지를 예고한 가운데 8년째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슈퍼스타K 2016' 은 “기존 '슈퍼스타K' 와는 차별화된 새로운 장치들을 준비해 새로운 문화와 트렌드를 이끌어 갈 뮤지션을 발굴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슈퍼스타K 2016 현장예선 일정]
5월 14일(토) / LA / Shepherd University /
5월 18일(수) / 보스톤 / Berklee College of Music (practice room) /
5월 20일(금) / 뉴욕 / Born Star Training Center /

hsb@bostonkorea.com

맞춤식 교육 Mathematics • Verbal • Testing Skill

SAT Plus

SATI 및 SATII 준비 전문학원

TEL: 781-398-1881

2 Winter Street Suite 104, Waltham, MA 02451

SAT Plus Summer Schedule 2016

July 11th - July 29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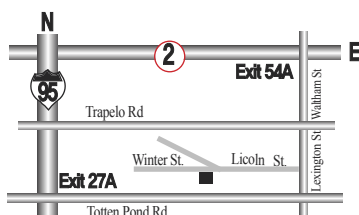
Class	Time
SAT I Prep	8:00 AM - 12:00 PM Morning Session Mon-Fri
SAT I Prep	1:00 PM - 5:00 PM Afternoon Session Mon-Fri

August 1st - August 19th

Class	Time
SAT I Prep	8:00 AM - 12:00 PM Morning Session Mon-Fri
Chemistry Preview	1:00 PM - 3:00 PM Monday, Wednesday, Friday
Biology Preview	4:00 PM - 6:00 PM Monday, Wednesday, Friday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찰리 올브라이트, 보스턴팝스와 조지 거쉰 기념 협연

(보스턴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길 을 걷고있는 피아노 천재 찰리 올브라이트가 18, 19일 양일간에 걸쳐 보스톤 팝스와 협연한다. 미국이 낳은 세계적 작곡가 조지 거쉰을 기념하는 이번 연주에서 찰리는 거쉰의 대표적인 곡 랩스인 블루를 연주하게 된다.

보스톤심포니홀에서 열리는 이번 연주는 런던에서 활약하고 있는 지휘자 데이비드 찰스 아벨, 그리고 보컬리스트 니콜 카벨, 앤놈 포드도 함께 출연한다.

한국계인 찰리 올브라이트(한국명 오철수) 씨는 “거쉰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작곡가다. 랩소디인블루는 뉴욕에 살면서 뉴욕의 특성을 보고 작곡했기 때문에 정말 곡이 재밌다. 특히 재즈와 클래식이 섞여 있기 때문에 클래식을 좋아하는 분들과 재즈를 좋아하는 분들이 모두 즐길 수 있다” 고 이번 공연을 소개했다.

이번이 보스톤심포니홀에서 4번째로 연주하기 때문에 심포니 홀에 아주 익숙하다. 하버드와 NEC 조인트 전공프로그램을 마친 올브라이트

씨는 보스톤에 오면 마치 “고향에 온 것 같은 편안한 느낌을 갖는다” 며 보스톤 연주를 밝혔다.

4월말에도 찰리는 보스톤 팝스 오케스트라와 함께 뉴욕의 퍼체이스공연장에서 전 좌석이 매진하는 큰 호응 속에 연주회를 마쳤다. 이에 앞서 찰리는 베이징에서 중국의 부통령까지 참석한 가운데 성대한 연주회를 가졌고 다시 돌아와 텍사스 연주, 뉴욕 연주에 이어 보스톤에서 연주하는 바쁜 일정을 소화해 냈다.

찰리에 따르면 보통 피아니스트들의 시즌은 9월에 시작해 5월에 끝난다. 따라서 이번 연주가 시즌 피날레 연주이다. 이번 연주를 끝내고 휴식을 갖는다. 찰리는 “될 수 있어야 피곤한 몸을 달랠 수 있고 또 휴식만 있으면 지루한 삶” 이라며 휴식과 연주 활동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함을 밝혔다.

이번 연주의 지휘는 하지 않지만 지난 뉴욕 공연을 찰리 올브라이트와 성황리에 마친 보스톤 팝스 지휘자 키이스 로카트 씨는 30일 본지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어제 뉴욕에서



오는 18, 19일에 보스톤 팝스와 협연을 하는 찰리 올브라이트

18, 19일 연주하는 똑같은 레파토리를 가지고 함께 연주했다. 찰리는 정말 뛰어난 재능을 가진 피아니스트다. 그와는 6-7년전부터 20번의 콘서트를 함께해서 아주 잘 안다. 18세 정도로 보이겠지만 정말 뛰어나며 특히 즉흥연주에 뛰어나 클래식 음악계에서 아주 유명하다” 고 평했다.

찰리 올브라이트는 뉴욕 타임스가 입이 벌어질 정도로 뛰어난 테크닉을 가진 피아니스트라고 평가하는 등 미 언론의 화려한 조명을 받고 있다. 연주회 티켓은 BSO.org에서 구입할 수 있다.

hsb@bostonkorea.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Publisher & C.E.O
장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새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il Jung
박현아 HyunAh Park
김시훈 Sihun Kim
정선경 Sun Kyung Jung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Contribution part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콕 Andrew Koak
앤젤라엄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송동호 Dongho Song

& TV 사업국
617-955-9112

재휴일제 | 연합뉴스 | 미신협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617.871.1482
Cambridge Dental Annex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KGC인삼공사

가정애달

사랑이벤트

행사기간
5월 1일 ~ 5월 15일까지

포도포션 기간에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내장에 포함 수 없는 경우 미팅에 전후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Event 1

홍삼정 240g
1개구입시
홍삼정 50g 증정

FREE
50g Extract

(\$46 상당)

10% OFF

동인비
전제품

6년근 홍삼과 고급 복용이 만났다!

**천녹삼 구매시
홍삼정 120g 무료증정**

Event 2

10% OFF

홍삼튼 / 추출액 / 자녀제품 구입시 10% 할인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MART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전화주문 서비스
수단순 1-2일 안에 편하게 받으세요.
\$100 이하 주문시 무료배송

FedEx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함께 연주하고픈 한국 아티스트 나윤선

▶▶1면에 이어서
여대생도 아니다. 2011년 버클리를 졸업했다. 이제는 훌쩍 자란 전문 재즈 색소폰연주자, 싱어송라이터로서 보스톤의 관객 앞에 선다. 5월 22일 저녁 7시 버클리퍼포먼스센터에서 공연을 앞두고 있다. 2월 발표한 신규 앨범 “트라이 투 피겨 잇 아웃 (Trying to Figure It Out)” 발매 기념 콘서트다. 재즈를 즐기는 독자에게 흥미로운 소식이다.

웰슬리에서 태어나 브루클라인에서 자랐다. 한국명은 정혜영이다. 브루클라인 하이스쿨, 버클리까지 보스톤에 머물렀지만 지금은 뉴욕에 거주한다. 스티븐 콜베어(Stephen Colbert)의 레잇나잇쇼 하우스 밴드인 스테이 휴먼(Stay Human)에서 연주하고 있다.

아직도 브루클라인 거주 이웃들은 그레이스 켈리의 연주회를 홍보하기에 여념이 없다. 보스톤코리아 사무실을 방문한 미국인 자원 봉사자의 정보제공으로 그레이스 켈리와 이메일 인터뷰를 가졌다.

-뉴욕 생활은 어떤가? 스티븐 콜베어 쇼에서 연주하는 일도 궁금하다.

▶나는 뉴욕을 사랑한다. 시 전체가 살아있고 밝다. 수많은 뛰어난 음악가들이 도처에 있다(웃음). "Late Show with Stephen Colbert"에서 연주하는 것은 정말 즐겁다. 밴드도 너무 좋고 스티븐 콜베어는 정말 두번 다시 만나기 어려운 보스다. 너무 재밌다. (그는 카메라 밖에서도 사람을 웃긴다고 한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TV라는 아주 빠른 페이스의 영역과 새로운 기술을 많이 배운다.

-신규앨범 트라이투피겨잇아웃(Trying to Figure It Out)을 소개하면?

▶ 지난 2월에 발매했다. 대부분 오리지널로 작곡한 곡들의 모음이다. 일부 노래는 암흑과 빛으로 다시 살아가는 감정여행을 느끼게 할 것이다.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있으며 각 노래마다 좀 더 밝음과 부활로 조금씩 접근하는 것들이다. 존 배티스티(Jon Batiste), 놀라운 보컬리스트 셰이나 스틸(Shayna Steele), "Snarky Puppy"의 창시자이자 베이스 플레이어인 마이클 리그(Michael League)가 게스트로 참여했다.

-12살 때부터 거의 매년 음반을 발매했다. 가장 좋아하는 앨범이 있나?

▶대답하기 어렵다. 모든 앨범은 내 생애의 특정 순간들을 드러내고 있다. 말하자면 음악적 스냅샷 같은 거다. 모든 내 앨범들에 대해 자랑스러워 하지만 가장 최근 앨범이 가장 최근의 나를 잘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 앨범에 빠져있다. (웃음) 또한 나는 몇 년전 발매했던 가스펠/재즈 앨범인 “그레이스”도 정말 사랑한다.

-얼마 전 작고한 필우즈에 관련된 글을 읽었다. 그가 그렇게 특별했던 이유가 있나?

▶나는 필우즈 앨범을 들으며 자랐다. 가장 좋아하는 앨범은 "Live at the Showboat"이다. 그의 색소폰 소리는 정말 독특하며 정말 믿기 어려운 캐릭터와 멜로디, 특징을 가졌다. 그는 가장 위대한 베밥 색소폰연주자 중의 하나다. 2011년 CD도 함께 냈고, 4주간 유럽



(사진 제공)Taso Papdakis Photography

투어도 같이 했다. 또한 세계 최대의 재즈페스티벌인 뉴포트 재즈, 몬트리올, 할리우드 볼 등에서 함께 연주했다. 그와 함께 했던 시간을 잊을 수 없다. 그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다.

-함께 연주하고 싶은 한국 음악가가 있는가?

▶ 나는 재즈 보컬리스트 나윤선을 정말 좋아한다. 정말 뛰어난 가수이다. 나는 나윤선의 스타일과 튠에 몰두했다. 정말 좋다. 나윤선과 같이 연주하고 싶다. 정말 좋은 연주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가장 좋아하는 한국노래는?

▶아리랑을 가장 좋아한다. 엄마가 어렸을 때 불렀다. 정말 아름답고 여러 다른 방법 스타일로 변형이 가능하다.

-팬이 되고 싶은 케이 팝스타가 있는가?

▶ 나는 케이팝을 잘 듣지 않는다. 하지만 권장해주는 것은 좋다(윙크)

-엄마의 요리가 그리지 않는가?

▶엄마가 해주는 요리가 좋다. 같이 있으면 엄마가 해주는 음식을 먹는다. 정말 최고다. 엄마의 손맛이 그립다.

-보스톤에 오면 빠지지 않고 가는 레스토랑이 있나?

▶흠 나는 (브루클라인소재) 애나스 타케리아(Anna's Taqueria)를 좋아한다. 멕시코 테이크아웃 레스토랑으로 중,고등학교 때 늘 거기서 먹곤했었다. 아주 추억이 있는 곳이고 맛도 좋다(웃음).

editor@bostonkorea.com



Frank Y. Shin, DMD
현 **Tofts** 치과대학 부교수



신영목치과

- 치아 이식 수술 [Implants]
- 금속 없는 크라운
- 미용 치료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 드립니다)
- 응급 환자 당일 치료
- 토요일도 진료함
- 각종 보험 지정 병원

www.drfrankshin.com

617.265.5606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22



가주 순두부

한식&일식

2013, 2014년 보스톤 매거진 선정 한식 1위 "가주 순두부"
업스톤점과 캠브리지점 두곳에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오전10시~ 밤10시까지입니다.



업스톤 지점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 8540

캠브리지 지점
57 JFK st. Cambridge, MA 02138,
(617) 864- 6868

단체 예약과 문의 가능



고급3부문 수상자, 후원단체 및 어머니날 수상 학부모와 함께한 단체 사진

부모님들께 감사의 꽃을, 아이들엔 격려의 상을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어버이날 카네이션 달기 행사
청소년 꿈발표, 꿈에세이, 영한-한영 번역대회 시상식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는 지난 7일 어버이날 주간을 맞아 부모에게 연례 카네이션 달아주기 및 축하행사를 가졌다. 고급1, 2과정 학생들은 류민희, 황규라 담임 선생님과 함께 아침 일찍부터 학교 정문에서 부모와 교사들에게 카네이션을 직접 달아드리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남일 교장은 “이날 꽃을 달아드리 는 학생들과 받는 부모님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환한 웃음꽃을 주고 받는 아름다운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고 말했다. 이현주 회장이 이끄는 학부모회에서는 한국의 어린이날 주간을 맞아 전교생에게 간식을 준비해 아이들에게 선물했다.

이날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는 청소년꿈발표제전과 이중언어 과정을 위한 꿈에세이(My Dream Essay) 대회 시상식을 가졌다. 중급과정 김소희 리

더교사의 사회로 시작된 청소년꿈발표제전 시상식에서 한라반 양예주 학생이 ‘문학을 통해 2세대들과 입양아들을 돕고 싶다’ 로 대상을 수상했다. 이재현 김수경 학생은 금상을 수상했다.

보스톤코리아와 나의꿈국제재단이 공동주최하고 백린장학회, 시민협회, NE과기협, 고대동문회, 한양대동문회가 후원한 9회 영한-한영 번역대회 및 이중언어과정을 대상으로 한 My Dream Essay 대회 시상식에는 NE과기협 이현희 회장, 고대동문회 이태호 회장, 한대 동문회 서민원 회장, 박지인 동문 등이 참석하여 대회에 참가한 모든 학생들에게 트로피와 상장 및 상금을 수여하며 시상식을 빛내 주었다.

이날 시상식 대미를 장식한 ‘자랑스런 부모님께 드리는 상’ 순서에서는 교사대표로 박원경 김영순 교사 학부모회 대표로 이종예 임원이 수상했다. 또한 이덕숙 조성희 조초영 할머니

허성용 이재명 할아버지에게 이 상을 수여했다. 남일 교장은 부모님상 수상자들에게 꽃과 상품을 수여했다. 남교장은 “매년 5월 첫 주에 ‘부모님과 스승의 은혜’ 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자녀와 손주들을 위해 헌신하시고 아낌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부모님께 감사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우리의 미풍양속이 아름다운 전통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이라고 밝혔다. 남교장은 또 2세들의 한글교육과 역사, 문화교육을 통해 올바른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 수고하는 한국학교 교사들에게도 감사를 전했다.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는 오는 6월 18일 졸업식 및 학예발표회를 가진 후 여름방학을 시작한다. 9월 3일에는 신입생들의 입학식과 교사연수가 있고 17일에는 전교생 개학식을 갖는다. 9월 가을학기 등록은 6월 1일부터 시작되고 등록문의는 남일 교장 (508) 523-5389 또는 이메일 ksneusa@verizon.net로 문의하거나 학교 홈페이지 (www.ksneusa.org)를 방문하면 된다.

hsb@bostonkorea.com

재미한국학교 뉴잉글랜드지역협의회 2016 나의 꿈 말하기 대회 김하리 총영사상

김유지, 김채연 학생 재미한국학교 NE협의회장상

관련수상작품 권고16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재미한국학교 NE협의회가 주최한 2016 나의 꿈 말하기 대회에서 북부보스톤 한국학교 김하리 학생이 영예의 총영사상을 차지했다. 보스톤천주교 한국학교의 김유지 학생과 밀알한국학교 김채연 학생은 협회장 상을 각각 수상했다.

김하리 학생은 이날 대회에서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 했다. 김하리 학생은 다리를 다쳐 실제 겪었던 생활 속의 아픈 일들, 아픈 경험을 통해 갇힌 깨달음을 얻으면서 만들어진 자신의 꿈의 이야기를 순수하고 솔직하게 발표했다. 이정욱 재미한국학교 NE협의회 간사는 “학생의 눈높이에서 내용을 구성해 자신감 있

고 여유있게 잘 발표해 청중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고 밝혔다.

김유지 학생은 ‘나는 매일매일 꿈을 이뤄가며 살아간다’, 김채연 학생은 ‘행복 찾아주기’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이번 대회는 원고 내용(50), 발표태도(30), 감동(20)의 3항목으로 나눠 심사했다.

총영사상을 받은 김하리 학생은 \$500의 항공료 지원과 함께 뉴잉글랜드지역 대표로 7월 중순 콜로라도 덴버에 위치한 르네상스 호텔에서 열리는 재미한국학교 협의회 나의 꿈 말하기 본선대회에 출전한다. 이외에도 재미한국학교협회 총회장의 표창장을 수여 받으며 예담한복도 부상으로 받는다. 본선 경쟁 후 다시 수상하는 경우 한국방문 또는 한국 연수를 부상으로 받게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엄성준 총영사가 김하리 학생에게 총영사상을 전달하고 있다

617-739-2888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 KE, UA, DL, AA 등 모든 항공사 취급
-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 통역, 번역 서비스

유니버스 여행사
대표 최한길

Universe travel services
Tel 617.739.2888 / www.utsboston.net

정진수
CPA / 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용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여(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전용석 작가, 보스톤 미술관에서 강연

청계천 개발이 공동체에 미친 영향과 예술의 역할에 관해 논의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선경 기자 = 보스톤 미술관 1층 강당에 가득 모인 사람들은 한 동양인 작가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멀리 한국에서 온 작가는 익숙지 않지만 분명한 영어로 한국의 도시문화와 그의 작품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 강연이 마치고 강당에 다시 불이 들어온 것은 본래 예정되었던 한 시간을 삼십 분이나 훌쩍 넘긴 이후였다.

지난 5월 11일 저녁, '포스트-휴먼, 도시의 삶과 창의성(Post-Human Urban Living and Creativity)' 이란 주제로 열린 이벤트는 작가 전용석과 큐레이터 루카스 코웬(Lucas Cowan)의 대화로 진행됐다. 이번 토크는 특히 보스톤의 빅디그와 서울의 청계천을 비교하며, 도시개발 사업의 이면의 얼굴과 이를 다루는 작가들의 역할에 대해서 논의했다.

현재 보스톤 미술관에서 진행 중인 메가시티 아시아의 참여 작가이기도 한 전용석은 지난 15년간 플라잉시티(flyingCity)라는 이름의 예술가 그룹에서 활동하면서 도시조직 형성이 도시 공동체에 끼친 영향에 중점을 두고 작업해왔다. 플라잉시티라는 이름은 "안전한 거주지에 대한 인간의 끊임 없는 욕망을 나타낸다" 고 작가는 이날 프레젠테이션 도중 설명했다.

함께 대화를 이끈 루카스 코웬은 Rose Kennedy Greenway Conservancy의 공공예술 큐레이터로 보스톤 빅디그(Big Dig)이후의 도시조직 형성과 공공예술에 관심을 갖고 활동해왔다.

전용석 작가는 빅디그(Big Dig)을 모델로 진행되었던 청계천 복원으로 인해 변화한 도시 공동체와 관련된 작업을 다년간 진행한 바 있다. 특히, 청계



현재 보스톤 미술관에서 진행중인 메가시티 아시아의 참여 작가이기도 한 전용석 씨

천 개발 이후 생활터전에 변화가 생긴 그 주변의 금속공방 장인들의 삶에 영감을 받아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새로운 공간을 모색하는 작업을 해왔다. 현재 보스톤 미술관에 전시된 전용석 작가의 작품 <생산자의 표류 Drifting Producer, 2004 - 2015> 또한 청계천 개발 이전 금속공방에서 작업하던 장인들과의 협업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전용석 작가는 청계천이 주변의 상업지대와 직접 닿아있지 않아 유기적으로 발달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매일 9만 명의 방문객이 이곳을 찾지만 "바로 뒷거리만 가도 청계천과 전혀 상관은 풍경이 펼쳐진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루카스는 예술가들은 매일매일 환경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며 "사회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고 강조했다.

메가시티 아시아는 보스톤 미술관에서 7월 17일까지 진행되며 전용석 외에도 최정화와 한석현 작가가 한국 작가로 참여했다.

sun@bostonkorea.com

서퍽은 엘리자베스 워렌 하버드는 스피버그



각 대학 졸업식에 유명 연사들 연달아 보스톤 방문, 졸업식 내달 3일까지 이어질 예정, 교통체증 우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시훈 기자 = 본격적인 졸업 시즌이 시작됨에 따라 각 대학의 졸업식 연사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유명연사로는 존 케리 국무장관이 이미 노스이스턴 대학을 방문했고, 하버드 대학은 영화계의 거장 스티븐 스피버그, 서퍽 대학은 엘리자베스 워렌의 방문을 예고했다. 미국의 정치, 경제, 문화를 대표하는 다양한 인사들이 보스톤을 찾은 전망이다.

22일 서퍽 대학을 방문할 예정인 엘리자베스 워렌은 매사추세츠주 최초의 여성 상원의원(민주당)이다. 그는 타임지의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 (Time 100)" 에 세 차례 (2009년, 2010년, 2015년) 선정된 바 있고, 하버드 로스쿨에서 강연한 적이 있는 상법 분야에서는 저명한 법학자다. 현 오바마 정권에서는 대통령 직속 고문과 재무부 최고 고문을 역임했다.

서퍽대학보다 하루 늦게 졸업식을 갖는 보스톤 칼리지(BC)는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자 동문인 어니스트 모니즈를 초대한다. 이란과 미국의 핵 협상과정에서 존 케리 국무장관, 제이콥 루 재무장관과 함께 핵심 인물이었다. 이란과의 핵 합의에 부정적이었던 공화당 의원들조차 모니즈 장관에게 신뢰를 보내는 등 핵심인물 중 가장 초당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어서 26일 졸업식을 갖는 하버드 대학은 주라기공원, 조스 등으로 미국을 대표하는 SF영화의 거장 스티

보스톤 지역 주요 대학 졸업 일정

- 뱁슨 칼리지 (Babson College) 5월 14일
- 벤자민 프랭클린 공과대학 (Benjamin Franklin Institute of Technology) 5월 14일
- 보스톤 음악원 (The Boston Conservatory) 5월 14일
- 엠마누엘 칼리지 (Emmanuel College) 5월 14일
- 피셔 칼리지 (Fisher College) 5월 14일
- 보스톤 대학 (Boston University) 5월 15일
- 러셀 칼리지 (Lasell College) 5월 15일
- 뉴잉글랜드 검안대학 (New England College of Optometry) 5월 15일
- 매사추세츠 예술대학 (Mass College of Art and Design) 5월 19일
- 보스톤 건축대학 (Boston Architectural College) 5월 20일
- 뉴잉글랜드 로스쿨 (New England School of Law Boston) 5월 20일
- 시몬스 칼리지 (Simmons College) 5월 20일
- 휠록 칼리지 (Wheelock College) 5월 20일
- 벤틀리 대학 (Bentley University) 5월 21일
- 빙커힐 커뮤니티 칼리지 (Bunker Hill Community College) 5월 21일
- 헬레닉 칼리지 홀리 크로스 (Hellenic College Holy Cross) 5월 21일
- 레슬리 대학 (Lesley University) 5월 21일
- 브랜드이즈 대학 (Brandeis University) 5월 22일
- 뉴잉글랜드 음악원 (New England Conservatory) 5월 22일
- 서퍽 대학 (Suffolk University) 5월 22일
- 터프츠 대학 (Tufts University) 5월 22일
- 보스톤 칼리지 (Boston College) 5월 23일
- 하버드 대학 (Harvard University) 5월 26일
- UMASS 보스톤 (UMASS Boston) 5월 26일, 27일
- 보스톤 칼리지 로스쿨 (Boston College Law School) 5월 27일
- 노스이스턴 대학 로스쿨 (Northea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 5월 27일
-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6월 3일
- 노스 벤틀 스트리트 스쿨 (North Bennet Street School) 6월 3일

* 상기 일정은 각 대학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븐 스피버그가 연설할 예정이며, 가장 마지막으로 일정을 갖는 MIT는 동문이자 전 세계은행 부총재를 역임한 오존조 이웨알라를 초대한다. 이웨알라 장관은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여성 경제학자이며, 2012년 세계은행 총재 선임때 김용 현 총재와 최종과정까지 경합을 벌인 바 있다.

의 서퍽대학을 포함하여 12개의 대학이 졸업식을 치를 예정이며, 둘째주 말인 14일, 15일에도 보스톤대학 (BU)를 비롯한 8개의 대학이 졸업식을 갖는다. 졸업식 기간동안에는 졸업식에 참여하기 위한 인파로 호텔 등의 숙박업체나 식당, 도로 및 대중교통이 매우 붐빌것으로 보여 방문객들과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가장 많은 대학이 졸업식을 치르는 시기는 셋째 주 금요일과 주말(20일, 21일, 22일)이다. 이 기간에 다운타운

itshunne@bostonkorea.com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 932-0400 Fax: (781) 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사과 상해
파산 보호
비즈니스/리스

IRS/DOR/UI
신용카드 채무조정
이민법

전화: (781) 712-1700 CHANG & ASSOCIATES, P.C.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시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내역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I, JI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onelshah.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Office (Alewife Station)
125 Cambridge Park Dr,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보스톤 인근 9개 저택 21일 전격 무료개방

9개의 저택에서 열리는 트러스티즈 125주년 생일파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선경 기자 = 아름다운 정원으로 둘러싸인 커다란 저택에서 보내는 주말은 어떨까. 평소 호화로운 저택에서 살고 싶었다거나, 건축물 애호가, 혹은 역사에 취미가 있는 사람이라면 오는 5월 21일, 비영리 토지보전협회 트러스티즈 오브 레저베이션(Trustees of Reservation)에서 지정한 히스토리컬 오픈 하우스 날이 희소식이 될 것이다.

트러스티즈는 창립 125주년을 맞이하여 보스톤 인근의 9개 저택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평소에는 요금을 내야 하는 곳이 무료로 개방되며, 그중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는 곳도 있으니 이번이 방문할 좋은 기회이다.

이번에 공개하는 9개의 저택들은 식민지 시대부터 모더니즘 운동까지 아우르는 300년의 건축역사를 되짚어보게 한다. 또한, 당시의 조경설계나 예술, 공예품들까지 같이 살펴볼 수 있는 기회이다. 더불어 멋진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 할 수 있음을 물론이다.

1891년 설립된 이 비영리기관은 국립공원 관리청이 있기 전부터 매사추세츠에 있는 유서 깊은 장소나 자연경관이 멋진 곳을 지정하여 보존해왔다. 총 116개의 소유지를 관리 중이며 작년에만 160만 명의 방문객이 트러스티즈의 관리구역을 방문했다.

1. The Great House at Castle Hill

주소: 290 Argilla Road, Ipswich

데이빗 아들러(David Adler)가 디자인한 캐슬힐은 1928년도에 지어졌다. 총 59개의 방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저택으로 방마다 당시의 가구로 꾸며져 있다. 저택의 외부에는 초록의 그랑알레(Grand Allée)가 반 마일가량 펼쳐져 있으며 그 끝자락엔 입스위치의 크레인 비치가 내려다보인다. 저택에서 조금 더 내려가다 보면 이태리 스타일로 지어진 카지노

콤플렉스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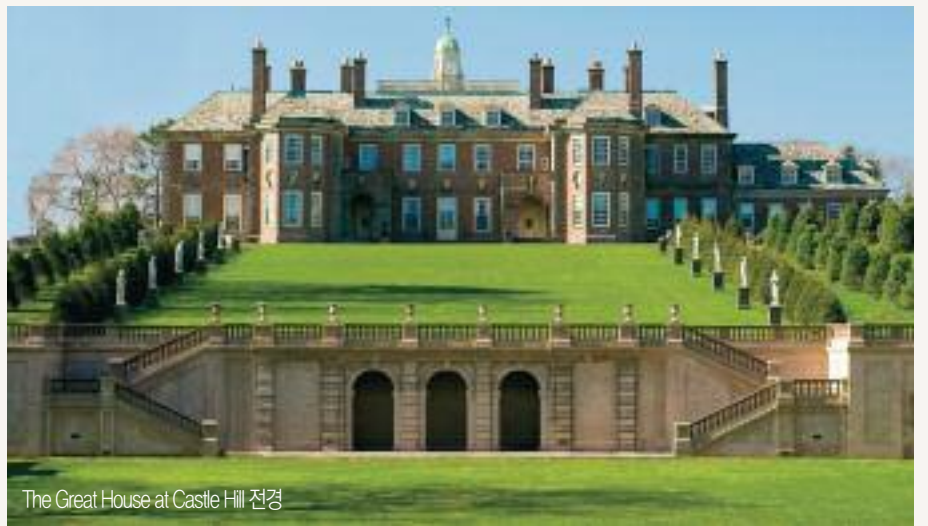
히스토리컬 오픈 하우스 날에는 특별히 다양한 가이드 투어가 마련되어 있다. 가이드투어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방마다 대기하는 자원 봉사자들의 설명을 들어도 좋을 것이다. 잔디밭에서 다양한 게임을 즐기거나 보물찾기에 참여할 수 있다. 그 외에도 크로켓, 체커, 체스, 컬링 등 가족들이 할 만한 여러 가지 활동이 마련되어 있다. 트러스티즈 125주년 생일 케이크가 제공된다.



2. The Eleanor Cabot Bradley Estate

주소: 2468B Washington Street (Route 138), Canton

조지 왕조 양식의 건물이 90 에이커의 초원으로 둘러싸여있다. 블루 힐의 파노라마 경치를 자랑하는 이곳에는 야생화와 각종 베리들이 정원 가득 피어있다. 저택 뒤편의 격자무늬



The Great House at Castle Hill 전경

벽으로 둘러싸인 정원은 건축가이자 예술가인 찰스 플렛(Charles Platt)에 의해 이태리 스타일로 디자인되었다.

히스토리컬 오픈 하우스 날을 맞이하여 트러스티즈 생일 케이크가 제공된다. 가이드 투어, 셀프 가이드 투어, 음악 연주 등 가족이 즐길 만한 다양한 활동들이 마련되어 있다. 평소 결혼식 외에는 대중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다.

3. The Stevens-Coolidge Place

주소: 137 Andover Street, North Andover
1920년대에 콜로니얼 리바이벌 스타일로 지어진 이 집은 흥미로운 디자인적 요소가 가득하다. 집의 뒤편에는 몇몇 정원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장미 정원, 그린하우스, 프랑스풍의 채소밭(Potager) 등이 있다.

히스토리컬 오픈 하우스 날 동안 각 방에 대기하고 있는 도슨트 들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트러스티즈 생일 케이크가 제공된다. 잔디밭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게임과, 윗거리들이 마련되어 있다.



4. The Old Manse

주소: 269 Monument Street, Concord
콩코드 강둑에 위치한 이 집은 1775년 4월 19일, 독립전쟁이 발발한 콩코드 올드 노스 브리지(Concord's Old North Bridge)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다. 1770년도, 랄프 왈도 에머슨(Ralph Waldo Emerson)의 할아버지에 의해 지어진 집으로, 에머슨과 나다니엘 호손이 바로 이 집에서 위대한 작품을 집필했다.

히스토리컬 오픈 하우스 날을 맞이하여 트러스티즈 생일 케이크가 제공된다. 셀프가이드 투어가 가능하며, 특히 최근의 복원 작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잔디밭에 누워서 즐길 수 있도록 책이나 담요 등을 대여해준다. 서점에서는 15%의 특별한 행사를 진행한다.



5. The Ashley House

주소: 117 Cooper Hill Road, Ashley Falls, Sheffield

▶▶9면으로 계속

오바스시
광어회
우럭회
TO GO
617 202
3808

김성애(Seong Ae Kim) Realtor



Newton, Brookline, Boston, Cambridge, Belmont, Lexington, Waltham, Yarmouth

보스톤에 처음 오시거나 내 집 마련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보스톤 일대의 아파트/콘도/주택 매매 렌트를 성심 성의껏 세심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을 통해 고객님의 희망사항에 맞춰 찾아드립니다.

김성애(Seong Ae Kim) Realtor

COLDWELL BANKER Coldwell Banker Residential Brokerage

1261 Centre St. Newton, MA 02459
Office: 617.969.2447 Cell: 857.919.3055
Email: SeongAe.Kim@NEMoves.com

惠民 Park Acupuncture and herbal medicine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최상의 선택
혜민한의원

617-787-0789 www.acupark.com
60 Leo M. Birmingham Parkway, Suite 101, Brighton, MA 02135

▶▶8면에 이어서

애슐리 하우스는 버크셔 지방에서 가장 오래된 집으로, 1773년 존 애슐리(John Ashley) 대령이 미국 독립혁명의 초석이 된 셰필드 선언문(Sheffield Resolves)을 구상한 곳이다. 그로부터 8년 후, 이 저택의 노예로 일하던 엘리자베트 프리먼(Elizabeth Freeman)이 새로운 헌법에 따라 그녀의 자유를 찾으며 매사추세츠 내의 노예해방을 알렸다.

히스토리릭 오픈 하우스 날을 맞이하여 트러스티즈 생일 케이크가 제공된다. 셀프가이드 투어를 즐길 수 있다. 투어가 끝나고 근처의 허버트힐(Hurburt's Hill)에서 하이킹을 즐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본래 일 년에 며칠 밖에 오픈되지 않는다.



6. Naumkeag

주소: 5 Prospect Hill Road, Stockbridge
스톡브릿지의 시내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이 집은 미국 남북 전쟁 이후 도금 시대의 삶이 어땠는지를 잘 알 수 있다. 이 지역의 아메리칸 원주민의 부족이름을 따라 저택의 이름이 지어졌다. 44개의 방과 싱글(shingle) 스타일의 코티지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 모던 조경디자인의 아버지로 불리는 플



래처 스틸(Fletcher Steele)이 디자인한 정원과 파란 분수 풀로 이어지는 계단인 블루 스탓을 밟아 보는 것을 추천한다.

히스토리릭 오픈 하우스 날을 맞이하여 트러스티즈 생일 케이크가 제공된다. 셀프가이드 투어와 각종 잔디밭에서 즐길 수 있는 놀이가 제공된다.

7. The Mission House

주소: 19 Main Street, Stockbridge
나움킵 저택의 아래길에 위치한 미션하우스는 1742년에 지어졌다. 18세기 가구들과 예술품의 광범위한 컬렉션과 이 지역의 원주민 모하칸 부족에 대한 전시로 유명하다. 집을 둘러싸고 있는 정원은 플래처 스틸(Fletcher Steele)이 디자인 한 것으로, 각종 허브와 다년생 꽃들이 심겨져 있는데 그 당시 약재로 사용되던 식물들도 찾아 볼 수 있다.



8. The Folly at Field Farm

주소: 554 Sloan Road, Williamstown
핀힐 모양의 이 건축물은 후기 모더니즘 건축가 울리치 프란첸(Ulrich Franzen)에 의해 1965년 디자인되었다. 가운데 핀힐 구조물을 중심으로 3개의 침실이 구성되어있는데, 당시의 모든 가구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근처에 트러스티즈가 운영하는 B&B가 있다.
히스토리릭 오픈 하우스 날을 맞이하여 트러스티즈 생일 케이크가 제공된다. 리차드 밀러



(Richard M. Miller)와 필립 파비아(Phillip Pavia), 허버트 페버(Herbert Ferber)의 작품으로 꾸며진 조각공원 또한 방문 가능하다. 일년 중 7월과 8월의 토요일에만 대중에게 공개된다.



9. The William Cullen Bryant Homestead

주소: 207 Bryant Road, Cummington
윌리엄 컬린 브라이언트(William Cullen Bryant)는 19세기 유명한 시인이자 뉴욕이브닝 포스트의 에디터다. 그는 1865년 본래 2층의 농가 집이었던 이곳을 3층의 빅토리안 코티지로 개조했다. 브라이언트가 남긴 이 지역 주변 자연경관에 대한 방대한 글과, 개인 소장

품, 유럽과 아시아를 여행하며 모은 특별한 컬렉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히스토리릭 오픈 하우스 날을 맞이하여 이 집은 트러스티즈가 브라이언트의 손녀딸로부터 이 집의 열쇠를 건네받기 전인 1929년의 모습으로 재구성 될 것이다. 다양한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활동들과 트러스티즈 생일 케이크가 제공된다.

히스토리릭 오픈 하우스는 5월 21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가이드 투어의 일정 등과 같은 더 많은 정보는 thetrustees.org에서 확인 가능하다.



sun@bostonkorea.com

Grace Acupuncture and Oriental Medicine
은혜한의원에서
희복을 도와드립니다.

- ① 요통, 어깨, 목, 허리 통증
- ② 두통, 편두통, 어지럼증, 메스꺼움, 불면증
- ③ 비염, 알레르기, 천식, 아토피, 습진
- ④ 만성 관절염, 비만, 근육통
- ⑤ 소화장애, 변비, 과민성 대장증후군
- ⑥ 심혈관 질환, 비정상적인 EKG, 가슴에
- ⑦ 갑작스런 중추신경 손상, 신경과 이상
- ⑧ 여러 재활치료로 치료되지 않는 기능성 장애

781.862.1842
www.graceaom.com
442 Marett Rd, Suite 6
Lexington, MA 02401

"당신의 환한 미소가
마음입니다."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쓰헬쓰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김동원치과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9

가족 물리치료 병원
GB Family Physical Therapy

베시츄세츠 최초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교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BOSEC 보스톤 유학원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 중/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중 고 대학 입학 컨설팅 (강남 사무소 운영)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버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 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u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학업 지도 튜터링

ACT SAT SSAT TOEFL AP 전문

강사진: 전원 Harvard, MIT 등 명문 대 교수진, 박사과정,

대학원생 및 미국인 현직 교사.

튜터링 경험이 풍부한 보스톤 지역 최고의 강사진.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Private Tutoring

English, Essay Writing
 Math, History, Science
 Latin, French, Spanish, Chinese
 SAT II, AP, 수학 / 과학 경시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ACT SSAR ISEE TOEFL 집중반 6월 - 8월
 개인 지도 전 과목 집중지도

추수감사절, 겨울방학, 봄방학 (보딩스쿨)

2001년부터 제공되어온 전통있는 프로그램

2015년 추수감사절 프로그램: 11/21-11/30

ACT, SAT, SAT II, AP, 학교 수업 과목 개인지도

프로그램 특징:

- 학생별 필요에 따른 개인지도 및 그룹지도
- 최고의 강사진 (하버드 대학 캠퍼스 옆 위치)
- 원하는 경우 호텔에서 재우지 않습니다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914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 로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스태플스 - 오피스 디포 합병 계획 무산

연방 정부 반대로 법원서 금지 판결
합병 무산 소식과 함께 주가는 폭락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스타플스와 오피스 디포가 63억 달러 규모의 합병 계획을 철회한다고 발표하였다. 두 회사는 전략적 인수합병에 합의하고 이를 추진했으나 사무용품 시장의 독과점 현상을 우려한 연방 정부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연방 상무부는 사무용품 시장의 두 거대 회사가 합병하는 것을 반대해왔다. 두 회사가 합병할 경우 사무용품 시장의 가격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막대한 영향력을 갖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특히 사무용품을 대규모로 구입하는 기업 소비자들에게 큰 피해가 예상되었다.

연방 지방 법원 에멧 설리반 판사는 지난 10일 "스태플스와 오피스 디포 사이의 합병은 소비용 사무용품의 판매와 유통의 경쟁을 상당히 손상할 가능성이 높다"며 연방 상무부가 합병을 반대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또한 두 회사 간의 합병을 막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스태플스와 오피스 디포는 법원의 판결에 승복해 항소를 하지 않을

예정이다. 연방 상무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기업 소비자들에게는 희소식"이라며 "두 회사가 합병하면 사무용품 시장에서 머리를 부딪치며 경쟁할 상대가 사라져 버린다. 경쟁이 없으며 가격이 오르고 서비스 수준은 낮아지게 된다"고 말했다.

매사추세츠 프래밍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스타플스는 사무용품 시장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플로리다 보카라톤에 본사가 있는 오피스 디포는 미국 사무용품 시장에서 두 번째로 큰 회사다. 스타플스와 오피스 디포

두 회사는 모두 법원의 판결이 실망스럽지만 새로운 비즈니스 전략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스태플스의 론 사젠트 최고경영자는 "우리는 스타플스를 재정비해서 중간 규모의 소비자를 타겟으로 하고 사무용품을 넘어서는 영역을 개척하겠다"고 말했다.

오피스 디포의 로널드 스미스 최고경영자 역시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길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 회사의 인수합병이 결렬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진 직후 오피스 디포의 주식은 26% 이상 폭락했으며, 스타플스의 주식 역시 10% 이상 하락했다.

jsi@bostonkorea.com



사무용품 시장에 대한 독과점 우려로 스타플스와 오피스 디포의 인수합병은 무산되었다



올해 여름부터 가을까지 한시적으로 버드와이저가 아메리카라는 이름으로 판매된다

버드와이저, 올해 여름 아메리카로 이름 바뀐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미국에서 가장 많은 판매량을 자랑하는 맥주의 왕 버드와이저가 올 여름부터 "아메리카"라는 이름으로 출시된다. 이름뿐만 아니라 맥주 캔과 병에 그려진 이미지도 애국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이미지로 변경된다.

빨강과 파랑, 흰색을 사용한 아메리카 맥주의 이미지는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맥주 시장에서 조금이라도 판매량을 올리기 위한 마케팅 전략이다. 미국에서 가장 대중적인 맥주인 버드와이저는 사실 2008년에 벨기에 회사가 인수하였다.

5월 23일부터 "당신 손 안에 미국 이 (America is in Your Hands)"라는 슬로건을 중심으로 11월까지 대대적인 캠페인이 이루어진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 시즌을 알리는 메모리얼 데이로 시작으로 남미 최대의 축구 대회인 코파아메리카, 브라질 올림픽, 그리고 11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까지 겨냥한 마케팅이다.

11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아메리카에서 원래 이름인 버드와이저로 돌아온다. 아메리카는 12온스 병과 캔으로 모두 출시된다.

jsi@bostonkorea.com

JEI 재능교육 SUMMER 2016

PREP COURSE

이전 여름, 다음 학년을 미리 준비하세요!

JEI **Math**

JEI **English**

2년간의 긴 여름방학, 재능교육에서 다음 학년을 미리 준비하세요. 다음 학년과 동일하게 다룹니다.

Java의 신!

Sang Shin 강사와 함께하는 여름 Java 강좌 일정

weekdays, 9am-noon "초급반" 일요일 오후 2시 - 5시 "중급반"

장소: AP prep. for High School kids 794-30 - 79018

문의: 791-348-0878

JEI of Burlington

11 Adams St. Burlington, MA 01808

TEL: 791-348-0878

EMAIL: burlington@jellolearning.com

“고객의 이익을 늘 앞자리에 두겠습니다”



스티븐 손 **NEWSTAR Realty of Boston**
SINCE 2001
수석부사장, 브로커, 부동산전공, 리얼터

주택, 콘도, 사업체, 건물, 투자

617.290.0623 | Stevenson@newstarrealty.com
Son2323@gmail.com
Bostonnewstarrealty.com

"HOT" 비즈니스 매물 정보!

RT.128 & I-95 안쪽에
모든 장비 갖춘 세탁소:
부부 운영 Net \$100K이상 \$159K(강추)



Waltham 몰안의 픽업 스토어:
많은 확대 가능성!
신규 또는 확장에 적격 \$149K(필견)



그린라인 연장안, 살아 남았다

10억 달러 재정 감축해 진행키로 아직도 재정확보 등 어려움 남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서머빌과 메드포드 전철을 연장하는 그린라인 연장안이 우여곡절 끝에 살아남았다. 과거 30억달러 규모의 예산에서 7억달러를 줄인 재정 다이어트로 회의적이었던 주 교통부 재정위원회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냈다.

주 교통부 교통위원회와 MBTA 재정제위원회는 9일 오후 열린 그린라인 연장안 관련 회의에서 재정 규모가 훨씬 축소된 연장안을 승인했지만 추후 재정적인 문제에 봉착하면 이 계획을 취소키로 표결했다. 위원회 의원들은 23억달러 규모의 연장안을 승인하고 이를 연방정부에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서머빌 또는 메드포드 지역에 부동산을 투자하고 마음 졸이던 주민들은 주 교통부의 이 같은 결정에 일단 안도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7천 3백만불의 예산을 마련해야 하며, 연방정부의 예산규모 축소안에 대한 재승인 그리고 새로운 계약방식에 따라 수십명에 달하는 주 교통공사(MBTA)직원의 채용 및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세가지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

스테파니 폴락 교통부 장관도 이 프로젝트의 향후 전망에 대해 극히 조심스러운 견해를 내놨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해서 전진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위험이 곳곳에 내재되어 있다. 전체 공사대금을

지불할 충분한 자금도 없다.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모자라다. 더구나 MBTA의 관심이 승객에서 연장공사로 옮겨갈 위험도 있다는 것이다” 라고 그는 밝혔다.

이번 그린라인 연장안에 10억달러를 보조하는 연방정부가 이번 예산규모 축소안에 대해 재승인 해야 한다.

MBTA가 고용한 컨설턴트 잭 라이트는 간단한 기차 역사 건축, 짧은 도로 및 자전거 도로 건설 등으로 상당한 금액을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기차역 빌딩을 짓는 대신 간단한 지붕만 있는 역사를 건설해 4억1천만 달러이던 비용을 1억2천 1백만 달러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라이트 팀은 비용 절감을 위해 모든 역사에서 요금게이트와 에스칼레이터를 제거했으며 3개의 역에서는 장애인, 노약자 접근을 위한 엘리베이터를 제거했다. 그린라인 트롤리들이 주정차할 수 있는 저장 장소도 44대만 들어갈 수 있는 규모로 축소한

다. 이 같은 건설규모 축소, 특히 자전거 도로 건설 규모 축소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일고 있다.

이날 교통위원회의 표결이 있었던 MBTA 건물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이번 프로젝트를 계속 이어갈 것을 요구했다.

찰리 베이커 주지사 대변인은 “새로운 감축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을 격려하고 “핵심적인 교통 시스템 향상에 주력하겠다”고 밝혀 이번 연장안과 관련 다소 객관적인 거리에서 판단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그린라인 연장안은 지난 1990년에 처음 시작됐으며 케임브리지, 서머빌, 메드포드의 4.7마일 노선을 연장하고 7개의 전철역을 신설키로 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5년에 걸쳐 완공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여름 당초 20억 달러였던 예산에 무려 10억 달러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오면서 이 프로젝트를 계속 이어갈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시작됐다.

특히 재정규모가 시간이 지나면서 뒤틀리기 된 것은 역사의 건축안이 좀 더 세밀화 됐고, 새로운 계약방식을 도입했기 때문이었다. 주 교통부는



1623년 출판된 셰익스피어 작품집

보스톤공립도서관 셰익스피어 400주기 맞아 휘귀본 공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 공립도서관은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사망 400주기를 맞아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셰익스피어 작품 휘귀본을 전시할 계획이다. 셰익스피어는 400년 전에 사망했다.

도서관은 셰익스피어의 <한여름 밤의 꿈>, <햄릿>, <베니스의 상인> 초기 편집본을 전시할 예정이다. 또한 셰익스피어의 소장본 중에서 4개의 2절판본도 전시하게 된

다. 이 중에는 1623년에 출판되었으며 셰익스피어 연극의 글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여겨지는 <퍼스트 폴리오>의 사본도 전시된다.

셰익스피어 휘귀본 전시는 오는 10월 13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보스톤공립도서관에서 진행된다. 보스톤공립도서관은 가장 많은 셰익스피어 소장본을 가진 공립도서관 중의 하나다.

hsb@bostonkorea.com

이번 프로젝트 완결을 위해 서두르면 예산 형성 곳곳에 구멍이 뚫린 상태로 진행했다는 지적이다.

비록 교통부는 연방정부로부터 승인과 예산 지원을 받았지만 약 18개월 동안 공사 시작이 지연되면서 매달 1백60만불에 달하는 비용이 추가되게 되었다. 지금껏 주정부는 약 9억9천6백만불을 배정했으며 연방정부도 이와 같은 금액을 보조키로 했다.

지난주 교통부는 케임브리지와 서머빌 시로부터 7백50만불의 지원을 끌어냈다. 보스톤지역 메트로폴리탄 계획조직으로부터는 1억52백만달러

의 재정 지원을 받게 된다. 그럼에도 MBTA는 여전히 7백30억달러의 재정을 확보해야만 한다. 이 수치는 공사기간이 여러가지 변수로 연장되는 경우 점차 커지게 될 전망이다.

지난 월요일 회의에서 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연방정부가 새로운 그린라인 연장안에 대해 승인할 때까지 공사를 시작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공사가 늦춰질수록 현재 모자란 7백30억이라는 숫자가 커질 것이라고 조속한 착공을 주장기도 했다.

hsb@bostonkorea.com

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집을 사시거나 파실때 믿겨 주시면 최선을 다해 일 하겠습니다.

2014년 뉴스타 미주 전체 3등 수상
2015년 뉴스타 미주 전체 2등 수상



집을 사고 팔면 언제든지 승진(GINA)과 승원(PETER)을 찾아 주세요.

TEL) 978.866.3248(최승진), 617.780.7839(주승원)
ginachoi@newstarrealty.com, peterju@newstarrealty.com





클린턴·롬니 "트럼프 납세내역 공개하라...당연한 의무"

(서울=뉴스1) 정이나 기자 = 미국 민주당 유력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11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에게 납세 내역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뉴저지주에서 유세를 연 클린턴 후보는 트럼프의 소득신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한 지지자의 질문에 총선에서 트럼프의 납세 여부를 문제삼겠다고 다른 유권자들이 계속해서 그의 소득신고 여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클린턴은 "만약 당신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고 후보가 됐다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트럼프는 왜 납세 내역을 공개안하지"라는 질문을 계속 던져라. "우린 결국 알아내게 될 것"이

라고 말했다.

클린턴의 공격에 트럼프는 "정부의 매우 불공정한 회계감사 절차를 거치고 있다"며 "감사가 끝나면 공개하겠다. 11월 선거전에 공개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같은 공화당이면서도 트럼프에 대한 반감을 공개적으로 드러낸바 있는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도 이날 트럼프의 세금신고여부를 문제 삼았다.

롬니는 "대선 후보가 유권자들에게 납세내역을 공개하기를 거부하는 건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대형급 폭탄이 숨겨져 있을 것이다. 트럼프, 세금장벽을 무너뜨려라"라고 비난했다.

미국의 대선후보는 납세내역을 일 반에 공개할 의무는 없지만 주류 정

당의 후보들은 오랜기간 관습적으로 선거에 앞서 이를 공개해왔다.

대통령들의 납세 내역을 기록하는 초당파 단체 '택스 애널리스트'의 조셉 손다이크는 만약 트럼프가 올해 납세내역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1976년 이후 이를 일반에 공개하지 않은 첫 주요정당 후보가 된다고 설명했다.

Ichung@news1.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경선후보



힐러리 클린턴 미국 전 국무장관(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트럼프, 경선제패후 지지율 급등 클린턴과 1%p 차

(워싱턴 로이터=뉴스1) 손미혜 기자 = 사실상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로 자리 잡은 도널드 트럼프가 전국 여론조사에서 또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동등한 지지율을 기록했다.

11일 로이터통신은 지난 5일간 입소스와 함께 전국 유권자 1289명을 대상으로 공동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클린턴과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이 각각 41%와 40%로 사실상 동률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오차범위는 ±3%다.

불과 일주일 전인 지난 4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클린턴이 48% 지지율로 트럼프(35%)를 압도적으로 누른 것과는 상이한 결과다.

특히 트럼프가 지난주 공화당 경선레이스를 사실상 재패한 이후 지지율 급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11월8일 치러질 대선 본선에서의 싸움은 예상 외로 더 팽팽한 경쟁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아직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버몬트)과의 민주당 내부 경쟁이 남아 있는 클린턴으로서는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웨스트버지니아 프라이머리에서의 패배 역시 클린턴에게는 불리한 신호로 작용한다. 그는 11월 본선에서 러스트벨트 노동자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방법을 고심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는 로이터통신에 "이같은 지지율을 확보하게 돼 아주 행복하다"며 "좋은 방향"이라고 답했다. 클린턴 캠프 측은 여론조사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

공화당 전략가인 데이브 카니는 "클린턴은 수십년 간 대중의 눈 안에 있으며 고위직에 복무했다. 그리고 이제 쉽게 이기리라 생각됐던 레이스에서 트럼프와 막상막하 경쟁을 펼치고 있다"며 이번 여론조사가 클린턴의 취약함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했다.

그러나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역시 내부 문제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폴 라이언 상원의장을 비롯한 공화당 지도부가 트럼프 지지를 보류하고 있는 점이 대표적이다.

yeoulim@news1.kr

미 하원내 공화당, 라이언 의장에 "트럼프 지지" 촉구

(서울=뉴스1) 정이나 기자 = 폴 라이언 미국 하원의장을 향해 공화당의 유일한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하원내 공화당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고 CNN이 11일 보도했다.

이날 라이언 의장은 트럼프에 대한 지지거부 발언 후로는 처음으로 원내 공화의원들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마크 아모데이 의원(네바다)은 지난주 라이언 의장이 트럼프를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밝힌 것과 관련 "라이언은 당을 통합할 임무가 트럼프에게 있다고 하는데 그럼 통합에 대해 당신이 맡은 역할은 무엇인가"고 반문했다.

라울 래브레이더 하원의원(아이다호)은 "(라이언 의장의 발언 때문에) 화합이 더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라이언 의장은 의원들과의 만남 후에도 "단합되지 않았는데도 단합된 것처럼 가장하는건 절반의 힘만 갖고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라며 "절반의 힘만 갖고 들어가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선거"라는 입장을 밝혔다.

라이언 의장과 같이 트럼프에 대해 우려섞인 입장을 공유하고 있는 일부 공화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라이언 의장이 낙태, 예산 정책을 비롯해 메디케어 및 사회보장제도 개혁에 대한 입장을 확실히 하라고 트럼프를 압박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더 이상의 논란이 될만한 발언을 삼가야 한다는 입장도 전달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언 의장은 12일 워싱턴에서 트럼프와의 회동을 앞두고 있다.

Ichung@news1.kr



폴 라이언 미국 하원의장

태양자동차
Body & Repair / States Inspection

모든 차량 정비 서비스
유형, 미국, 일본, 한국

STATES INSPECTION

사고가 났습니까?
사고가 난 차를 원상 복구해 드립니다.
인슈어런스 바디워크 합니다.

617.868.2500
617.868.2600

48 NEW ST. CAMBRIDGE, MA 02138
Harvard St. 5 min / Layton St. 10 min / Newton St. 20 min
E-mail: sunautobody@yaohoo.com

RE/MAX

Eileen Park (마일린 박)
REALTOR®
RE/MAX Unlimited

주택 | 콘도 | 커머셜
점심점 도와드리겠습니다

Tel: 617.935.3241 | 카카오톡: Eileen0311
Email: EileenBostonRE@gmail.com
420 Harvard Street, Brookline MA

YOUNG DENTISTRY 손영권 치과

In Lowell

좋은 치과
좋은 치아

WE MAKE SMILE

youngdentistrypc.com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유가 골든 크로스 출현? 200일선 하락 중 '무의미!'

(서울=뉴스1) 황윤정 기자 = 10일 국제유가가 '골든 크로스' 를 형성했다. 골든 크로스는 중기 추세선인 50일 이동평균선이 장기 추세선 200일선을 상향 돌파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강력한 강세장을 예고하는 매우 중요한 기술적 신호로 여겨진다.

그러나 한 트레이더는 투자자들에게 유가의 '골든 크로스' 에 대해 지나치게 흥분하지 말 것을 조언하고 나섰다.

네이션스세어즈의 스캇 네이션스 대표는 이날 CNBC에 출연해 "투자자들이 '골든 크로스' 를 목격했다는 사실에 흥분할 수 있다" 고 말하면서도 "원유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고 조언했다.

네이션스 대표는 골든 크로스가 나타난 것은 유가의 일시적인 반등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200일 이동평균선이 지금처럼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을 때에는 골든 크로스가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네이션스는 오히려 배럴당 45달러에서 강력한 저항선이 형성돼 있다고 분석하며 캐나다 오일샌드 산출 등의 영향으로 단기적으로는 가격 상승을 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국제유가의 현격한 상승세를 위해서는 원유시장의 기본 여건이 변화해야 한다" 고 그는 힘주어 말했다.

yung@news1.kr

캐나다 앨버타 산불 여전히 '통제 불능'

(서울=뉴스1) 손미혜 기자 = 주민 대피령이 내려진 캐나다 앨버타주 포트맥머시의 초대형 산불이 여전히 통제불능한 상태라고 AFP통신이 11일 보도했다.

소방당국은 앨버타주에서 발생한 20곳의 산불을 진압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특히 통제를 벗어난 포트맥머리 산불이 동쪽으로 확산되면서 1500명의 앨버타 소방관 절반이 이곳에 투입된 상태다.

포트맥머리 산불로 인해 지금까지 2290㎞²의 땅이 소실됐으며 2400여채의 주택과 건물이 전소했다. 지난주에는 포트맥머리 주민 10만명에게 모두 대피령이 내려졌다.

피해규모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인프라 시설 복구와 주민 복귀에도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적십자사 대표 콘라드 소브는 "산불피해는 이미 수십억달러에 달하며 회복에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적십자사는 모금액 6700만캐나다달러(약 607억8000만원) 중 5000만달러를 포트맥머리 산불 피난민에게 즉시 나누어줄 계획이다. 구호금은 성인 1인당 600달러에 부양가족 1인당 300달러 수준이다.

캐나다 연방 및 주정부 역시 적십자사 구호금에 필적하는 피해보상금을 약속했다.

yeoulim@news1.kr

핀테크 상징 '렌딩클럽'의 추락...도대체 무슨 일이

상장때 90억달러 시가총액 20억달러로 줄어 P2P 대출, '도덕적 헤이'까지 가세해 신뢰추락

(서울=뉴스1) 김정환 기자 = 세계 최대 온라인 개인간(P2P) 대출업체로 각광받던 렌딩클럽이 부정대출 스캔들로 곤욕을 치르며 추락하고 있다.

렌딩클럽의 르노 라플랑세 CEO(최고경영자)는 부적절한 대출상품 판매와 관련해 지난 9일(현지시간) 사임했다. 3명의 이사들도 동반 사임하거나 해고됐다. 그날 주가는 35% 가까이 폭락했다.

라플랑세 CEO가 이른바 '핀테크'(finance + technology) 비즈니스를 구상한 것은 지난 2006년이다. 개인에게 적절한 투자자를 물색해 주고 중개수수료를 챙기는 사업모델이었다. 주 고객은 신용 문제로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기가 어렵거나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제2금융권을 이용하기가 불가능한 사람들이었다.

이 같은 사업모델을 기반으로 이듬해인 2007년 설립된 것이 렌딩클럽이다. 핀테크 P2P 대출업체의 간판주가 됐다. 창업 7년만인 2014년 12월엔 뉴욕증시에 상장도 됐다.

하지만 승승장구하던 핀테크 업체들은 최근 극심한 부진을 겪고 있다. 렌딩클럽은 이미 지난해에 주가가 56% 폭락했다. 올 들어 현재까지의 낙폭은 63%에 이른다. 또 다른 핀테크 업체인 미국의 온택은 지난해 4분기(10~12월)에 1300만달러

(약 153억원)의 영업 손실을 냈다.

채무자들의 부도 증가로 인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투자자들이 점차 이들 핀테크 대출업체를 통한 투자에 흥미를 잃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에 불거진 렌딩클럽의 부실대출 추문은 핀테크 대출업체 전체의 신뢰추락을 더욱 부추길 전망이다.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렌딩클럽은 9일 내부 감사를 통해 2200만달러 규모의 대출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제공됐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라플랑세 CEO가 이 같은 부실대출 중개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하지만 문제는, 이 과정에서 대출 자격 기준에 맞추기 위해 대출 신청 날짜를 변경하는 서류 조작이 있었고, 이를 회사 임원 일부가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P2P 대출의 기술적 결함과 함께 업계 종사자들의 도덕적 헤이(모럴 헤저드) 문제까지 지적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번 추가폭락으로 2014년 12월 기업공개(IPO) 당시 90억달러(약 10조5732억원)이던 렌딩클럽의 시가총액은 이제 약 20억달러로 줄었다.

라플랑세 CEO가 핀테크 대출업체의 상징적인 인물이었다는 점에서 그의 사임이 업계 전체에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렌딩클럽 사태가 핀테크 산업 전체의 신용평가 기준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부실대출로 인한 투자자들의 신뢰저하에 따라 미국 재무부는 온라인 대출 사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렌딩클럽의 주가는 CEO 사임 발표 이틀째인 10일 11.26% 더 떨어졌다.

acenes@news1.kr



2014년 12월11일 렌딩클럽의 상장을 알리는 현수막이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걸려 있다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나의 꿈 말하기 대회 대상 수상작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켜 주고 싶어요”

북부보스턴한국학교
김 하리(7학년)

저는 어릴때부터 잘 넘어지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의 몸에는 작은 상처들이 남아 있습니다. 몇년 전 저는 체육시간에 넘어져 1년이 넘는 시간을 고생하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잘못된 진단과 잘못된 처방 그리고 저의 부주의 때문이었죠.

발이 낫지 않았을 때는 하루하루가 슬프고 괴로웠어요. 마음껏 뛰어 노는 아이들을 보면 외롭기만 했어요. 제가 좋아하던 피겨스케이팅도 그만둬야 했어요. 친구들과 오랫동안 같이 뛰어 놀지 못해서 친구들과의 우정도 멀어졌어요.

정말 그 때는 어두운 동굴 속에 혼자 갇혀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시기에 저는 한 재활치료사 할머니를 만나서 운동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고 연세가 아주 많은 할머니이셨는데 그 분은 치료를 해주실 때 다른 선생님들처럼 지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애리얼! 이렇게 해보는 거야!

왜, 이 할매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 같은 아이가 벌써 지쳐 있어? 그렇게 쉬고 있으면 나을 것 같니? 더 빨리!” 이러시며 저에게 힘이 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분은 항상 직접 시범을 보여 주시고 중심잡기, 뛰기, 한 발로 점프 하기.... 등을 저랑 항상 같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밝은 얼굴로 저의 기분까지도 좋아지게 만들어 주셨죠. 그때 저는 나도 자라면 아픈 사람을,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걸스카웃 활동을 어릴 때부터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홈리스 분들을 직접 우리 걸스카웃들과 부모님들이 음식을 준비해서 식사를 할수있게 해 드리기도 하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남미에서 온 친구들을 주기적으로 만나 영어도 가르쳐주도 숙제도 도와 주기도 하고...

이런 저런 활동을 하며 느낀 것은 저처럼 몸이 넘어져 육체적으로 일

어나기 힘든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넘어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걸스카웃을 통해서 봉사와 리더십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른이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어른이 되면 무슨 직업을 갖겠다 하는 구체적인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아직 수많은 가능성이 있는 13살이니까요. 확실한 것은 제가 어떤 직업을 가지던 무슨 일을 하던 저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도움을 주고 이 사회에서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웃의 불쌍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관리를 해주는 사회복지사, 다친 사람들을 일으켜 주는데 도움을 주는 재활치료사, 법으로 힘든 사

람들을 도와주는 변호사, 세계 여러 곳에 인권 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 UN 사무관, 국가 정책을 만들어 많은 이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치인...

나의 꿈 말하기 대회 준비를 위해 저는 저의 장애에 대해 진지하게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10 번 100 번을 생각해 보아도, 저는 힘들게 살고 있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생인 저는 공부에 집중해야 하지만, 어디서든 작은 부분이라도 저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가서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학생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더 구체적으로 제 미래에 다가갈 수 있고, 더 많은 이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테니까요.



Hammond Residential Real Estate

40 Grove Street, Wellesley 781.235.5115 • 506 Boston Post Road, Weston 781.893.4466

Kalin Bae (배 경은)



617-981-1542

Umi Cho (추 은희)



508-641-8924



LEXINGTON

...\$ 2,985,000



WAYLAND

...\$ 1,825,000

보스톤코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617.792.6876

이메일: bostonkorean@hotmail.com

H MART

CUSTOMER SERVICE

TOLL FRE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BURLINGTON WEEKLY SALE MAY 13 - MAY 19, 2016

Why fry? Try our Coconut Shrimp, baked.

Deep frying is for the winter... 기름에 튀기지 않고 오븐에 구워 담백하고 건강에 좋은 H마트표 코코넛 새우를 함께 만들어 보세요!
Spring is here so make shrimp light in one bite.

Share it facebook.com/hmartofficial Learn to cook it pinterest.com/hmartusa



<p>FRI/SAT/SUN ONLY 13/14/15 ONLY</p> <p>Korean Melon 참외 박스</p> <p>\$17.99 box</p>	<p>Nagaimo 일본 마</p> <p>\$3.99 lb.</p>	<p>Oriental Sweet Potato 고구마 Medium Size</p> <p>\$1.49 lb.</p>	<p>JINGA Tofu 진가네 두부 Soft/Firm - 16oz.</p> <p>\$0.99</p>	<p>Ginger 생강</p> <p>\$1.29 lb.</p>
<p>Gobo 우엉</p> <p>\$1.99 lb.</p>	<p>Bitter Melon 비터 멜론</p> <p>\$1.99 lb.</p>	<p>Israeli Clementine 이스라엘 클레멘타인</p> <p>\$1.79 lb.</p>	<p>Louts Roots 연근</p> <p>\$1.99 lb.</p>	<p>Organic King Oyster Mushroom 유기농 새송이 버섯</p> <p>\$3.99 8oz./pkg.</p>

MEAT | at unbeatable low prices

<p>Sliced Pork CT Butt for Bulgogi 불고기용 냉동 돼지고기</p> <p>\$5.99 lb.</p>	<p>Beef Tenderloin (Whole Piece) 소 안심</p> <p>\$8.99 lb.</p>
<p>Beef Top Blade Steak 부채살 (낙엽살 스테이크)</p> <p>\$6.99 lb.</p>	<p>Boneless Pork Loin for Cutlet 돈까스용 돼지고기</p> <p>\$4.99 lb.</p>
<p>Sliced Beef Short Plate 냉동 삼겹살 슬라이스</p> <p>\$7.99 lb.</p>	<p>Marinated Boneless Chicken Thigh 양념 뼈없는 닭사태살</p> <p>\$2.99 lb.</p>

SEAFOOD | at shockingly low prices

<p>Skate Wing 냉동 홍어</p> <p>\$3.99 lb.</p>	<p>Norwegian Mackerel 노르웨이 고등어</p> <p>\$1.99 lb.</p>
<p>Salted Golden Pompano 냉동 자반 병어</p> <p>\$5.99 lb.</p>	<p>Eel 장어</p> <p>\$10.99 lb.</p>
<p>TONGTONGBAY Small Yellow Croaker 통통배 참조기</p> <p>\$2.99 80-100's/1 lb. - pkg.</p>	<p>TONGTONGBAY Cooked Short Neck Clam Meat 통통배 바지락살</p> <p>\$3.99 1 lb./pkg.</p>

SMART CARD

Get smart and save more & big.

<p>KOKUHO Extra Fancy Medium Grain Rice (Yellow) 국보 쌀 (엘로우) 15 lbs.</p> <p>\$9.99</p>	<p>CJ Cooked White Rice CJ 햇반 박스 7.4oz x 12ea./box</p> <p>\$14.99</p>
<p>SHIRAKIKU 100% Pure Sesame Oil 시라기쿠 참기름 56fl.oz.</p> <p>\$9.99</p>	<p>PENGUIN Canned Boiled Mackerel Pike 펙귄 공지 통조림</p> <p>\$1.99</p>

COMING SOON

H MART MOBILE APPLICATION

NOW, THERE IS AN APP FOR IT!

THE H MART MOBILE APP IS COMING SOON FOR ALL H MART SALES, PROMOTIONS, AND EVENTS. H마트의 각종 세일 아이템과 할인 쿠폰들을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는 H마트 모바일 앱이 곧 출시됩니다.

IN ORDER TO RECEIVE E-COUPONS AND WEEKLY SALES, PLEASE SEND YOUR UPDATED EMAIL ADDRESS AND SMART CARD NUMBER TO SMART@HMART.COM

H마트 이쿠폰과 세일 아이템을 이메일로 받아보시려면, 업데이트된 이메일 주소와 스마트 카드 번호를 smart@hmart.com으로 보내주세요.

<p>PULMUONE Instant Nutritious Rice Cup 폴무원 영양 즉석 권밥 Kabocha/Quinoa - 8.82oz.</p> <p>\$2.99</p>	<p>농심 짜왕 NONGSHIM Zha Wang Noodle with Roasted Black Bean Sauce</p> <p>\$6.99 4.7oz. x 4ea./pkg.</p>	<p>정정원 100% 현미 찹고추장 CHUNGJUNGONE 100% Brown Rice Red Pepper Paste</p> <p>\$12.99 6.6 lbs.</p>	<p>한상 질리새우 & 소스 HANSANG Fried Shrimp with Chilli Sauce</p> <p>\$5.99 14oz.</p>	<p>아지노모토 만두 AJINOMOTO Gyoza Dumpling All Varieties/1.54 lbs.</p> <p>\$5.99</p>
<p>CJ Bibigo Crispy Seaweed Rolls CJ 비비고 바삭 김말이</p> <p>\$4.99 Veg./17.6oz.</p>	<p>OSAKI BRAND Fish Cake 오사키 개맛살</p> <p>\$6.99 1.1 lbs.</p>	<p>S&B 골든카레 S&B Golden Curry All Varieties/8.4oz.</p> <p>\$2.99</p>	<p>보해 매원 프리미엄 BOHAE Maewon Prime Plum Extract 500mL x 2btl./box</p> <p>\$14.99</p>	<p>MORINAGA Caramel Candy 모리나가 카라멜</p> <p>\$1.99 3.42oz.</p>
<p>PALDO Rice Punch Gift Box 팔도 식혜 선물박스</p> <p>\$6.99 8fl.oz. x 12cans/box</p>	<p>해태 맛동산 HATAI Matdongsan Peanuts Crunch Snack</p> <p>\$2.99 11.46oz.</p>	<p>코맥스 푸장있는 아이스 트레이 KOMAX Biokips Ice Tray with Lids</p> <p>\$1.99 ea.</p>	<p>PUREUNSAENGHWAL Plastic Roll Bag 푸른생활 위생 롤백</p> <p>\$4.99 30 x 40cm/500cnt - pkg.</p>	<p>HELLO HOME Electric Stand Fan 헬로홈 스탠드형 선풍기</p> <p>\$39.99 14"/ea. \$49.99</p>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types/mispri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H MART BURLINGTON STORE: 43 Middlesex Turnpike, Burlington, MA 01803 / TEL: 781-221-4570 / STORE HOURS: Sun - Thu: 8am - 9pm / Fri - Sat: 8am - 10pm

달아오르는 더민주 국회의장 경쟁...5선 이상 5파전 양상

6선 문희상·정세균·이석현, 5선 박병석·원혜영...경선도 불사
"실효성 면에서 의장보다 법사위원장이 낫지 않나" 목소리도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20대 총선에서 원내 1당으로 발돋움 한 더불어민주당이 자당 몫으로 유력한 국회의장 경쟁으로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12일 현재까지 문희상, 정세균, 이석현(이상 6선) 의원과 박병석, 원혜영(이상 5선) 의원까지 총 5명이 후보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이들은 관행대로 합의를 통해 의장직을 거머쥐길 원하고 있다. 다만 경선을 피할 수 없다면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법 제15조는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적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된다'고 돼있지만, 그동안 국회는 관례적으로 원내 제1당에서 추대한 국회의장 후보를 본회의

의 표결로 확정지어 왔다.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인사들 중 6선의 문희상 의원은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했고 정무수석부터 당내 비상대책위원장을 두 차례 지내는 등 '당의 큰 어른'으로 꼽힌다. 최근 일부 초선 의원들이 문 의원의 의원실로 찾아가 의정활동에 대한 조언을 들은 일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문 의원이 범친노(親노무현)계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여야를 아울러야 하는 의장이 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부정적인 시각도 없지 않다.

최근 문 의원이 이번 국회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의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의장직에 대한 도움

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 일각에선 "당내에서 상황이 정리되기 전 박 원내대표에게 간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같은 6선의 정세균 의원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특별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해 당대표를 3번 지냈다. 이번 총선에서는 서울 종로에 출마해 '여권의 거물'인 새누리당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꺾어 당내에서의 입지가 확고해졌다. 정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초선의원 워크숍 입구에서 참석의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는 등 일찌감치 선거운동에 나선 상태다.

정 의원은 당초 당대표에 출마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있었지만, 국회의

장직으로 방향을 틀었다. 다만 정 의원 또한 범친노로 분류되는데다 이번 총선에서 이른바 정세균계 인사들이 대거 낙선하면서 당내 기반이 약화됐다는 점이 변수다.

19대 국회에서 부의장을 지낸 6선의 이석현(후반기), 5선의 박병석(전반기) 의원은 무계파, 중도성향이라는 점을 내세우면서 에둘러 문·정 의원을 견제하는 모양새다. 박 의원은 역대 선거 때마다 '캐스팅보트'로 이목을 집중시키는 충청권에서 내리 5선을 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자당 초선의원 57명에게 '의정활동 노하우'를 담은 손편지를 보내면서 눈길을 모으기도 했다.

2014년 경기도지사에 도전하기도 했던 원 의원(5선)도 의원들과 접촉면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원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국회의장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일부 언

론 보도와 관련 "차분하게 진행된다고 생각했는데, 언론은 꽤나 과열된 것처럼 보도하네요. 재밌습니다"라며 관심을 표하기도 했다.

당 일각에선 '국회의장직에 치중할 필요가 있느냐'는 회의론도 나온다. 국회의장직을 가져올 경우, 사실상 국회의 '상원(上院) 역할'을 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가져오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정가에선 만약 국회의장을 야당이 갖고 간다면, 법사위원장은 여당이 맡는 게 순리라고 보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3선 고지에 오른 한 의원은 "사실 실효성 면에서 본다면 국회의장보다는 법사위원장을 택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하지만 이미 출마를 결심한 인사들이 포기하지 않을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cho11757@news1.kr

비박계 관리형 비대위+혁신위 꿈수에 반발

"아직 위기의식 부족", "이대로는 혁신위에 기대 못해" 등 비판
차기 전당대회서 또다시 계파갈등 폭발 가능성

(서울=뉴스1) 박상희 기자 = 새누리당이 총선 참패 이후 흔들리고 있는 당을 수습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와 혁신위원회를 동시에 띄우는 '투트랙' 체제를 운영하기로 결정했지만 당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는 모양새다.

특히 원내지도부를 사실상 장악한 친박(親박근혜)계가 차기 당권까지 노리는 의도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비박(非박근혜)계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비박계는 총선 참패 이후 당이 쇄신책을 찾지 못한 채 한 달 동안 우와좌왕만 하다 결국 2달 짜리 보여주기식 혁신위만 설치하고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한다.

실제로 이 때문에 그동안 비박계에서는 강력한 혁신형 비대위를 출범시켜 장기적인 관점으로 당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진석 원내대표를 필두로 당이 관리형 비대위 설치를 결론내리자 일말의 기대감마저 접는 형국이다.

아울러 김무성 전 대표 시절 설치됐던 보수 혁신위처럼 쇄신책을 내더라도 언제든지 친박계가 뒤집을 것이라는 불신도 여전히 드러났다.

영남권 한 비박계 중진 의원은 12일 뉴스1과 통화에서 "혁신안을 만들고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강력한 전권이 부여돼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현 상황에서는 친박계 오더만 따르는 허수아비 조직에 그칠 공산이 크다"고 주장했다.

혁신위를 설치하는 것 뿐 아니라 누가 위원장을 맡는 것 또한 중요하게 현재로서는 적절한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내 다수를 차지하는 친박계가 김황식 전 총리와 황창규 KT 대표이사 등을 지목했

나이 역시 해답은 아니라는 의견이다.

부산 지역 한 비박계 의원은 "인선이 시작이자 끝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인사들로는 혁신위가 실패할 것이 자명해 보인다"며 "황 대표이사는 산업계에서 출중한 인물이기는 하지만 정당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김 전 총리도 신선험과는 거리가 멀지 않느냐"고 오히려 당내 인사를 선호했다.

당이 '돌고 돌아' 관리형 비대위에 도달하자 한숨을 내쉬며 분통을 터뜨리는 모습이 공개적으로도 터져나왔다.

비박계로 분류되는 수도권 의원의 홍일표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관리형 비대위의 선택을 놓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많은 국민들이나 새누리당을 사랑하는 분들이 원하는 방향하고도 다른 것"이라며 "많은 국민들은 충격적인 변화가 나오기를 원했는데 아직도 위기의식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비박계 김영우 의원은 "원내대표가 비대위 원장을 맡고 혁신위가 따로 구성된다는 것은 당의 혁신을 최우선 과제가 아닌 부차적인 것으로 여긴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혁신 비대위가 당의 체질과 운영체계를 바꾸지 않는 한 희망이 없다"고 주장했다.

관리형 비대위와 혁신위 출범에 대해서 기대감을 놓은 의원도 있었다.

비박계 중진인 정병국 의원은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혁신위에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 당이 혁신의 모습으로 가려면 당정 관계에서 당이 주도적인 관계를 설정해내고 당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며 향후 전당대회에서 친박계와 대결을 예고했다.

sanghw@news1.kr

박대통령, 난제 첩첩속 협치의 리더십 어떻게 세울까

(서울=뉴스1) 윤태형 기자 = 13일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20대 국회 원내지도부의 회동에서 박 대통령이 '여소야대' 국회와 협치(協治)의 첫 단추를 잘 꿰 수 있을지에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회동은 지난 4·13 총선에서 집권 여당의 참패로 형성된 '여소야대' 국회의 첫 협치 시험대로 주목받고 있지만 민생경제·구조조정 해법을 놓고 청와대와 여야3당이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어, 접점 모색이 쉽지 않아 보인다.

청와대는 △민생경제 △북핵문제 △국정운영 협력방안 △3당대표 회동조율 등 4가지 의제를 이번 회동에서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청와대와 호흡을 맞춰 민생에 초점을 맞추고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발전 기본법 등 쟁점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대해 야당에 협조를 당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원내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과 제3당인 국민의당의 공세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민주는 △서민경제활성화 △가습기살균제 피해대책 △세월호법 연장 등을 의제로 제시했고, 국민의당은 △기업구조조정 △가습기 살균제 피해대책 △노동4법·서비스법 등 쟁점법안에 대한 부분처리 등을 내세울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가습기살균제 대책과 관련,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박 대통령의 입장표명과 관계자 문책을 요구하고 있고, 이상호 더민주 원내대표 또한 가습기사태를 20대 국회 최우선과제로 다룰 것으로 주장하며 이 문제를 핵심의제 중 하나로 다루겠다는 각오다.

이날 논의 예정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또한 여야간 견해가 엇갈리는 부분이다. 한때 두 야당이 강조해온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도 논의의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청와대와 여야 모두 민생현안을 회동 주제로 내세우며 이를 고리로 접점을 시도할

전망이지만 민생현안에 대한 해법이 다르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민생해법으로 과점법을 포함한 노동4법과 보건의료분야를 포함한 서비스법의 조속한 원안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이들 모두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에 대한 핵심 법안으로 이르면 19대 국회에서라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두 야당은 난색을 표하면서, 해운업 등 부실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양적완화 방안과 피해근로자 대책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립각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간 청와대 회동을 앞두고 정기회 정무수석이 12일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원내대표실을 방문해 의제를 사전 조율하는 등 '협치' 시도에 적극 나서고 있다. 박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회동한 것은 2013년 4월, 2014년 7월, 2015년 3월, 2015년 10월에 이어 이번이 다섯 번째다.

이중 대부분은 '빈손회동'에 그쳤다. 특히 지난해 3월에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박근혜 정부의 경제실패를 집중 성토했으며 반목 속에 마무리됐고, 10월 회동에선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놓고 박 대통령과 문 대표가 팽팽히 맞서면서 정국이 급랭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이란 방문을 통해 거둔 경제 성과와 13일 여야 지도부 회동을 '동력'으로 삼아 4대 구조개혁·경제활성화·기업구조조정 등 산적한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는 각오다.

birakoca@news1.kr



박근혜 대통령



서울설렁탕

한식 세계화의
종가집이 되겠습니다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 617.505.6771



마카오농부, 서울설렁탕의 미인, 국밥, 보쌈, 육육과 함께 각종 주류를 즐기세요!



서울설렁탕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MA 02134
Tel: 617.505.6771
Fax: 617.505.6771
www.BeeffortheSoul.com

서울 Seoul
158 Cambridge St., Boston, MA 02114
Tel: 617.575.8888
Fax: 617.575.8888



MATH GAME HOUSE

programs for the talented

Offering stimulating & fun sessions for the curious minds since 2000

M.A in Math Education, Stanford University

SUMMER STUDY 6/27 – 8/5
Courses, SAT Prep, Competition Math
가을학기 시작 9/6

뉴튼 센터 617-527-0275
www.mathgamehouse.com
email: mathgamehouse@mac.com




메사추세츠주 태권도 협회

Massachusetts State Taekwondo Association



고문단장: 안 남 열



고문: 이 강 원



고문: 구 정 회



고문: 조 형 구



회장: 정 제 형



부회장: 허 훈



부회장: 리치안



사무총장: 전 명 호



회계: 김 희 용

웹사이트: 강 창 남
시범단장: 홍 순 우
경기위원장: 강 민 석
심판위원장: Michael Agosti
홍보부장: Maureen Maher-Killelea

www.masta.us




2016년 메사추세츠 주 태권도 협회원 가입현황
*단체회원(\$200/년): 정제형, 허훈, 리치안, 홍순우, 김희용, 전명호, 강민석
*정회원(\$100/년): 강창남

370 Boston Tpk., Shrewsbury, MA 01545
Phone 508-792-5534 . FAX 508-767-0113

김영란법 시행령 3·5·10'만원...내수위축과 법치지 절충

공무원 행동강령보다 완화 불구, 관련업계 불만 클듯
내달 22일까지 입법예고...규제개혁심사·법제처심사 등 거쳐 9월28일 시행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 국민 권익위원회가 9일 내놓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안은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한다는 입법취지와 내수 경기 위축을 우려하는 각계의 의견 사이에서 고심을 거듭한 결과물이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년 2개월만에 시행령안을 마련해 이날 공개했다.

통상 법 제정 후 수 개월이면 시행령이 마련되는 것과 비교하면 장시간이 걸렸다.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탓에 각계의 의견수렴 등을 꼼꼼하게 거쳐야 했기 때문이다.

공개된 시행령안에 따르면 공직자와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등은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는 오는 9월 28일부터 직무와 관련해 3만원을 넘는 식사를 제공받아서 안된다.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초과할 경우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과 비교하면

음식물 접대 허용 한도는 3만원을 그대로 적용했고, 경조사비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금지되는 선물은 청탁금지법에선 5만원까지는 과태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

선물이나 경조사비에서 기존 공무원 행동강령에 비해 완화된 기준을 정한 셈이다.

경조사비 10만원의 경우 어느 정도 예상됐지만,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한도는 그동안 농축산 식품업계나 요식업계 등 경제계의 기대치에 비해서는 다소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한우나 굴비 등 특정 품목에 대한 허용한도 완화 요구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가뜩이나 경기 침체로 인해 내수 경기 활성화가 가장 목표인 상황에서 식사 대접이나 명절 선물마저도 위축될 우려가 있어 입법예고 과정에서 관련업계의 불만이 상당히 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오찬 간담회

에서 "좋은 취지로 시작했던 게 내수까지 위축시키면 어떻게 하느냐"며 "(선물 가격 상한선 등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하려고 연구를 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도 이런 우려에 힘을 실으며 기준 완화 가능성을 점치게 했었다.

그러나 허용한도를 지나치게 완화할 경우 법 제정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반론 역시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권익위의 고심이 깊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액수를 정했다는 평가다. 동시에 공무원 행동강령도 이번 시행령 수준으로 고치기로 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 △대국민 설문조사로 나타난 국민들의 인식 수준 △상호부조 성격의 경조사문 △금품 등을 제공한 국민도 처벌받게 되는 등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7월 권익위에서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1500명)에서 가장 많은 응답이 나온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5만원·10만원

기준이 이번 시행령에 가장 근접하게 적용됐다.

또한 성영훈 권익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정 품목의 제외 요구에 대해 "특정 품목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해 법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개된 시행령은 오는 13일부터 6월2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를 위해 공청회도 열고 관계부처간 세부협의를 진행한다.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심사와 법제처의 심사 등을 거치며 불합리한 규제나 타법률과의 상충점 등을 확인하게 된다.

이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법 시행(9월28일) 전에 최종 확정하게 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현재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의 청탁금지법 일부 조항 위헌심사가 결론이 나올 경우 경우에 따라 법률 개정 작업을 거쳐 시행령을 다시 고치는 과정을 거치게 될 수도 있다.

true@news1.kr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허용되는 음식물·선물 등의 가액



노회찬 "김영란법으로 국가경제 위축? 뇌물공화국 반증"

"뇌물에 관련된 규제조항 완화 방식 안돼"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11일 "김영란법으로 우리나라 국가경제가 위축이 된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뇌물공화국이란 말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지나친 고액 선물을 금지하고 있는 조항 때문에 국가경제에 심대한 지장을 줄 정도라면 오히려 강력하게 단속해야 하는 게 아니냐"면서 이렇게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김영란법을 보완한다면 빠져 있는 이해충돌 방지조항을 넣는 것이 필요하지, 이미 합의돼서 시행 직전에 있는 뇌물에 관련된 여러 규제조항을 갖다가 완화하는 방식은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노 원내대표는 "우리나라는 뇌물이 아니고서는 국가경제를 활성화할 수 없다는 것을 전세계

계에 고백하는 이런 창피한 이야기를 대통령부터 해서 안 된다"고 지적했다.

"법의 근거도 없이 여론에 따라 대상 범위를 민간까지 늘렸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노 원내대표는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회가 입법정책위원회에서 판단과 의지에 따라서 넣을 수도 있고 빼 수도 있는 부분이다. 민간인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들어가는 안 되는 법이 따로 있는 건 아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라고 했다.

아울러 노 원내대표는 오는 13일로 예정된 청와대와 여야 원내대표단 회동에 정의당도 초청해 줄 것을 요구했다.

노 원내대표는 "만일 기업인들을 만난다고 하면서 대기업 회장들만 만나고 중소기업은 외면하면 기업인들을 만났다고 할 수 없는 것 아니겠냐"며 "저희는 당당하게 요구를 하지, 구걸 하고 싶지는 않다.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말했다.

parksj@news1.kr

더민주 "김영란법으로 부패고리 끊어야...보완도 필요"

이재경 "자영업·농축산업·화훼업 등 소비위축 우려"
국민의당 "여론수렴 거쳐 제정되길, 현재 판결 보아야"

(서울=뉴스1) 박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국민권익위원회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와 관련해 "부패 방지, 부정 척결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이제 부패의 고리를 끊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경 더민주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 "국민권익위원회가 우리사회의 잘못된 관행인 접대문화와 부정청탁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는 법 제정의 취지를 깊게 고민한 결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하지만 법 시행으로 인해 자영업, 농축산업, 화훼업 등의 소비 위축이 우려되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입법예고기간인 만큼 의견 수렴과정에서 문제점이 나온다면 세세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다시는 우리 아이들이 헛된 희생을 하지 않도록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고 다짐했다"며 "더민주는 이러한 약속을 지키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경록 국민의당 대변인은 "김영란법 제정 취지와 원칙에 맞게 여론수렴을 거쳐 시행령안이 제정되길 기대한다"며 "다만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pej86@news1.kr



성영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9일 세종청사에서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PROSPECT

DENTAL GROUP, LLC
Advanced Restorative Dental Clinic

프로스펙트 덴탈의 진료는 미래의 당신을 위한 가장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 한국어 가능
- 응급환자 당일진료
- 주말 진료
- Walk-ins Welcome
- 각종 보험



Eugene Khang DMD(강유진)

원장: Eugene Khang DMD (강유진)
진료시간: 월-금: 9AM ~ 6:30PM
토: 9AM ~ 5PM

TEL: 617.576.5300
30 Prospect St. Cambridge, MA 02139 (Redline Central Sq.역)
www.prospectdental.com



Dedicated to
Your Health

Icon Dental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백성편과 톱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마이클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형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여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33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lexington.com
www.icondentallexington.com

Dr. 차영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ov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모용현
교정 전문의

BELLA NAILS

GRAND OPENING

이제 캠브리지에서
한인 네일샵을 경험하십시오
(프리스트웨이 소라 화장품 내 위치)

탈라, 코팅지 펠, 네일 아트, 각질 제거, 푸피 마사지 등 다양한 로러로인료

SORA

소라 화장품
SHISEIDO

20년 전통 보스톤 시세이도 1호점



SHISEIDO ULTIMUNE

노화방지, 수분공급, 푸른빛, 피로회복, 탄력, 밝은 오묘 기능을 갖고 있는 제품. 피부에 탄력을 지켜주는 효과로 인기가 높은 제품

A GIFT FOR YOU



최대용 시세이도 강남점
컨설팅/마케팅/모텔
홍은희

옷벗기는 기본 성관계까지 생중계... '도넜은' 1인방송 판친다

수입과 직결되는 별풍선 받으려 온갖 엽기행각 벌이는 BJ들 '수두룩' 막장 방치하는 인터넷방송업체들 "클린 인터넷방송협의회가 뭔데요?"

(서울=뉴스1) 석대성 인턴기자 = "아우디 A7 죽이러 갑니다"

지난달 1일 배모씨(30)는 자신의 폭스바겐 차량을 타고 앞서 가던 A7 승용차를 위협했다. 한밤에 서울 시내 한 복판인 강변북로를 지그재그로 달리며 아찔한 행각을 벌이다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알고보니 배씨는 인터넷방송 진행자(BJ)였다. '한밤의 아찔한 레이스'는 생중계됐다. 배씨는 "위험한 행각을 벌여야만 '별풍선'을 받을 확률이 높아져 이런 행동을 했다"고 진술했다.

또다른 40대 BJ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6일까지 19차례에 걸쳐 시속 200km로 달리고 칼치기를 하는 등 난폭운전을 생중계하다 경찰에 들미를 잡혔다.

인터넷 1인 방송에 대한 선정성·사행성·폭력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1인 방송에서 인터뷰를 한다며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거나 실제 싸움 장면을 중계하고 장애인 비하 발언을 일삼는 등 비도덕적인 행동들이 적나라하게 노출되고 있다. 심지어 성기를 노출하고 성관계 모습을 연출하는 '음란방송'은 물론, 자해를 하

는 등 '엽기방송'까지 버젓이 내보내고 있다.

대표적인 인터넷방송인 아프리카 TV에는 '19금 누나 댄스'와 '청글(청순 글래머)여캠 몸매가' 등 선정적인 내용이 담긴 방송이 베스트로 게시돼 있다. 한 BJ는 청소년들이 시청하고 있는데도 함께 방송하던 여성의 몸을 만지고 시청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자극적인 행동을 이어갔다.

지난 2013년 한 BJ는 방송 중 김길태 성폭행 행위를 따라하다가 영구정지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얼마 후 방송에 복귀해 중학생들에게 간장을 끼얹는 등 방송을 재개해 논란을 일으켰다. 해당 BJ는 이 사건으로 두 번의 영구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6개월 후 또 다시 방송에 복귀했다. 그는 불법도박을 홍보하고 유흥업소 내부를 실시간 생중계하며 접대 여성을 성희롱하기도 했다.

일부 10대 여성 BJ들은 속옷을 벗거나 야한 춤을 추는 등의 행동도 서슴지 않는다. 초등학교들이 카메라 앞에서 알몸을 드러내놓고 자신의 몸을 만지는 등 성인방송을 흉내내는 경우도 있다.

'노출'을 시도하는 것은 애교 수준이다. 시청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성관계 장면을 여과없이 그대로 보여주는 사태도 벌어지고 있다. 한 BJ는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생중계했다. 이 BJ는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았고 지금도 사이트를 옮겨다니며 방송을 하고 있다.

선정적인 행동뿐 아니라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경우도 쉽게 볼 수 있다. 방에서 불꽃을 터뜨리고 불을 지르는 등 화기물질을 가지고 장난을 치거나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 자해를 하는 BJ들도 있다.

이런 엽기적이고 비윤리적인 행동을 벌이는 이유는 '별풍선' 때문이다. 별풍선은 1개당 100원의 가치를 지닌 사이버머니다. BJ는 방송을 본 시청자로부터 별풍선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중 40%는 아프리카TV가, 60%는 BJ들의 몫이다. 별풍선을 많이 받을수록 BJ몫이 늘어난다.

별풍선을 얻기 위해서는 별풍선을 '쏘는' 시청자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한다. 이 때문에 시청자들이 각종 가혹행위, 엽기 행위를 요구하면 이를 따라주는 BJ가 늘고 점점 '막장코드'가 넘

쳐나는 것이다.

BJ들이 광적인 행동을 하는데도 인터넷 방송업체들이 해당 BJ에 대해 소극적인 징계를 내리는 이유는 별풍선이 많을수록 기업의 수익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아프리카TV 관계자는 "별풍선이 수익과 연결돼 있는 것은 맞지만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면서 "별풍선을 받기 위해 막장방송을 하는 것처럼 알려졌는데 사실 막장방송을 한다고 별풍선을 많이 받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한밤의 아찔한 레이스를 생중계한 BJ는 별풍선을 18개 받았다"면서 "별풍선은 오랫동안 방송을 하면서 고정팬을 확보하고 있

는 BJ들이 더 많이 받는다"고 덧붙혔다.

1인방송의 막장논란이 끊이지 않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3월 '클린 인터넷방송협의회'를 열고 막장 개인방송을 하는 BJ에 대해 사업자가 서비스를 중단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착 아프리카TV 등 인터넷방송업체들은 협의회 존재조차 알지 못하는 등 협의회가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일부터 실태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힌 방통위는 "실태점검에서 사업자가 자율규제에 적극 동참했는지 확인하고 현황에 따라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2brich@news1.kr



최근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자극적인 1인 방송이 논란이 일고 있다

더민주 "어버이연합 사건만 멈춰...특정 의도 있다"

이춘석 "전경련, 청와대 뒤에 숨지 말고 입장 밝혀야" 백혜련, 우병우 靑 민정수석 연루 의혹 제기

(서울=뉴스1) 박승주, 박정하 기자 =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어버이연합 등 불법자금지원 의혹규명 진상조사위원장은 10일 "어버이연합 사건이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은 특정 의도가 있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TF(태스크포스) 3차 회의에 참석해 "지금 국민적 공분을 사는 옥시 가슴가살균제 사건, 정운호 법조사건, 어버이연합 사건 등 3가지 사건 중에 유독 어버이연합 건만 성과를 내지 못하고 멈춰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진상조사 TF에서 전국경제인 연합회에 관련자료를 요청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 대한 질의했지만 자료를 제출할 수 없고 질문에 답할 수 없다는 내용의 통보만을 받았다"며 "청와대가 국회를 무시하니 따라하는 것이 아닌가하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위원장은 "앞으로 국회가 정상화되면 관련 상임위원회와 관련자 출석 등을 통해 진실을 반드시 밝힐 것"이라며 "전경련도 더이상 청와대나 권력기관의 뒤에 숨지 말고 입장을 정확히 밝혀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검찰을 향해서도 "본연의 역할을 포기한다면 국회로서는 실체적 진실을 밝힐 별도의 방법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검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라고 강조했다. 조사위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현재 문제는 관련자 진술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경련과 국정원이 어떻게 연결되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모종의 어떤 역할을 했는지 총체적으로 밝히는 게 불법자금 게이트의 핵심"이라며 "저희는 우선 전경련 대해 필요한 액션이 있다면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백혜련 의원은 "전경련뿐만 아니라 재향경우회 등 보수단체에서도 어버이연합에 대한 자금 지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백 의원은 "재향경우회와 SDNJ홀딩스라는 회사가 50%씩 투자해 삼남개발이라는 회사를 세웠는데 지난 2014년과 지난해 재향경우회와 SDNJ홀딩스에 각각 20억원이 넘는 금액을 배당했다"고 말했다.

백 위원에 따르면 SDNJ홀딩스의 주주구성

을 보면 우병우의 장모가 20%를 소유하고 있고 자녀 4명이 20% 소유하고 있으며 '가족 기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백 의원은 또한 "2014년 4~11월 어버이연합에 총 39차례, 2500만원의 자금이 지원됐다는 의혹 제기됐는데 우병우 민정수석이 청와대에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으로 들어간 시기가 2014년 5월"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 위원장과 박 간사를 비롯해 이철희·이재정·진선미 위원 등이 참석했으며 TF는 이날 표창원·박주민 당선자를 위원으로 추가 임명했다.

한편 이상돈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어버이연

합과 관련해 "그 뿌리는 이명박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신윤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어버이연합은 이명박 정권 내내 정부를 옹호하는 시위에 앞장섰고, 당시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세력을 비판하는 시위도 거기(어버이연합)서 주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 당시에도 배후에 뭐가 있다고 생각했냐는 물음에 "그렇다. 그것은 결코 우연히 발생하지 않는다"며 "그런 시위에는 굉장히 비용이 든다"고 밝혔다.

parksj@news1.kr



10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열린 '어버이연합 등 불법자금지원 의혹규명 진상조사 TF 3차회의'에서 이춘석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Pre-Construction Pricing! ACT NOW!



BROOKFIELD VILLAGE



New Single Family Homes From \$400K's

www.pulte.com

See what all the excitement is about at Pulte Homes newest neighborhood at SouthField in Weymouth, MA! LifeTested™ homes designed for the life you want to live in a unique location.

**26 Memorial Grove Avenue
South Weymouth, MA 02190**

Call or visit for information!

877-772-6131



Open Tues.-Sun. 9-5
Mon. by Appt.

**An Exceptional Value
Right Now On New
Single Family Homes!**

Life Tested™ Features

- ✓ Six Spacious 2-4 Bedroom Homes
- ✓ Single Family and Town Home Designs
- ✓ Granite Kitchens
- ✓ Walk to Commuter Rail
- ✓ Master Suites
- ✓ Detailed Interior Trim
- ✓ Nine Foot 1st Floor Ceilings
- ✓ Low Maintenance Living
- ✓ Life Tested™ Designs

WOODSTONE CROSSING

Why rent?... When You Can Own.
Woodstone Crossing



Life Tested™ Features

- ✓ 7 Spacious Floor Plans
- ✓ Luxury 1-7 Bedroom Homes
- ✓ Granite Kitchens
- ✓ Low Monthly HOA Fees
- ✓ Master Suites
- ✓ Detailed Moldings/9' Ceilings
- ✓ Elevator Building
- ✓ Low Maintenance Living
- ✓ Walk to Commuter Rail
- ✓ Minutes from Boston
- ✓ Life Tested™ Designs

See what all the excitement is about. Pulte Homes newest neighborhood in Weymouth, MA at SouthField! LifeTested™ homes designed for the life you want to live in a unique location.

Sales Center Open • Tues - Sun 10am-5pm Mon By Appt.

**New Garden Style Condominiums!
Sales Center Now Open!
New Homes From \$300K's**



www.pulte.com

866-813-7267

26 Memorial Grove Avenue
South Weymouth, MA 02190

Community Association fees required. Details available upon request. Offer and pric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 2016 Pulte Homes of America, LLC





NEWSTAR BOSTON

Each office independently owned and operated

매주 40대 한인 부동산 그룹 / 20여년 역사 / 1500명 이상의 에이전트 / 연30%의 매출실적 / 20여 개의 대외지사 / 한국 및 캐나다 지리지사

전 미주 지역의 Network과 Teamwork 그리고 다년간의 경험과 New Star 부동산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의 성공과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영주
617-921-6979



주승원
617-780-7839



김형진
781-956-0409



Sue Rong Tsai
617-792-8842



Yukai Sun
860-830-8599



이제봉
781-654-5281



애나 정
617-780-1675



마희경
339-222-1709



Ritika Chopra
617-697-1191



Michael Yun
617-459-5985

단독주택 Single Family



\$549,900
Sharon, MA
3Beds, 2Baths, 2,540sf.
좋은 학군, 많이 update된 집
넓은대지, New Master Suite
이현주 401-935-3397



\$679,900
Sharon, MA
4 Beds, 2.5 Baths, 2376sf.
잘 꾸며진 정원, cul de sac,
넓은 master suite, 새 부엌
이현주 401-935-3397



\$1,049,000
Acton, MA
4 Beds, 4 Baths, 3652sf.
좋은 학군, 편리한 주거환경
넓은 정원과 대지
Gina Choi 978-866-32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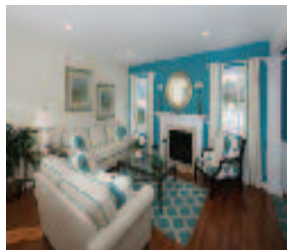


\$1,419,000
Lexington, MA
5Beds, 2 1/2 Baths, 2,907sf.
최고의 학군, 대중 교통
조용하고 편리한 환경
신보경 508-361-60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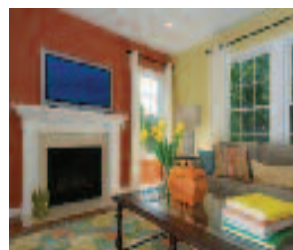
New Construction



\$359,000
Weymouth, MA
3Beds, 1Bath, 1380 sf.
Central A/C, Sky light
이현주 401-935-3397



콘도/타운하우스/싱글 하우스 S.Weymouth, MA
역까지 도보 3분, JFK/Umass까지 3stop, 1-3 Br, \$299,000~
바다 옆에 있는 아름다운 타운에 신축중인 콘도에 처음 입주하세요!
한인담당; 스티븐 손 617-290-0623 이현주 401-935-3397



콘도 Condominium Rent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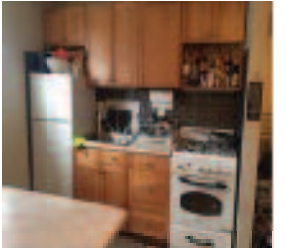
\$273,900
Maynard, MA
2 Beds, 1.5 Baths, 1930 sf.
four level 타운홈
Anna Jung 617-780-1675



\$1,780
Boston, MA
1Beds, 1 bath, 650sf.,
Steven Son 617-290-0623



\$2,700
Boston(Back Bay), MA
1Beds, 1 Baths 709 sf.
트인구조, 높은 천장, 새 부엌
Jay Lee 781-654-5281



\$1,500
Arlington, MA
Fully Furnished Studio,
좋은 교통, 안전한 동네
Hazel Seung 617-895-7676

Pre-Sale
Millennium Tower Boston
하이라이즈 콘도
2016 완공예정, 럭셔리콘도
90% Pre-Sold
Boston, MA
다운타운 새 콘도
오피스 781-259-4989

Single Family
\$399,000
Malden, MA
5 Beds, 1.5baths, 1740sf.,
Shell Yu 781-526-2416

Single Family
\$318,000
Hopkinton, MA
2 Beds, 2.5 Baths, 1651 sf.
Michael Yun 617-459-5985

Single Family
\$319,900
Maynard, MA
4 Beds, 2baths, 1579sf.,
Anna Jung 617-780-1675

Condo Rental
\$2,900
Lexington, MA
3 Beds, 2 baths, 1400sf.,
Janice Lee 978-806-6023

Condo Rental
Apt, Condo Rental
전문 상담
David Kim 781-956-0409
Hazel Seung 617-895-7676

Condo Rental
\$1,600
Acton, MA
2 Bed, 1 bath, 820sf.,
Gina Choi 978-866-3248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Tel. 781.259.4989 Fax. 781.259.4959
www.BostonNewStarRealty.com

Newton Office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Tel. 617.969.4989 Fax. 617.969.4959
www.NewStarRealty.com

Agent 모집합니다. 781.259.사구팔구 617.969.사구팔구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40 Wall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www.BostonNewStarRealty.com
www.NewStarRealty.com

Each office independently owned and operated
미국 최대의 부동산 그룹 / 2008년 100% / 2009년 100% / 2010년 100% / 2011년 100% / 2012년 100% / 2013년 100% / 2014년 100% / 2015년 100% / 2016년 100%



스티븐 손
617-290-0623



박성종
617-304-7001



Sara You
617-899-3566



Shell Yu
781-526-2416



제니스 리
978-806-6023



신보경
508-361-6064



Claudia Lee
617-817-사구팔구



이현주
401-935-3397



Gina Choi
978-866-3248



OT Kim
617-620-8242

Nail Salon	Nail Salon	Full Plant Drycleaner	Full Plant Drycleaner

\$70,000
Dedham, MA
1200sf. 넓은 주차 공간
6 manicure & 4 pedicure stations
Anna Jung 617-780-1675

\$110,000
Cambridge, MA
400sf. Porter sq.
넓은 주차공간
Anna Jung 617-780-1675

\$350,000
Reading, MA
최적의 위치, 높은 매상
정년세일
스티븐 손 617-290-0623

\$475,000
Quincy, MA
10개월된 새 장비
매상 높음, 편리한 교통
이현주(Julie Lee) 401-935-3397

Restaurant	Restaurant	Restaurant	Restaurant

\$499,900
Brookline, MA
Restaurant w/ Liquor
5000 sf. 180 인석
Anna Jung 617-780-1675

\$500,000
Cambridge, MA
Center of Harvard Sq.
Including Liquor license
3400 sf. Capacity of 120 people
Anna Jung 617-780-1675

\$915,000
Providence, RI
브라운대학 근처,
with Liquor
이현주 (Julie Lee) 401-935-3397

\$309,000
Allston, MA
한인타운 최적의 위치
Full Size Kitchen
스티븐 손 617-290-0623

Coin Laundry	프렌차이즈	Business Consulting	Commercial

\$55,000
Brookline, MA
Drop-off and coin laundry
Good location for business
Anna Jung 617-780-1675

한국 식당, 카페, 프렌차이즈
셋팅 전문
SJ Park 617-304-7001

센트럴 sq., 하버드 sq.
올스톤, 뉴튼 센타
SJ Park 617-304-7001

<p>Investment</p> <p>E-2 & EB-5 투자 문의 781-259-4989</p>	<p>Restaurant</p> <p>\$995,000 Westford, MA Newly set up, Asian food SJ Park 617-304-7001</p>	<p>Restaurant</p> <p>\$850,000 REDUCED Westborough, MA Asian Restaurant/Bar SJ Park 617-304-7001</p>	<p>Restaurant</p> <p>\$199,900 Newton, MA Korean-Japanese Restaurant Anna Jung 617-780-1675</p>
<p>Restaurant</p> <p>\$495,000 Boston, MA 아주 붐비는 위치 SJ Park 617-304-7001</p>	<p>Full Plant Cleaner</p> <p>\$260,000 Chelmsford, MA Chelmsford downtown Anna Jung 617-780-1675</p>	<p>Restaurant</p> <p>\$309,000 Allston, MA High Traffic Main Road Steven Son 617-921-6979</p>	<p>APT Rental</p> <p>보스톤 아파트 전문가 가격, 지역, 크기 David Kim 781-956-0409</p>



최고의 실력과 탄탄한 경력을 갖춘 에이전트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곧 전화하세요 !!!

패트리어츠에서 가장 기대되는 NFL 2년차 선수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프로 선수들에게는 현역으로 뛰 수 있는 모든 시즌이 중요하겠지만, 일반적으로 NFL에서는 루키 시즌을 지나 2년차 시즌을 시작할 때 가장 많은 발전을 보이게 된다. 선수 각각에 대한 기록과 영상이 남아 있고, 대학이 아닌 NFL 수준에서 강점과 약점이 보여지기 때문이다.

오프시즌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서 가장 크게 성장할 수도 있는 선수들이 루키 시즌을 갖 마친 선수들이다. 2016 시즌이 기대되는 2년차 패트리어츠 선수들을 살펴보자.

Malcom Brown, DT, #90

패트리어츠는 작년에 말콤 브라운을 드래프트에서 선택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했다. 텍산스로부터의 트레이드 제의를 거절할 정도로 브라운에 대한 기대가 컸다.

작년 드래프트를 지나 오프시즌 트레이닝을 시작한 브라운은 탁월한 신체 능력에 비해서는 느린 출발을 보였다. 블로커가 한 명일 때는 그나마 상대할 수 있었지만 더블 블로커가 붙으면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시즌 초반 패트리어츠는 러닝에 대한 수비가 만족스럽지 못했고, 가장 큰 이유는

브라운이 고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시즌을 마칠 때 브라운은 패트리어츠의 수비 전술과 NFL의 경기 수준에 완전히 적응한 것처럼 보였다. 상대편 블로커를 뚫고 들어가 러닝백을 효과적으로 저지했다.

브라운은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3-4 포메이션에서 스킬을 주로 사용하는 디펜시브 태클 역할을 맡을 것이다. 어쩌면 빠른 몸놀림을 이용해 패스 러시를 담당할 수도 있다. 도미니키 이즐리가 방출된 탓에 브라운에게는 패스에 대한 수비에서도 기용 가능성이 높아졌다.

Shaq Mason, G, #69

조지아텍 출신의 샤크 메이슨은 드래프트 4라운드에서 선발되었다. 메이슨은 필요한 기술을 빠르게 익히며 단기간에 성장했다. 메이슨이 2015 시즌에 보여줬던 모습은 사실 2016 시즌에 기대되는 모습이다.

메이슨은 러시 공격을 할 때는 블로커로서 기대 이상 기량을 선보였다. 다만 러시 공격에 비해 상대편 수비수를 더 오래 묶어 놓아야 하는 패스 공격에서는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힘이나 신체 조건은 메이슨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메이슨은 더



패트리어츠의 디펜시브 태클 말콤 브라운은 올해 더 많은 출전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선수다. 올해 오프시즌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서 메이슨은 백업 선수가 아닌 주전 선수로 될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 이미 메이슨은 2015 시즌에 패트리어

츠 최고의 가드였다. 패트리어츠는 올해 드래프트에서 2명의 가드를 보충했다. 그러나 메이슨이 주전 경쟁을 벌여야 할 상황은 아니다. 작년에 경기장에서 보여줬던 모습

처럼 꾸준히 성장하고 일관된 경기력을 보여준다면 그만큼 더 많은 출전 시간을 보장받고 주전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이다.

jsi@bostonkorea.com

이대호 시즌 5호 홈런 폭발...박병호는 4타수 무안타 침묵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빅보이' 이대호(34·시애틀 매리너스)가 시즌 5호 홈런을 쏘아올렸다.

이대호는 10일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세이프코필드에서 열린 2016 메이저리그 탬파베이 레이스전에서 7번타자 1루수로 선발 출장해 4타수 1안타(1홈런) 3타점 1득점을 기록했다.

이대호는 특히 3-2로 앞선 4회말 두 번째 타석에서 시즌 5호 3점홈런을 폭발시키면서 팀의 6-4 승리에 일조했다.

지난 5일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전에서 연타석 홈런을 쏘아올린 이후 6일만에 홈런을 추가한 이대호는 시즌 타율 0.283를 마크했다.

3-0으로 앞선 1회말 2사 3루에서 삼진으로 물러난 이대호는 두 번째 타석에서 화력을 뽐냈다.

3-2로 추격 당한 4회말, 크리스 아이아네타와 카일 시거가 연속 안타를 쳐 만들어진 무사 1,2루 찬스에서 타석에 들어선 이대호는 오�클랜드의 좌완 드류 스마일리를 상대로 1볼1스트라이크에서 연속 세 개의 파울을 걸어내면서 끈질긴 승부를 벌였다.

이어 6구째 스마일리의 80마일(약 128km)짜리 커터가 바깥쪽에 형성됐고, 이대호의 방망이가 날카롭게 돌아갔다.

배트 중심에 맞은 타구는 우익수 방면으로 뻗어갔고 우측 펜스를 살짝 넘어가는 3점홈런으로 연결됐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엠엘비닷컴'에 따르면 이대호의 홈런은 시속 99마일(약 159km)의 속도로 날아가 363피트(약 110m)의 비거리를 기록했다.

이대호의 홈런에 힘입어 시애틀은 6-2로 달아나 승통을 띄웠다.

이대호는 나머지 타석에서는 안타를 추가하지 못했다. 이대호는 6회말 선두타자로 맞이한 세 번째 타석에서 2구를 공략했으나 중견수 뜬공으로 물러났다. 8회말에는 2사 2루에서 타석에 들어섰지만 3루 땅볼에 그쳤다.

시애틀은 이대호의 3점홈런 이후 2점을 추격 당했지만 끝까지 승리를 지켜냈다.

2연승을 달린 시애틀은 시즌 20승(13패) 고지를 밟으면서 아메리칸리그 서부지구 선두 자리를 지켰다. 반면 2연패한 탬파베이는 15승16패가 됐다.

박병호(30·미네소타 트윈스)와 김현수(28·볼티모어 오리올스)의 맞대결 성사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미네소타-볼티모어전에서는 두 코리안리거가 모두 웃지 못했다.

6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장한 박병호는 4타수 무안타 3삼진으로 침묵했다. 지난 9일



이대호(34·시애틀 매리너스)가 10일 열린 탬파베이 레이스전에서 4회말 시즌 5호 3점 홈런을 때린 뒤 동료들로부터 축하를 받고 있다

시카고 화이트삭스전에 이어 2경기 연속 4타수 무안타에 그친 박병호는 시즌 타율이 0.244로 떨어졌다.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된 볼티모어의 김현수는 끝까지 벤치를 지켰다. 김현수는 지난 8일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와의 더블헤더 2차전에 선발로 나선 이후 2경기 연속 결장했다.

이날 경기에서는 볼티모어가 5-3으로 승

리했다. 볼티모어는 3-3으로 맞선 9회초 아담 존스의 결승 2타점 2루타로 결승점을 뽑았다.

3연승을 달린 볼티모어는 시즌 전적 19승 12패로 아메리칸리그 동부지구 선두 자리를 지켰고 6연패 수렁에 빠진 미네소타는 8승 24패로 아메리칸리그 중부지구 최하위에 머물렀다.

starburyny@news1.kr

ACN 사업과 집을 지켜 드립니다



“전기비까지 절약하실수 있습니다”

POSPay



작전타임 한번
불러보시죠?

사업도 성공하기 위해선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타이밍이 지금입니다.



<고객 절약 사례>
 본점: 20% 절약
 매지점: 16% 절약
 Mr. Sushi: 19% 절약
 VIP Nails: 22% 절약
 Queens Nails: 24% 절약
 Great Nails: 37% 절약
 My Cleaners: 41% 절약
 Classic Cleaners: 13% 절약
 Professional Cleaners: 23% 절약

www.pospay24.com



Agent / 상담원 모집

TEL **617-466-2212**

TOLL FREE **888-604-2190**

150 Eastern Ave #2FL Chelsea, MA 02150

성양푸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
St. Andrew Daveluy Parish of Boston Church

주일미사(한국말)
오전 11시30분 (교중미사)
오후 4시30분 (청년주관)

영어미사
오전 10시

명일미사
(화) 오전 10시30분
(목) 오후 7시30분

고백성사
미사 시작 30분전

서둘서비스(요청시)
(http://stdaveluychurch.org/오시는길)
11:15 am, 리버사이드역 → 성당
미사 30분 후, 성당 → 리버사이드역

45 Ash St. Newton, MA 02466
617-558-2711, 617-244-9665
office.lkcb@gmail.com
www.stdaveluychurch.org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십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턴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당목사 유 경 일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보스턴은혜장로교회
BOSTON GRACE PRESBYTERIAN CHURCH

이 길은 살며시신 하나님의 길이고 권리와 가정의 터전입니다 (행 9:11)

주일예배 / 오후 2:45 | 금요일기도회 / 저녁 7:30
영양/음악/초경/봉고광부대위/영양부모임
Grace Bible Study / 수요일 7:30

담당 목사 / 우사양

7 Clarendon Road, Lexington, MA 02421
(In the Trinity Covenant Church)
Tel: (781) 715-0571 / Fax: (781) 645-0407
bostongracechurch.org

보스턴 밀알 한인 장로교회

가르치고 전파하라
(약 4:25)

예배시간:
주말: 1부 9:30, 2부 11:00
평일: 9:00

밀알한국학교 운영(주일 오후)

담당목사: 박일종

주소: 15 Alpha Rd, Chelmsford MA 01824
전화: 978.570.9117
www.milal-church.org
Lexington에서 25분, H-28로 15분 거리

유재부: 밀알교회 목사
유남부: 밀알교회 목사
유소: David Hwang 권도사
정남/김도: Erika Kim 권도사

성경대로 열으며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교회

사랑제일교회
BOSTON UNITED METHODIST CHURCH

담당목사: 권종성
Faith Theological Seminary, M.Div.
New York Univ. M.A.
한양대학교 대학원
원기종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노회 소속

교회 예배 안내

주일 예배	오전 10시
주일 학교	오전 10시
평일인양부	오전 10시
목요 중부	오전 11시
수요 예배	오전 7시
구별 예배	각 구역별

* 모든 예배는 영어로 중시 병행합니다.
All services are translated in English simultaneously

461 King St. Lynn, MA 01904 Tel: (978) 985-0295, (978) 944-3404
www.bostonumc.org

보스턴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 주일학교: 오후 2시
평일예배: 오후 2시 |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당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781.894.3958 목사관: 817.969.5809

Do you have Sunny Roof?
Call now to see quality for Solar Panel!

- No cost to you.
- Have your own power house at home.
- Cut your electric bill dramatically.
- Help environment

No.1 in US
SolarCity

Kevin Yoon, Energy Consultant(한국어가능)
TEL: 878.590.4735
EMAIL: kyoon083@yahoo.com

코리아 여행사



617.267.7777
1.800.473.1922

보스턴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508-740-9188

CHOISIGNS & DESIGN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 Car Sign, Lighted Box, All Types of Signs.

간판 및 사인

617.470.1083
e-mail: choisigns@yahoo.com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 함께 하신 말씀의 열매를 맺으시길 기도합니다.
그 사랑으로 주님께 사모 사명하며, 그리스도의 보람을 향유하십니다.
같은, 같은, 같은, 사랑, 사랑, 사랑. 부활하신 영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배를 준비합니다.

금요일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영성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금 오후 8: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6:30, 토 오전 7:30
영성예배 주일오후 12:30
속죄예배 수-주일 속죄일
영성예배 화,목 오후 8:00, 주일 오전 9: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2:30, 수 오전 6:50, 목 오후 9:30

비전교회
The Peopl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80 Mt. Auburn St., Westtown, MA 02472 Tel: 617.744.8587
www.growwithus.org

UMS
신용카드결제 전문 기업 SINCE 1994

**15년동안 한인 비즈니스의
크레딧 카드 솔루션을 책임져 왔습니다.**

전문성과 기술력으로
탁월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UMS**

flex 2it UP SOLUTION

내외는 뉴저지주 법세 관련 카드결제 전문회사로서 미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Flex 2it는 신용카드 결제, 가맹점 UP Solution을 통한 POS 시스템, 모바일 결제 시스템 등
필요한 모든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 최적의 결제대처 패키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내외 비즈니스가 성공하려면 **이선호**
781.266.7245





HAPPY

해피돌상

고품격 전통상 대여 (백일상, 돌상)
 한국보다 더 한국적인 공품향 전통상차림,
 소중한 내 아기에겐 한국의 미를 보여주세요!
저렴하고 무심하게!



- 품격을 더하는 화접도 현수막
- 다양한 수공예 소품들



- 열매의 마음으로 만든 기차귀 케이크
- 국산산 용기접시와 찬기, 공기



- 화려하고 우아한 나비꽃더
- 풍성한 상차림 세트

문의 Happydolsang@gmail.com



크라우저 앤 서 로펌

MIAMI - BOSTON - D.C.

이민법 / 국제법 전문 로펌 Specializing in Immigration / International Law



Henry Crouser
변호사

스티브 서
변호사

전문 분야

- 전문인력 취업비자 (H-1B)
- 단기연수원 비자 (H-3)
- 주재원 비자 (L-1)
- 특가자 비자(O-1, P-1)
- 취업이민 (EB-2, EB-3, EB-4)
- 종교비자 (R-1)
- 투자이민 (EB-5)
- 투자비자 (E-2)
- 교수 및 연구직 (EB-1, NIW)
- 가족초청이민
- 시민권 신청
- 추방제안

VISIT US AT :
www.stevesuh.com / www.suhladyer.com

Crouser & Suh PLLC

251 Harvard Street Suite 6, Brookline, MA 02446

Tel: 617.566.7979 Fax: 617.566.7982

Email: info@stevesuh.com

흉터 부위 모발이식, 조직 상태 꼼꼼히 살펴야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모아름 모발이식센터' ... 이식 가능 여부 확인 당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비절개모발이식 전문 '모아름 모발이식센터(원장 이규호)'가 흉터 부위에 모발이식을 하는 경우 조직의 상태를 꼼꼼히 살펴볼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이는 흉터로 인한 탈모는 일반 탈모의 모발이식 수술과 달리 이식이 가능한 여부가 불투명하기에 보다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한다는 이유에서다.

모아름 모발이식센터(이하 센터)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두피에 생긴 흉터의 원인은 크게 화상이나 약물 등으로 인한 화학적 손상, 외부의 압력을 받아 생긴 외상, 수술로 인한 흉터, 피부질환으로 인한 염증 후 흉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중 화학적 손상, 외상, 수술 후 생긴 흉터는 비교적 모발이식 수술이 쉬운 편이지만 피부질환 염증으로 인해 생긴 흉터의 경우 모발이식 수술이 어렵다는 것.

이규호 원장은 "염증으로 인한 흉터는 이식수술 후 오히려 염증이 더 심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며 "외상 후에 생긴 흉터 역시 조직의 상태에 따라 수술 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흉터 부분의 두피 조직상태가 모발이식 수술 후 생착률에 중요한 역할

을 하기 만큼 반드시 수술 전 조직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게 이 원장의 제언이다.

그는 "조직이 두텁고 단단한 경우 생착률이 매우 낮지만 부드럽고 혈액순환이 좋은 조직이라면 높은 생착률을 기대할 수 있다"며 "흉터 조직이 큰 경우라면 두피축소술을 우선으로, 필요에 따라 생착률을 높이기 위한 치료가 선행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원장은 흉터가 생긴 원인에 따라 모발이식 후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흉터 부위에 모발 이식을 하는 경우 발생 원인에 따라 수술 결과를 장담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생

착률이 20~95%로 편차가 매우 크고 이식밀도도 낮은 편이라 여러 번의 수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술 후 성급한 기대를 갖는 것은 금물"이라고 조언했다.

'모아름 모발이식센터'와 제휴를 맺고 있는 휴람 해외의료사업팀의 김수남 팀장은 "두피에 생긴 흉터로 인해 탈모가 생겼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을 방문했을때 '모아름 모발이식센터'에서 한번쯤 상담을 받아보길 권한다"고 말했다.

'모아름 모발이식센터' 및 휴람의 전반적인 서비스에 대한 그 이외에 자세한 내용 및 문의는 보스톤코리아(전화 617-955-9112)로 하면 된다.



모아름 모발이식센터 이규호 원장이 환자의 모발상태와 두피 조직을 체크하고 있다

○... 모발이식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첫째, 현재 자신의 탈모 상태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정확한 진단이 내려져야 약을 먹든 수술을 하든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일단 병원에 가서 전문의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둘째, 약 복용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프로페시아와 같은 약물 복용을 꺼리지 말라. 매일 약 챙겨 먹는 것이 귀찮아서 약 복용을 안하는 분도 있는데, 나의 모발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생각해 보라. 집에 난초를 키운다 생각하고 돌보도록 하자.

셋째, 탈모에 대해 스스로 박사가 되어야 한다. 누구보다 탈모에 대해 많이 알고 있어야 한다. 단 인터넷에서 비전문가에 의한 말에 끌리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그릇된 정보로 편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의외로 많고 그로 인해 치료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많다. 수술의 경우에도 최소한 모발과 모낭, 절개와 비절개, 식모기와 슬릿 등의 차이점들은 알고 있어야 한다.

네째, 신중히 수술할 병원을 선택해야 한다. 수술 병원을 선택할 때 수술 방식, 비용, 수술전후의 사회 생활 등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 절개식으로 할 것인지, 비절개식으로 할 것인지를 첫번째 선택되어야 한다. 각 수술법의 장단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자신에게 적합한 수술법을 결정해야 한다.

다섯째, 너무 과도한 비현실적 기대치는 가지지 말아야 한다.

모발이식은 모발의 재분배다. 뒷머리를 탈모부분으로 옮겨 심는 재분배 작업이다. 밀도가 높을 수록 정상적인 자연스러운 모습이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안다. 그러나 아무리 수술을 하더라도 정상적인 100% 밀도를 만들 수 없다. 현실적으로 제한된 뒷머리의 수, 계속되는 탈모의 진행, 기술적인 제한 등으로 100%를 만들 수는 없다. 수술에 대한 목표치와 기대치를 현실적인 범위내로 수정을 해야 한다.

일곱째,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치료에 임해야 한다. 탈모치료를 최상의 시나리오가 있듯이 최악의 시나리오도 있다. 물론 최악의 상황도 염두에 두어야 하겠지만 평균적인 기대치는 가져야 한다. 어떤 분들은 너무 최악의 상황만 걱정하고 있다. 이식을 해도 이식한 것들도 다 빠지겠지, 약을 장기간 먹으면 내성이 생겨 약효가 없던데, 수술안한 부위 탈모가 진행되어 수술한 곳과 균형이 깨어지면 흉한 모습이 된다는데 등 이런 기우들로 치료를 포기하다 시피하는 분들도 있다. 물론 원하는 결과가 안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원하는 결과가 안나오는 것보다 해보지 않은 것을 후회해야 한다는 것이다.

쌩쌩한 가을을 보내기 위한 필수품! 가족들에게 안티비를 선물하세요!

하루 \$1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대로!

아직도 불법 다운로드 하세요? 아직도 비디오를 빌리세요?

합법적인 안티비를 적극 추천합니다!

지금바로 전화주세요! 617.955.9112 / 617.254.4654

bostonhanjin.com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한진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T: 617.782.2424 F: 617.782.2421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포워딩 / 택배 서비스

여권사진 / 이벤트 사진 / 영상 촬영 및 편집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 디지털 포토 & 포토샵 튜터링 Nabis Studio

한인 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현재 한인업소록의 각종 전화번호를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혹 누락된 번호가 있으면 617-254-4654나 bostonkorean@hotmail.com으로 바로 연락 주십시오. 즉각 반영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Ex. 33) 견인	617-338-2352 800-632-8075
고등교육위원회	617-727-7785
고등교육정보센터	800-442-1171
공중위생국	617-624-6000
구세군	617-536-7469
국세청	800-829-1040
날씨문의	617-976-6200
로간국제공항	800-235-6426
미아찾기	888-477-6721
백미지역	617-345-7958
보스턴공립학교	617-635-9000
보스턴수도	617-989-7000
보스턴시청	617-635-4500
보스턴총영사관	617-641-2830
사우스역	617-345-7958
사회보장국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이동보호	617-418-2000
아동학대	800-792-5200
알고콜/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온전연허	617-351-4500
펠러버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적십자	800-564-1234
전화신청 (Verizon)	800-941-9900
전화교정선교 (Verizon)	617-555-1515
택시	617-343-4475
AAA	800-222-4357
FBI	617-741-5533
MBTA	800-392-6100
NSTAR가스	800-572-9300
NSTAR 전기	800-592-2000
RCN케이블TV/전화	800-746-4726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 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주요 단체

국제결혼자정신건강협회	978-407-7554
국제결혼자정신건강협회(NE)	603-889-8201
뉴잉글랜드골프협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군전우회	978-902-8305
NE교역자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문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신악회	774-270-1948
뉴잉글랜드시인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병대전우회	617-833-1360
대대사추세트해군대협회	603-894-5425
민주평통보스톤협의회	413-535-0916
보스턴 대한체육회	781-326-9009
보스톤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미노인회	978-994-5490
재미교과기술자협회	857-998-7043
재향군인회	339-298-7187
세무인협회	508-826-5270
이탈5도도민연합회	978-514-3399
한인학교연합회	781-424-5269
FH인간경제인협회	401-481-4900
한국인양아동회(메인)	207-878-5652
625참전유공자회	978-725-9597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동창향우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북고등학교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95-1779
뉴잉글랜드신악회	774-270-1948
배재중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턴 신악회	978-569-3256
보스턴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람	774-270-1948
서강대동문회	617-599-9869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신학대학교동창회	
성균관대동창회	802-734-2521
영등포고등학교동창회	508-541-6969
이화여고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대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도민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781-708-3160

언론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한인일보	781-933-8822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종교

기독교	
구세군 물동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 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톤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람의교회	781-439-1840
낮아짐교회	781-832-2014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물동교회	617-792-8780
그리스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203-861-1134
나사렛사람의교회	603-430-2929
내슈아한마음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잉글랜드한미교회	413-567-9142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감리교회	617-990-7619
뉴햄프셔한인교회	603-437-5134
라이코스교회	603-264-6799
라이스한인침례교회	978-387-1115
로드아일랜드성동교회	508-926-8236
로드아일랜드제일교회	401-353-0983
대생명의길장로교회	401-944-0520
대생명의길장로교회	401-821-2311
메리맥 교회	978-806-1363
목양교회	617-223-1690
무지개교회	207-774-1617
밀양한인교회	978-244-0691
렉싱턴 풍성교회	617-953-0856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864-5948
보스턴 국제교회	978-844-2404
보스턴 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턴 사랑교회	617-285-8870
보스턴 사랑제일교회	978-844-2404
보스턴 은혜장로교회	781-715-0571
보스턴 새롭교회	617-947-6765
보스턴 새생명교회	978-777-1800
보스턴 생명의 교회	978-578-6987
보스턴서장로교회	781-894-3958
보스턴 성결교회	781-275-8233
보스턴 한울교회	781-396-1004
보스턴 소망교회	781-686-5526
보스턴시온성교회	978-758-4541
보스톤인식교회	781-279-3270
보스톤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턴웨슬리안교회	781-393-0004
보스턴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턴 제일교회	617-458-2733
보스턴 주님의교회	617-966-9608
보스턴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턴필그림교회	857-636-9985
보스턴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턴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톤한인연합교회	617-923-9581
북부보스톤감리교회	978-4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세루살렘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톤교회	617-413-5372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시온감리교회	401-739-8439
산안도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3352
에이이 베델교회	978-274-2369
엘허스트 한인장로교회	413-549-6495
엘허스트 시온교회	413-549-9200
올스타한인교회	617-642-7403
우스톤 교회	508-799-4488
위십프린터 교회	91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978-394-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좋은땅교회	978-930-6613
지구촌방주교회	617-838-6434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장로교회	781-861-3877
퀸시영생장로교회	617-770-2755
하바드 한인교회	617-441-5211

불교

문수사	781-224-0670
서운사	508-755-0212
심광사	617-787-1506

원불교

원불교 보스톤성당	617-666-1121
-----------	--------------

천주교

보스톤 한인천주교회	617-558-2711
로드아일랜드한인천주교회	401-499-8258

간판

초이스간판	617-470-1083
-------	--------------

건강식품

보스톤 정관정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	--------------

건축

글로벌건축	617-645-6146
김원태 건축사	617-620-8242
미남건축	508-650-8844
선아건축	508-230-5878
솔로몬 DRYWALL	978-761-0623
신중축 루핑사이드 청문	617-999-9616
아놀드 건축	617-833-1360
파인원건축	617-688-6833
한센(주)	781-487-0101
ECO Construction	781-608-2971
E/Y 건축	617-590-3472
J.C건축	781-738-7871
J&D 인테리어	617-645-6661
LEE'S건축	617-538-0558

골프개인

골프레스	617-458-2733
골프스쿨	617-775-5527
남궁연골프교실	978-474-4780
ABC골프	603-401-7990

최현주 골프 레슨

339-223-4700

공인 회계사

김양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주 회계사	781-944-2442
이명원 회계사	617-455-8073
정진수회계사	508-584-5860
한미선회계사	617-792-2355
한성애회계사	617-283-7151

꽃

미스틱화원	617-666-3116
대교플라워	617-875-0648
앤더슨꽃집	781-894-1843

금융/모기지

인디펜던트(류영욱)	617-777-2929
에이저리	781-591-2722
이중수파이낸스	617-799-6158

냉동/에어콘/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노래방

진 노래방	617-782-9282
-------	--------------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톤공립도서관	617-539-5400

당구장

올스타당구장	617-782-0969
--------	--------------

동물병원

김문소 동물병원	978-851-3626
윤상대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김 동물병원	978-658-5282

떡/진치/반찬(주문)

형제떡집	978-975-3303
참음식주문	781-648-0584
한아름	617-547-8723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스킨케어	978-468-0039
그레이스커팅클럽	617-331-1011
단오 헤어살롱	617-206-4650
뉴트리 헤어살롱	978-239-0141
세리 미용실	781-676-7374
압구정동알굴방	617-437-0378
순옥유니부동산	508-734-0446
신현철부동산	617-947-6293
에이비부동산(채해경)	617-868-2253
오성희부동산	617-275-3109
이경해부동산	800-867-9000
이정선	781-874-2087
이도경(condo & rental)	781-771-0047
정혜윤부동산(EXT.125)	603-770-3491
정윤숙부동산	617-236-8600
조현경부동산	508-249-5838
프루멘셜(이효숙)부동산	203-255-2800
프루멘셜(김종미)부동산	603-845-2138

대상 대여/폐백

해피대상	617-583-2339
폐백	978-688-0929

방송국

엔티비보스톤사업국	617-955-9112
-----------	--------------

변호사

김공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박현중특허변호사	978-474-8880
성기주변호사	617-504-0609
스티븐지 변호사(이민법)	203-852-9800
워드랜드/엑커맨변호사	203-324-6155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정선진변호사	617-230-0005
피터전변호사	203-386-0503
JOHN DOWNEY 법률사무소	647-964-5809
STEVEN S. KIM 변호사	617-879-9979
Joy Lee 변호사	617-624-0292
Young Lee Danesh	617-367-4949

병원

가정의	
그레이스 김 가정의	978-475-5656
송민근	617-696-7600
해바드병(이재용)	617-421-2282
한서동내과	401-722-0305
산부인과	
최의웅산부인과	401-726-0600
이윤노산부인과	508-427-3000
소아과	
장경이 소아과	978-687-2119
심리상담	
배주은심리상담사	617-566-1055
심리상담	

김자향심리치료사	781-769-8670 x6080
양미아해밀리카운셀링	508-728-0832
임나경심리상담사	617-738-9622

재활의학

가족물리치료병원	781-365-1876
닥터스통증병원	617-731-1004
상진우척추신경전문	978-688-6999
추 남남 D.C.	617-230-4250

치과

김동원치과	978-689-9363
김정구 치과	860-623-2601
브라이언윤치과	978-655-1583
신영록 치과	617-265-5606
안 치과	781-647-8000
엑셀패밀리덴탈	617-471-6970
이영란치과	508-987-8228
이요셉치과	781-431-7295
케임브리지덴탈	617-492-8210
케임브	

▶광고 마감: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신문)▶수표 보내주소: Payable to: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 Suite 13 Allston, MA 02134

**사업의 시작은
이경혜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알뜰 나눔터 안내

보스톤코리아는 2013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알림광고 요금정책을 적용합니다. 보스톤 코리아 네이션 와이드 광고를 선택하시면 LA, 애틀란타, 뉴욕, 시카고, 애틀란타, 달라스, 시애틀 및 보스톤까지 총 미주 8개 지역의 오프라인 신문을 통해 광고를 동시에 내보내도록 합니다. 네이션 와이드의 광고는 총 5줄까지 가능하며 한 달 광고료는 \$5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N**은 보스톤 지역 외 네이션 와이드 광고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보스톤 지역 광고만을 원하실 경우 한 달에 \$30입니다. 결제는 그레딧카드로 하실 수 있으며 개인수표 또는 머니 오더 등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신문 광고 마감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입니다. 보스톤코리아닷컴 광고는 신청 당일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사고 팔고

광고 문의 617-254-4654

**룸렌트 및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N[매매]

4/22
그린빌 SC에 위치한 식당 매매 합니다
아주 잘 되는 가게 입니다.
T. 864-380-5551

6/3
세탁소에서 프레스, 헬퍼, 딜리버리 하
실 분 구합니다. (남녀노소)
T. 617-840-1833

4/29
세탁소에서 운전 / 프레스 하실 분
각각 1명 구함.
T. 978-806-1881

5/13
중고 공업용 미싱 샵니다.
T. 781-595-9241

Nail Salon for Sale

8 Tables, 8 Chairs, 1 Bar
Price: \$300K
Location: Plymouth
T. 774-269-4361 (Kieth)

2/26
N[구인]
플로리다지역 직슨빌
교포환영,숙소제공함
T. 770-712-3973

4989 부동산매매는
뉴스나부동산
617-969-사구팔구
www.newstarrealty.com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781-648-0584

NAIL SALON for SALE

I'm looking to sell my nail salon and waxing salon. I'm looking for an owner that has the drive and the experience when they are taking over my salon. This is an excellent price location and busy in Newton Center.

PLEASE CONTACT:
Khim
978.327.8491

JEWELRY MANUFACTURING

Looking for experienced jewelers, wax injectors, mold makers and mold cutters.

Professional Environment
Great Pay

PLEASE CONTACT:
Roger 774.312.1277
Hrabc118@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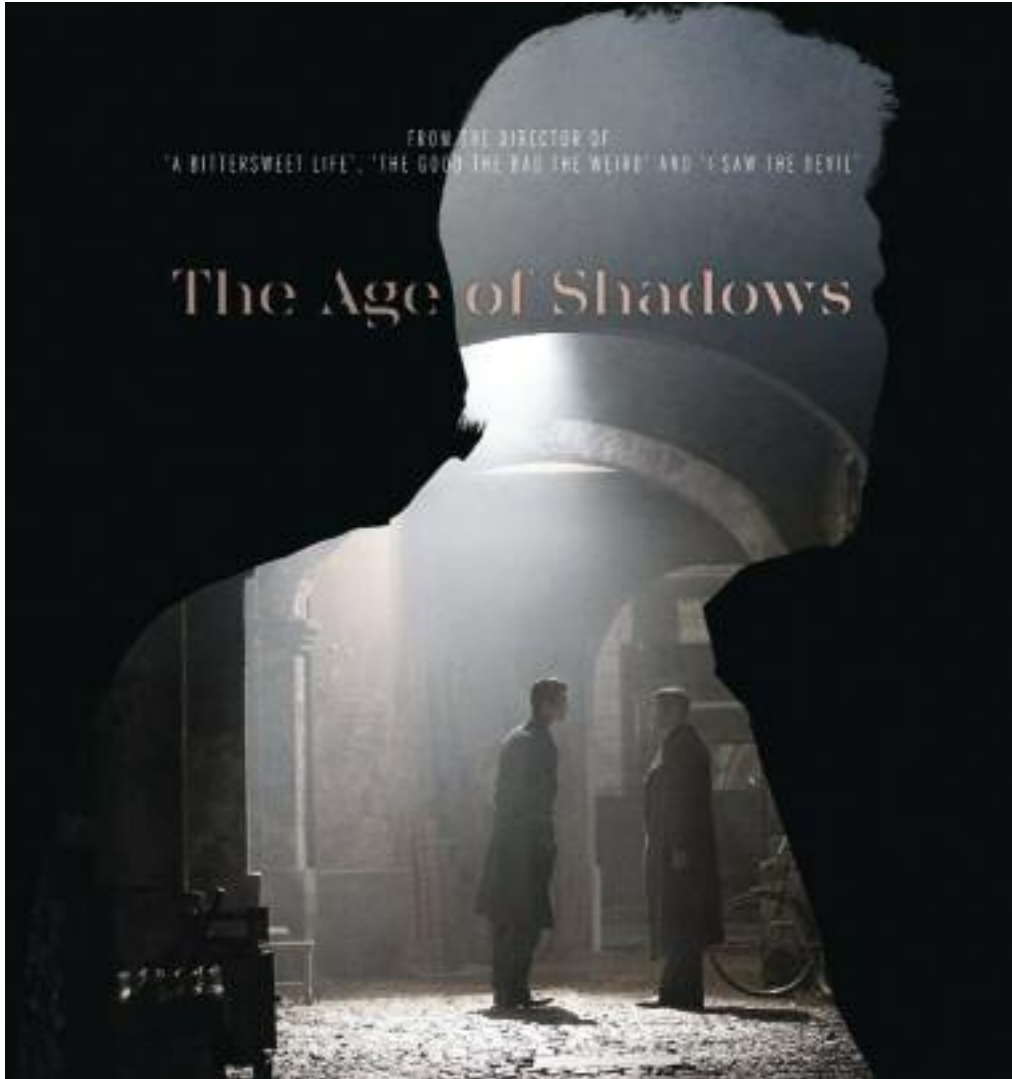
보스톤코리아 + facebook.

= Like 

www.facebook.com/bostonkorea1
혹은 페이스북 검색창에서 bostonkorea를 검색하세요

**매일 업데이트되는
보스톤 소식을
보스톤코리아
페이스북에서
만나 보세요**





송강호X공유, '밀정' 해외 포스터 비밀스런 분위기 극대화

(서울=뉴스1스타) 유수경 기자 = 김지운 감독의 신작이자 송강호와 4번째 협업, 송강호와 공유 두 배우의 최초의 만남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밀정'이 하반기 개봉을 앞두고 해외 포스터를 공개했다.

'밀정'은 1920년대 말, 일제의 주요시설을 파괴하기 위해 상해에서 경성으로 폭탄을 들여오려는 의열단과 이를 쫓는 일본 경찰 사이의 숨막히는 암투와 회유, 교란 작전을 그리는 영화다.

'밀정' 측은 최근 칸 필름마켓에서 선보일 해외 포스터를 전격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해외 포스터는 자신만의 독보적인 스타일로 장르를 변주하며 늘 관객의 기대를 뛰어넘는 새로운 재미를 선사해온 김지운 감독의 작품다운 비주얼로 시선을 사로잡는다.

'밀정'을 상징하는 일러스트 속 어렴풋한 불빛 아래 그림자를 드리운 채 비밀스런 만남을 갖는 두 인물의 실루엣은 'The Age of Shadows' 라

는 영문 제목과 어우러지며 영화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낸다.

또한 적과 동지를 쉽게 가릴 수 없는 혼돈의 시대, 의열단의 정보를 캐는 조선인 출신 일본 경찰 이철중 역의 송강호와 무장독립운동단체 의열단의 새로운 리더 김우진으로 분한 공유가 서로의 정체와 의도를 알면서도 속내를 감춘 채 은밀하게 접촉하는 모습은 한 시대의 양 극단에서 있는 두 사람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 관객들에게 한시도 예측할 수 없는 팽팽한 긴장감을 선사한다.

워너브러더스의 첫 한국영화 투자 작품으로 화제가 된 바 있는 '밀정'은 해외 포스터 공개를 통해 전 세계 관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밀정'은 2016년 하반기 개봉한다.

uu84@news1.kr



차태현, '하정우 · 이정재와 '신과 함께'로 첫 만남

(서울=뉴스1스타) 유수경 기자 = 배우 차태현이 크랭크인을 앞두고 있는 영화 '신과 함께'(감독 김용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차태현은 10일 오후 서울 모처 한 카페에서 진행된 뉴스1스타와의 인터뷰에서 "어제 '신과 함께' 고사를 지냈는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내가 완전 주연이 아니어서 그런지 편하다는 느낌도 들더라"고 털어냈다.

그는 "그 전에는 배우론 소리일 수 있지만 책임감이나 스트레스가 있었나 보다. 그런 자리에서 편할 수 있다는 걸 처음 느껴봤다"고 말했다.

이어 "(오)달수형이랑은 전에 작품을 했고, 임원희 형은 처음 봤다. 이정재 씨도 처음이다. 모임에서 오며 가며 보는 정도였다"며 "하정우도 지훈이도 다 처음 연기를 같이 하는 배우들"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차태현은 시리즈물에 욕심이 있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그는 "시리즈물 찍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엽기적인 그녀'는 처음부

터 속편 기획을 안 했던 영화다. 반면 '프로듀사'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기획 단계부터 속편을 생각하고 만든 영화였다"라고 회상했다.

차태현은 "'신과 함께'는 두 편으로 찍어놓고 (차례로) 푸는 게 너무 마음에 든다"며 "대부분 블루 스크린에서 연기하는 건데 추세가 그러니까 도전해보고 싶기도 했다. 우리 나라에선 거의 하지 않았던 장르다"라고 설명했다.

'신과 함께'에는 하정우, 차태현, 주지훈, 마동석은 물론 이정재, 김항기, 김동욱, 엑소 도경수, 김해숙, 오달수, 임원희, 장광, 정해균과 김하늘이 출연한다.

주호민 작가의 동명 웹툰을 영화화하는 작품으로 저승차사들이 저승에 데리고 가는 사람들의 다양한 사연을 그린다. '미녀는 괴로워'·'국가대표' 김용화 감독이 메가폰을 잡는다.

uu84@news1.kr

'운빨로맨스' 황정음 · 류준열, 카지노서 첫 만남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운빨로맨스' 황정음 류준열의 의미심장한 첫 만남이 포착됐다.

MBC 새 수목드라마 '운빨로맨스'(극본 최윤교, 연출 김경희) 측은 10일 남녀 주인공 황정음과 류준열의 첫 만남 장면을 공개했다.

카지노에서 진행된 촬영에서 류준열은 실내에서도 선글라스를 낀 채 '멋남 포스'를 뽐내며 당당하게 카지노에 입성하고 있는 모습이다. 황정음은 섹시한 골드 밴글 원피스 차림의 음료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등장해 남성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한껏 폼을 잡던 류준열이 구정물을 뒤집어쓰게 된 것. 게다가 어느새 청소부 복장으로 변신한 황정음은 그런 류준열을 보고 크게 당황하면서도 누군가를 계속 찾는데 정신이 팔려 사진 속 상황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낸다.

한편 '운빨로맨스'는 동명의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미신을 맹신하는 여자 심보늬와 수식 및 과학의 세계에 사는 공대남자 제수호의 로맨틱 코미디를 그려내는 드라마다.

aluem_chang@news1.kr

부산영화제, 부산시와 갈등 봉합..10월 정상 개최

(서울=뉴스1스타) 유수경 기자 = 논란으로 들끓던 부산국제영화제가 합의점을 찾고 오는 10월 정상적으로 개최된다.

부산국제영화제 측은 9일 부산시와 갈등을 봉합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앞서 부산시와 영화제 측은 다큐멘터리 '다이빙 벨' 상영 이후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 해촉과 고발, 정관 개정 등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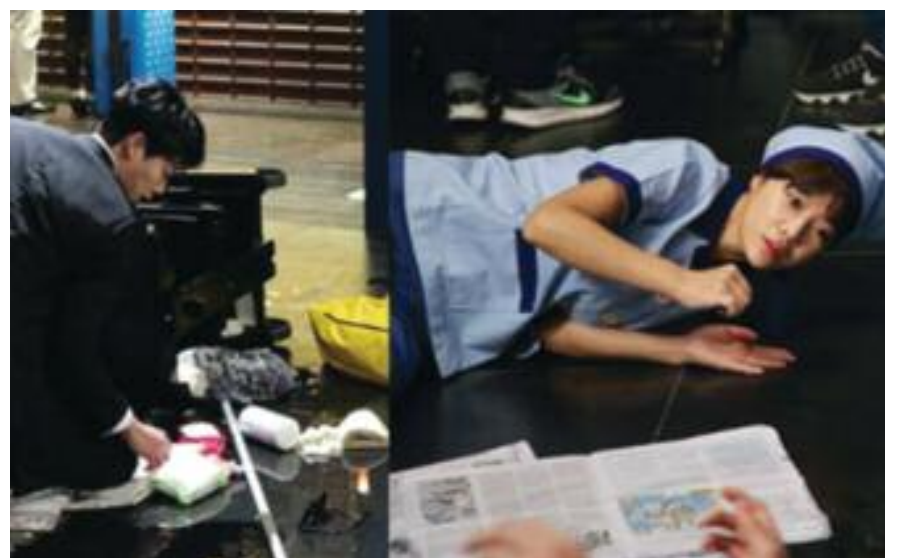
영화제 측은 "그 동안 표현의 자유와 영화제의 독립적인 운영을 지키기 위해 부산시와 오랫동안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협의과정에서 중요한 첫 걸음을 오늘 5월 9일 부산시와 부



산국제영화제가 함께 내딛게 됐습니다"라고 전했다.

또한 "남은 과제는 올해 부산국제영화제를 무사히 치르고, 새로운 정관개정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정관개정은 김동호 신임 조직위원장을 중심으로 영화인과 영화팬들, 그리고 부산시민이 만족할 수준으로 이끌어내겠습니다"라며 지지와 응원을 당부했다.

uu84@news1.kr



한주간



시청률 순위

2016년 5월 2일 ~ 2016년 5월 8일

Nielsen Media TV 지상파 주간시청률

1	KBS2	주말연속극(아이가다섯)	23.6%
2	KBS1	일일연속극(별난가족)	20.8%
3	MBC	창사특별기획(옥중화)	18.2%
4	KBS2	일일드라마(천상의약속)	18.1%
5	KBS1	KBS9시뉴스	17.1%
6	MBC	주말드라마(가화만사성)	15.2%
7	MBC	일밤1부(미스터리음악쇼복면가왕)	13.3%
8	SBS	정글의법칙파파아뉴기니	12.8%
9	KBS2	해피선데이	12.4%
10	KBS2	월화드라마(동네변호사조들호)	11.4%

Tbo Play 주간시청률

1	SBS	TV소설(내 마음의 꽃비)
2	SBS	아침일일연속극(내사위의여자)
3	MBC	MBC아침드라마(좋은사람)
4	KBS1	일일연속극(별난가족)
5	KBS2	주말연속극(아이가다섯)
6	MBC	주말드라마(가화만사성)
7	MBC	일일특별기획(아름다운당신)
8	MBC	MBC아침드라마(내일도승리)
9	KBS2	일일드라마(천상의약속)
10	SBS	주말드라마(그래그런거야)

* 한국 TV KBS, MBC, SBS를 월 \$37.99에 볼 수 있는 티보 (617-955-9112) 지금 신청하세요!

한주간 흥행 차트 순위 10

01	CHEER UP	TWICE
02	RE-BYE	악동뮤지션
03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Feat. 이성경)	에디킴
04	하늘바라기 (Feat. 하림)	정은지
05	봄이 좋아??	10cm
06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악동뮤지션
07	Toy	블락비
08	새삼스럽게 왜	악동뮤지션
09	어디에도	엠씨더맥스
10	넌 is 원들	마마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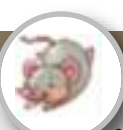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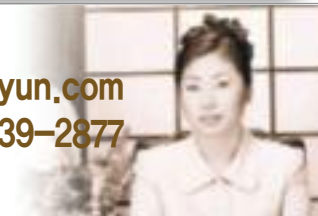
숫자 퍼즐 (Sudoku)

				2		1		8
			1		4	7		
		1	3				6	9
	7			1	2			3
		4				5		
1			8	5			2	
2	4				9	8		
		9	5		8			
8		7		6				

5월 15일 - 5월 21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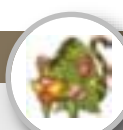
쥐띠 | 꼼꼼하게 확인한 후에

● 운수: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결국은 간 거리만큼 돌아 나와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되돌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 금전: 손해수가 있습니다. 남의 말만 듣거나 광고에 현혹되어 구입하면 금방 후회하게 되니 꼼꼼하게 확인한 후에 사야 할 것입니다. ● 애정: 길으로는 관찮은 척하면서 속으로는 전혀 아니니 표정관리를 하는 것이 쉽지 않겠습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17, 19일 길일. 15, 21일 주의.



소띠 | 기쁘고 행복한 시간들로

● 운수: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을 정도로 기쁘고 행복한 시간들로 가득하게 보낼 것입니다. ● 금전: 원하던 것을 원하는 가격대에 구입할 수 있겠습니다. 투자에 있어서도 유리한 시기이니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 애정: 모처럼 집안에 온기가 듭니다. 함께 웃으면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니 더 가까워졌다는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15, 17일 길일. 16, 18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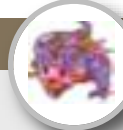
범띠 | 긍정적인 표현을 써야

● 운수: 자신이 쓰고 있는 말을 한 번 살펴보세요. 말이 씨가 되는 것이니 현재 상황이 힘이 들더라도 잘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표현을 써야 합니다. ● 금전: 이래저래 나가야 할 것이 많으니 금전문제로 잔심경을 쓰게 되겠습니다. ● 애정: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해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라도 편을 들지 말아야 합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16, 21일 길일. 15, 17일 주의.



토끼띠 | 좋은 기운과 에너지를

● 운수: 자신이 보고 듣는 세상만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넓디넓은 세상을 다 안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금전: 아직은 안심을 할 때가 아닙니다. 이미 다 된 일이라고 안심하고 있다가는 당황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애정: 먼저 양보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내야 합니다. 부부가 화복하면 자녀에게 어떤 영향제보다 더 좋은 기운과 에너지를 주게 됩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17, 20일 길일. 15, 18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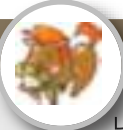
용띠 | 크게 기지개를 펴고

● 운수: 새우잠을 자는 형상처럼 잔뜩 움츠렸던 상태에서 벗어납니다. 크게 기지개를 펴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 금전: 자신을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언젠가 뿌려놓았던 씨앗이 귀한 열매가 되어 돌아오는 것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 애정: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소망하는 것이 현실에서 이루어집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15, 20일 길일. 16, 19일 주의.



뱀띠 |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 운수: 말을 전하려면 토씨 하나 바꾸지 말고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하세요. 잘못 전달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금전: 원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지금 손을 쓰지 않으면 눈덩이처럼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 애정: 누구든지 자신만의 살아가는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자신의 방식대로 끌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89, 77, 65, 53, 41, 29년생은 15, 19일 길일. 17, 20일 주의.



말띠 | 밝고 환하게 웃는

● 운수: 어디를 가든지 밝고 환하게 웃는 얼굴을 대하게 됩니다. 몸도 마음도 편해지니 일의 능률이 오를 것입니다. ● 금전: 나가는 것이 많아도 들어오는 것이 더 많아서 충분히 채워줄 수 있겠습니다. ● 애정: 기대해도 될만한 상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위를 잘 살피면 시야에 들어올 것입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16, 20일 길일. 18, 21일 주의.



양띠 | 뜻밖의 행운을 몰고 오니

● 운수: 새로운 각오와 마음으로 생활 속 여러 면에서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변화가 뜻밖의 행운을 몰고 오니 한번 시도해 보세요. ● 금전: 매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것도 얻는 것도 많아지니 그동안 진 빛에 대한 부담도 벗게 됩니다. ● 애정: 생각지도 않은 즐거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소개를 받는 지리는 마다하지 말고 꼭 만나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17, 21일 길일. 16, 19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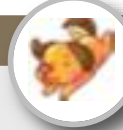
원숭이띠 | 미리 대비를 해두는

● 운수: 자신만 부족하고 자신만 처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자기만의 처한 상황이 있는 것이니 그 누구와도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 금전: 계획대로 돈이 들어오지 않고 자꾸 지연되기 쉽습니다. 미리 대비를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애정: 마음에 안 들고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서로 간에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합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15, 18일 길일. 17, 20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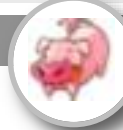
닭띠 | 감사하는 마음으로

● 운수: 자신이 마음먹고 생각한대로 일이 순조롭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 금전: 들어오는 것이 있으니 두루두루 살피고 베푸는 여유도 생깁니다. 자그마한 성의표시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애정: 아끼고 아끼던 말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사랑 고백을 해보세요. 서로의 마음이 합쳐질 것입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16, 19일 길일. 18, 21일 주의.



개띠 | 훌훌 털어버려야

● 운수: 세상만사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 더 조금만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 금전: 돈에 연연하다가 되는 도리어 병이 되니 훌훌 털어버리세요. ● 애정: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걱정해서 하는 말이나 진심으로 한 말이라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왜곡해서 해석될 수 있습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20, 21일 길일. 18, 19일 주의.



돼지띠 | 냉철하게 살펴보고

● 운수: 귀가 얇아져서 이 치료 저 치료 따라가다가는 오히려 상태가 악화되니 조심해야 합니다. ● 금전: 현금 흐름을 잘 살펴봐도 좋고, 자신의 자금 상태를 냉철하게 살펴보고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애정: 서로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게 되더라도 누군가 한사람이 양보하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상대가 하기를 바라지 말고 먼저 양보하세요. 95, 83, 71, 59, 47, 35년생은 19, 21일 길일. 18, 20일 주의.

YG 측 "젝키 5명과 계약 체결 양현석 직접 나섰다"

(서울=뉴스1스타) 김나희 기자 = 그룹 젝스키스가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와 손을 잡고 16년 만에 팬들 곁에 돌아온다.

YG는 11일 젝스키스 멤버인 은지원, 이재진, 김재덕, 강성훈, 장수원과 계약을 맺었다고 공식 발표했다. 사업가로 변신한 고지용의 경우 개인 사정상 계약은 못했지만 공연과 음반 참여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는 반가운 소식도 함께 전했다.

젝스키스는 지난 1997년에 '학원별곡', '폼생폼사'로 데뷔하자마자 기록적인 팬덤을 형성한 그룹이다. 이후 '커플', '너를 보내며' 등 발표하는 곡마다 음악방송 1위를 차지하며 큰 인기를 끌었고 보이그룹 붐을 탄생시킨 주역이 됐다.

지난 2000년 5월 해체 이후 16년 동안 각자의 삶을 살아오던 멤버들은 MBC '무한도전'에서 진행한 '토토가' 게릴라 무대를 통해 6명 모두 극적으로 만나게 됐다.

방송 후에도 젝스키스에 대한 관



심이 식지 않았고 YG 양현석 대표가 젝스키스 멤버들을 직접 만났다는 소문이 전해지면서 팬들은 일회성 만남이 아닌 젝스키스의 재결합과 컴백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던 상황이다.

이에 이번 YG의 공식적인 젝스

키스 계약 소식은 팬들에게 더없이 반가울 전망이다. YG 양현석 대표가 직접 나서서 젝스키스 영입에 힘을 쓴 만큼 이들의 새로운 행보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nahee126@news1.kr



제대로 웃기는 김혜수가 온다

(서울=뉴스1스타) 유수경 기자 = 배우 김혜수가 영화 '굿바이 싱글'을 통해 코믹 연기의 진수를 보여줄 예정이다.

오는 6월 개봉하는 '굿바이 싱글'은 톱 여배우 주연이 본격적인 '내편 만들기'에 돌입하며 벌어진 대국민 임신 스캔들을 그린 작품이다.

개봉 전부터 김혜수와 마동석이라는 의외의 조합이 상상 못한 시너지 효과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돼 화제를 모은 바 있다.

특히 최근 tvN 드라마 '시그널'을 통해 다시 한 번 대한민국 최고의 여배우로서 자리매김한 김혜수가 제대로 선보이는 코미디 장르여서 예비 관

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김혜수는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몸매와 아름다운 외모의 소유자 주연을 연기한다. 공개된 스틸 속 김혜수는 눈에 띄는 화려한 드레스를 착용한 채 소파 위 편안한 자세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다.

필러 주사 덕분(?)에 통통 부은 입술을 내밀고 있는 그의 코믹한 모습은 영화에서 선보일 김혜수의 역대급 코믹 연기를 기대케 한다.

마동석은 주연의 불알 친구이자 해외파 스타일리스트 알렉스 평구로 등장, 환상의 호흡을 보여줄 전망이다.

uu84@news1.kr

'라디오스타' 박진영, 예능神 강림? 양현석·유희열 완벽 모사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라디오스타' 박진영이 예능신이 강림한 듯한 조절정 예능감을 뽐냈다. 범상치 않은 입담으로 포문을 연 그는 발언주부터 3배속 댄스까지 보여주는 등 몸을 사리지 않는 모습으로 모두를 포복절도하게 만들었다.

박진영은 최근 진행된 MBC '황금

어장-라디오스타' 녹화에서 누가 재밌을지 몰라서 본인이 소속 가수 및 배우들과 직접 나왔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후 그는 가수로서의 이야기부터 제작자로서의 이야기까지 다채로운 에피소드를 풀어놓으며 모두를 귀 기울이게 만든 한편, 토크에 활력을 더

해주는 물개 박수 리액션으로 관심을 집중시켰다.

뿐만 아니라 박진영은 자신의 절친인 양현석과 유희열을 유심히 살피며 행동모사까지 준비해와 MC들을 감탄케 하기도 했다.

aluem_chang@news1.kr



천지보살

운명사주궁합선점

전화예약 617-947-6799

전화로도 상담해드립니다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TV/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c@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OTK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EA & NY) • BOA000 - GDT - LMS AP
MA REALTOR® - E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건축 & 시공

2014 OTK Do-Com Group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특수주택과 뉴욕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특별 프로그램으로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법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통축 - 개축

We can Design Build Buy Sell your home!
상용건물 - 콘도 - 주택 - 사업체 매매 도와드립니다

otk212@gmail.com 617.620.8242

New name for &TV

TBO PLAY RATINGS

티보 시청률

TBO Play는 한국 방송 및 영화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정식 라이선스를 받아 북미지역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어화', 한효주의 파격 변신..통할까

(서울=뉴스1스타) 유수경 기자 = 배우 한효주가 영화 '해어화'(감독 박흥식)로 돌아온다. 청순가련 여인부터 예쁘고 당찬 모습, 털털하고 중성적인 캐릭터까지 다양한 매력을 뽐내왔던 한효주가 이번에는 기생이라는 색다른 역할에 도전해 궁금증을 높였다. '해어화'는 1943년 비운의 시대, 최고의 가수를 꿈꿨던 마지막 기생의 숨겨진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제목인 '해어화'란 말을 이해하는 꽃이라는 뜻으로, 기생이자 예인을 일컫

는다. 한효주는 마지막 남은 기생학교 대성권에서 빼어난 미모와 탁월한 창법으로 최고의 예인이라 불리는 소울 역을 맡았다. 우아한 자태와 강렬한 열망을 담은 눈빛이 범상치 않은 캐릭터임을 말해준다. 어린 시절 순수했던 소울은 간절히 바라는 것을 손에 넣기 위해 차츰 도발적으로 변해간다. 이번 영화에서는 실존 가수인 이난영의 이야기가 담겨 더욱 눈길을 끈다. 이난영을 연

기하는 차지연은 뛰어난 가창력으로 '목포의 눈물' 등의 대표곡을 열창해 스크린을 압도할 예정이다. 한효주와 천우희 역시 무대 위에서 이난영의 '봄아가씨'를 함께 부르는 등 1940년대의 아름다운 노래와 선율을 선보일 예정. 한효주는 전작들에서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두며 활약해왔다. 이번에도 그의 존재감이 흥행에 한몫을 하게 될지 영화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uu84@news1.kr

티보플레이 5월 1째주 시청률 BEST10

1	KBS	TV소설(내 마음의 꽃비)
2	SBS	내 사위의 여자
3	MBC	좋은사람
4	KBS	별난가족
5	KBS	아이가 다섯
6	MBC	가화만사성
7	MBC	아름다운 당신
8	MBC	내일도 승리
9	SBS	천상의 약속
10	MBC	그래그런가야

티보플레이 5월 1째주 신규 방송

1	MBC	좋은사람
2	KBS	별난가족
3	CJ E&M	또오해영
4	MBC	다큐멘터리 사랑 2016

티보플레이 5월 1째주 최신 영화

1	해어화	한효주, 유연석
2	글로리데이	류준열, 수호

'또 오해영' 공감 로코에 짠내 한스폰

(서울=뉴스1스타) 명희숙 기자 = '또 오해영'이 현실적인 스토리로 공감도를 높이고 있다. 마냥 달콤하지 않은 이야기는 오히려 현실적인 설렘을 안긴다. '또 오해영'은 에릭과 서현진의 달콤하지 않은 첫만남이 점차 인연으로 풀여져가면서 오는 로맨스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두 사람은 현재 티격태격하고 있지만 서로에 대한 호감이 엮보였고, 은근한 설렘을 안긴다.

하지만 서현진의 달콤하지 않은 현실은 30대의 오늘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일과 사랑, 결혼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관습에서 한 발 떨어진 서현진이 겪어야 하는 상황들은 서글프기까지 하다. 이러한 현실적인 고민들이 '또 오해영'의 극적 장치로 놓이고 있어 오히려 시청자들은 좀 더 깊이 몰입하고 있다. reddgreen35@news1.kr



TBO PLAY

보스톤권각아 MA, RI, NH 지역 공식 딜러

내가 보고 싶은 한국방송 · 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고화질로 즐기세요

무제한 시청 월: **\$39.99**

이동 고객 특별 할인
타 방송사에서 티보 플레이로 갈아 타시는 분에 한해 월 \$30도 특별 우대해 드립니다

KBS, MBC, SBS, SBS Plus, tvN, XTV, Mnet, O'live, OCN

The Best Underpaid, TBO

이정선 부동산

kw BOSTON-METRO KELLERWILLIAMS

CHUNG S. LEE

Mobile: 781.883.5984
Office: 617.535.7851
Fax: 617.542.0016
chunglee7@gmail.com
chunglee.kwrealty.com

607 Boylston Street, Suit 500
Boston, MA 02116



Premier Realty Group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LISTINGS

- 1. Full Plant 플랜트 : 맥심턴에 위치, 부동산 포함 \$1,399M **SOLD**
- 2. Full Plant 세탁소 : Marlborough 좋은 위치, Asking \$65,000
- 3. Full Plant 세탁소 : 보스턴 북부 인근, Asking \$150,000
- 중매** 4. Full Plant 세탁소 : Tewksbury 큰 Mall 안에 위치, 넓은 주차공간, Asking \$30,000
- 6. 드롭오프 스토어 : Sharon에 위치, \$40,000
- 8. 드롭오프 스토어 : Norwell에 위치, \$20,000
- 7. 보스턴 인근 아파트 : Asking \$225,000 **SALE PENDING**
- 9. 오피스 : 701 Hammond St, Unit 2, Brookline \$6,498 **RENTED**
- 9. Single family : 22 Wilson park, Wellesley **SOLD**
- 10. Condo : 20 Hoerner st, Unit 1, Watertown **SOLD**
- 11. Multi family : 23-25 Baker St., Belmont **SOLD**
- 12. 미발 식물 : Allston **SOLD**
- 13. Single Family : 4 Bed, 2 Full Bath, 2,130 SF, 64 Oak St, Newton **SALE PENDING**

NEW LISTINGS



콘도
47 Homer Ave, Unit F-3
Cambridge, 2Bed 1Bath 1kitchen
좋은 위치, 하버드 스쿨에서 페스프 10분,
Asking **\$429,000**



델리&컨비니언스
좋은위치 성업중
Asking **\$120,000**



일식당
Beer and wine 포함
Lawrence 지역,
좋은위치
Asking **\$230,000**



컨비니언스 스토어
Cambridge에 위치
Asking **\$140,000**



비즈니스 콘도
Brookline
현재 세탁소영업중,
좋은 렌트수입
Asking **\$519,000**

나원태: 617.642.3156
제이슨전: 617.642.5670

신영의 **세상 스케치**

546회

이제는 친구같은 남편...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지난 3월 초에 결혼 27주년을 맞이하고 보냈다. 결혼 27주년 기념일을 맞이하기 전 아침 시간 화장실에서 불일을 보던 이 남자에게 넋지시 말을 건넨다. 아니, 말이 아니라 관심의 정도를 묻는 것이었다. 우리가 이번 3월이면 결혼 몇 주년이 되는 거지? 하고 말이다. 이 남자는 27년 되는 거 아니야? 하고 대답을 해온다. 가만히 생각하니 정말 우리 둘이 함께 오래 살았다. 처음 이 남자를 만났을 때가 이 사람이 엡스테인 뉴욕의 코넬대학을 막 졸업하고 보스턴에서 대학원을 준비하고 있을 때쯤이었고 나는 뉴욕에서 분장 메이크업 공부에 열중하며 정신없이 분주하던 때였다. 우리는 2년을 죽도록 연애하다가 떨어져 있기 싫어 누나보다도 먼저 결혼을 했다. 가정을 꾸리며 살기에는 어려운 시기라 결혼 후 시댁에서 2년 6개월을 살고 분가를 했다. 우리가 시어른을 모신 것이 아니라 시부모님께서 우리를 거둬주셨다고 하는 것이 더욱 정확한 얘기이다. 그렇게 사랑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인생을 겁 없이 결정을 하고 말았다. 어린 나이에 만나 서로 사랑하니 그 사랑 하나면 그 무엇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철없던 시절이었다. 그것이 행복이

라고 생각하며 연년생으로 딸아이와 두 아들 녀석을 낳고 한 남자의 아내와 세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 나름 큰 꿈을 갖고 미국에 왔던 나 역시도 한 남자를 만나 사랑하게 되고 나의 꿈과 사랑(결혼)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서 내 꿈을 접는 결정을 내리고 결혼을 선택한 것이다. 그렇게 결혼 후 둘이 함께 있는 것은 좋았지만, 미국에 혼자 와 있던 입장에서 대가족 일가의 시대 가족 틈 사이에서의 갈등 그리고 첫 임신과 출산은 내게 참으로 버거운 시간이었다. 내 인생에서 아이러니하게도 그 시간은 제일 행복한 시간이었고 또한, 남편과 부부싸움도 제일 많이 했던 시기였었다. 지금 생각하니 뭐 그리 티격태격 할 일들도 아니었던건만, 시시비비를 따지며 서로 속상해 했는지 모를 일이다. 아이를 셋 낳고 키우며 시댁에서 분가하고 아이들이 Preschool과 Kindergarten에 다닐 동안에는 마음에서 안정이 안 되고 불안증과 갑갑증이 가끔 찾아왔다. 그로 인해 한 차례씩 화가 치밀기도 하고 혼자서 우울하기도 하고 남편에게 불만만 더욱 쌓여가는 시기였다. 세 아이의 엄마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닌 것

같고 무엇인가 내 일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여건은 그렇지 않아 답답하고 초조해 오는 그런 시기였다. 그리고 elementary School에 들어갈 쯤에서야 조금씩 마음의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다. 아니, 여유가 아니라 내 꿈에 대한 포기가 마음에서 받아들여진 것이었다. 그렇게 아이들이 하나 둘 학년이 올라갈수록 엄마의 역할이 바빠지기 시작했다. 세 아이의 학교공부와 음악 레슨 그리고 운동을 위해 라이드 해주는 일은 정말 정신없이 바쁜 시간이었다. 가끔 친구들을 만나면 나는 요즘 택시 드라이버라니까 할 정도로 세 아이를 태워서 내려주고 데려오는 일이 장난이 아니었다. 어찌면 그렇게 바쁜 시간으로 나의 우울하고 가슴 답답했던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었는지 모른다. 그리고 변함없는 성격의 남편이 곁에서 내게 많은 배려를 해주었다. 세 아이의 좋은 아빠이기도 했지만, 아내에게도 편안하게 대해주는 그런 착한 남편이었다. 남편은 미국에 만 6살에 이민 온 사람이었다. 여기에서 비슷하게 자란 한국 여자와 결혼을 했거나 미국 여자와 결혼을 했더라면 지금의 상황과는 아주 다른 삶을 살고 있을지

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청소년기를 마치고 만 21살 어른이 다 되어 미국에 온 지극히 토속적인 한국 여자를 만났다. 처음 만남에서 서로 다른 모습에 더욱 설렘과 떨림의 호감으로 다가왔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결혼은 어떤 설렘이나 호감만으로는 긴 세월을 지속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언어와 문화 그리고 환경의 차이가 살면 살수록 새롭새롭다름으로 다가오는 일 앞에서 점점 혼자가 된 듯 싶었다. 하지만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학교에 들어갈 때쯤에 내 일을 갖기 시작했다. 글을 쓰고 그림과 붓글씨를 쓰면서 마음의 평온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글을 쓰기 시작하며 계기가 되어 한인 신문에 칼럼을 쓰게 되었고 사회 활동도 조금씩 시작하게 되었다. 벌써 그렇게 시작한 일이 벌써 만 10년이 된 것이다. 요즘은 세 아이가 모두 제 공부를 하고 마치며 제 길을 찾아 가고 있다. 남편은 가끔 철없는 아내를 위해 타박보다는 웃음으로 답을 해주는 착하고 고마운 사람이다. 무엇보다도 남편은 나의 일에 있어 넉넉한 후원자가 되었고 이제는 친구같은 남편이 편안해 좋다.



한담객설閑談客說: 스승의 날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봄비에 씻겼다. 솟아나는 푸른잎은 싱그럽다. 올해도 일터 파킹랏엔 오리가족이 어김없이 등장했다. 어린 오리새끼들도 봄비에 씻겼던가. 마냥 마알같다. 오리어미 아버가 선생이 되어 어린것들을 가르치고 기른다. 스승의 날은 5월 15일이다. 한국에서 그랬다. 군사부君師父 일체라 한다.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동급이라는 말이다. 개가 사람을 물었다는 건 신문에 나지 않는다. 사람이 개를 물었다면 엽기적인 사건이다. 학생이 선생을 때렸다는 사건을 신문에서 읽는다. 선생이 학생을 때렸다는 말이 아니다. 학생이 선생을 때렸다는 거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지도교수를 처음 대면할 적이다. 내가 경악했다. 설마 했는데, 이분이 내 지도교수라니. 행색이 상상밖이었던 거다. 내 눈에는 그랬다. 짧은 수영복 같은 반바지에, 싸구려 샌들을

신었다. 후줄근해서 다 해진 흰색인지 회색인지 난닝구 차림이었다. 게다가 한 술 더 떴다. 타고 다니는 자동차는 아마 수십년은 된 낡은 픽업트럭이었다. 더 있다. 그는 모페드를 타고 출퇴근했다. 큰키에 반바지와 샌들을 신고 작은 사이클 위에 앉은 거다. 꼭마단에 나오는 모습이었고, 교정을 누빌때면 누구에게나 쉽게 눈에 띄었다. 그가 어느날, 연구실에 나타났다. 뭔가 달라 보였다. 귀에 이어링이 반짝이며 달려 있었다. 반 대머리인데, 남은 머리는 은색이다. 더 패션너블한 건, 그 술적은 머리에 포니테일을 했던 거다. 이런 상황에서 한 마디 안하고는 못참는 내 성미이다. 입이 근질거렸다. 하지만 이날 만난 꾸욱 눌러 참았다. 터지는 웃음이 먼저 었던 거다. 그런 그가 일이 있어 갖춰입어야 할 적엔 영화배우 뺨칠 지경이었다. 카우보이 모자와 부츠에 타이

를 땀고, 회색 자켓은 대단히 매력적이었다. 스승님과 나는 첫날부터 케미스트리가 잘 맞는 듯 싶었다. 그런 스승님은 아직도 절친이며, 멘토이고, 인생의 어드바이저이다. 그런데, 선생의 복색만은 따라하지 않는다. 시 한편이다. 꽃 이름만 /배우지 마라 꽃 그림자만 /뒤쫓지 마라 꽃이 부르는 /나비의 긴 입술 꽃의 갈래를 열어 천지天地를 분별하라 몸으로 /보여주는 이 (목필균, 참스승) 스승님이 전화를 주셨다. 화들짝 놀랐다. 기대 하지 않던 전화였기 때문이다. 지난 연시에 몇자 적어 연하장을 보낸 후였다. 고맙다는 말씀과 함께 한참을 이것저것 안부를 묻고, 수다가 이어졌다. 그의 책 개정판을 손보고 있다 했다. 책을 사서 읽었느냐? 그의 질문이

었다. 당황했고, 머뭇거렸다. 곧 사서 읽으리라고 간신히 대답했다. 그의 책을 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터넷에 떠도는 걸 다운 받아 놓기는 했다. 참, 그의 책 초판을 널적에 내가 꼼꼼히 교정을 보기는 했다. 그러니 읽기는 읽은 거다. 그만큼 글을 잘 쓰는 화학자를 본적이 없다. 그의 글은 간결하며, 어려운 단어가 없다. 물 흐르듯 쉽고 자연스럽게 글이 흘러간다. 그래서 그런가. 그가 항상 내게 불평하던 한가지가 있다. 내 영어 글쓰기에 언짢아 했던 거다. '그게 영어냐?' 선생님이 입에 달고 있던 말이다. 선생님은 여전히 그의 제자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다만, 내가 스스로 그의 기대에 따라가지 못해 그건 죄스럽다. 올해도 선생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 들이지 못한다. 선생님, 오랫동안 말씀 주십시오.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누가 복음 7:40)



한 차원 높은 고국방문 의료서비스 이제 휴람을 통해 이용해보세요!



고국방문 검진 & 성형 & 전문치료 & 피부관리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신뢰할 수 있는 휴람이 도와드릴 것입니다.

상담 및 문의 **보스톤코리아 617-955-9112**



코수술, 코재수술 잘하는 성형외과

아이앤지성형외과

- 1:1 개인 맞춤 시스템 수술 전 상담부터 수술의 전 과정, 수술 후 체계적인 관리까지 맞춤서비스 제공
- 전문의 직접 진료 시스템 상담부터 수술의 전 과정, 수술 후 경과관리까지 전문의가 진료에 직접 참여하고 책임지는 직접 진료 시스템 진행
- 첨단 안전관리 시스템 모든 수술 전 과정에 철저한 안전장치와 실력으로 완벽까지 철저한 안전관리 시스템 진행
-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 수술 후에도 지속적인 경과체크와 세심한 관리로 빠른 회복과 욕구를 위해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
- 끊임없는 교육 연구 시스템 선진적인 연구 활동 및 전문적인 학술활동으로 세계 각국의 성형 전문의를 대상으로 교육 및 공연

아이앤지 휴람이벤트

- ✓ 이마 실리프팅 ~~180~~만원 → **100**만원
- ✓ V라인 턱선 실리프팅 ~~150~~만원 → **70**만원 HOT
- ✓ 아이앤지 코성형 ~~250~~만원 / 아이앤지 코재수술 ~~350~~만원



섬세함과 꼼꼼함으로 100%의 예술을 만듭니다!

리본성형외과

- 1989년부터 현재까지 25년 의료무사고 병원
- 최첨단 의료장비 3D 성형 시뮬레이션
- 1mm의 디테일까지 완벽하게 시술



쌍꺼풀 매몰

~~132만원~~

90만원

쌍꺼풀+ 눈매교정

~~330만원~~

200만원

눈썹거상+ 하안검

~~396만원~~

280만원

※ 부가세 별도

부가세 관련 정보 2016년 4월 1일부터 1년간 일시적으로 외국인이 성형, 미용의 목적으로 한국에서 성형수술을 진행할 경우 해당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출국전에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82-70.4141.4040
카카오톡 : 010.3469.4040 / ID: huramkorea
huram@huram.kr / www.huramkorea.com

보스톤코리아
Tel. 617-955-9112



독자기고
김철

북미대륙 인디언의 역사 14. 제로니모와 나바호의 천리 길 (5)

제로니모의 1차 산 카를로스 주거지역 탈출 (계속)

1879년 4월 크룩이 플랫 사령관으로 있던 시절 엄청난 충격과 감동을 경험했다. 풍카 족(Ponca) 주장인 서있는 곰(Standing Bear)과의 재판에서 스탠딩 베어는 “인디언의 피부 색깔은 백인의 그것과 다르다. 그러나 그 손을 찌르게 되면 아픔을 느끼게 되고 백인의 피부와 똑 같은 색깔의 피가 나온다. 신이 인디언도 만들었다. 인디언도 사람이다.” 라고 진술했다. 재판을 맡았던 판사도 ‘인디언도 사람’ 이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을 겪은 뒤로 크룩은 180도 달라진 사람으로 변화했다.

크룩은 꼬투리를 잡을만한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렸다. 그러던 중 1883년 3월 아파치 소 추장들이 톰스톤(Tombstone) 근처의 한 광산을 습격했다. 이를 빌미로 크룩은 병력을 동원하여 멕시코로 넘어갈 준비를 하였으나 차리카 우아족의 은거지를 찾을 수 없어서 포기했다. 5월에 제로니모가 멕시코의 한 농장을 습격한 후 멕시코 군을 따돌리고 은거지로 돌아왔다. 그러나 돌아와 보니 크룩부대가 은거지를 점거하고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포로로 잡아두고 있었다. 제로니모는 여러 차례 크룩과 회담을 가진 끝에 크룩을 믿고 산 카를로스 인디언 주거지역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5월 말에 약 400명의 아파치 인디언을 데리고 크룩은 인디언

주거지역으로 출발했다. 제로니모는 나머지 인디언들을 다 불러 모아서 뒤에 따로 들어가겠다고 크룩에게 약속했다. 1884년 2월 제로니모는 크룩에게 약속한대로 주거지역으로 들어왔다. 그로부터 1년 정도는 큰 탈 없이 주거지역 생활이 계속되었다.

제로니모의 2차 산 카를로스 주거지역 탈출 그런데 1885년 5월 제로니모는 130여명의 부족민을 이끌고 다시 주거지역을 탈출했다. 탈출 이유로 여러 가지 억측이 돌았지만 훗날 발간된 그의 자서전에 의하면, 미국인들이 자신을 체포하여 목을 매달 계획이라는 사실을 알아냈기 때문에 주거지역에서 빠져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크룩은 거센 비판에도 불구하고 제로니모를 잡기 위한 대규모 군사작전은 퍼지 않고 소규모 인디언 용병을 활용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용병 중에는 코치스의 아들 알치스(Alchise)도 있었다. 1886년 3월 크룩은 아파치 추장들과 멕시코 국경 너머에서 만나서 그들이 하산하여 주거지역으로 들어갈 것을 종용하였다. 크룩은 솔직하게 제로니모 무리들은 포로가 되어 플로리다로 이송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에 대해 제로니모는 2년만 플로리다에 억류돼 있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 준다면 투항하겠다고 답했다. 크룩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

속했다. 그러나 워싱턴의 반응은 크룩의 희망과는 사뭇 달랐다. 그런 조건으로는 투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더 큰 일이 벌어졌다. 제로니모 일행이 보위 요새(Fort Bowie)까지 거의 다 왔다가 다시 멕시코로 되돌아가버렸다. 한 백인 상인이 제로니모 일행이 투항하면 미군들이 그들의 목을 매달 계획한 일이라고 떠들어 대는 소리를 듣고 그렇지 않아도 배신을 두려워하던 차에 그만 도망가기로 마음을 먹어버렸던 것이다. 제로니모의 세 번째 도주가 발생한 셈이다. 워싱턴의 전쟁부는 크룩을 크게 질책했다. 크룩은 즉시 사직하고 후임으로 북부 평원 인디언들을 성공적으로 토벌한 마일스 장군(Nelson Appleton Miles)이 부임했다.

제로니모의 네 번째 체포

마일스는 전쟁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불과 25명의 아파치 인디언을 잡기 위하여 당시 미군의 가용 병력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5000명을 동원했다. 뿐만 아니라 600명의 인디언 용병 정찰요원(scout)과 민병대원 수천 명도 함께 작전에 투입했다. 미군과 멕시코 군에 계속 쫓기다가 결국 제로니모 무리도 포위당했다. 그들을 처음 찾아낸 사람은 용병부대의 책임자인 게이트우드(Charles Bare Gatewood) 중위와 아파치 수색병들이었다. 게이

트우드도 이끈 병력은 모두 25명이었으나 마지막으로 제로니모를 만나러 갈 때에는 제로니모를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으려고 단지 6명만을 데리고 갔다. 훗날 마일스는 이를 트집 잡아 명령을 위반했다고 하면서 그의 공적을 깎아내렸다.

게이트우드는 아파치 말도 조금 할 줄 알았고 아파치 인디언들에게 착한 미군으로 잘 알려져 있던 사람이었다. 게이트우드는 심성이 온유한 사람이라 제로니모에게 예의바른 태도로 온화하게 이런저런 사정들을 들려주었다. 제로니모도 마음을 열고 속내를 다 털어 놓고 마지막으로 게이트우드에게 솔직한 충고를 구했다. 게이트우드는 플로리다로 유배는 가더라도 죽이지는 않을 터이니가 투항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제로니모는 1886년 9월 4일 애리조나의 스킴리턴 캐년(Skeleton Canyon)에서 마일스에게 공식적으로 투항했다. 그리하여 제로니모는 네 번째로 백인들에게 붙잡힘으로써 기나긴 아파치족의 피비린내 나는 저항은 막을 내렸다. 투산 시민들은 제로니모의 체포를 축하하는 잔치를 벌이고 게이트우드 중위를 특별 손님으로 초청하였으나 그는 가지 아니 하였다. 마일스는 크룩의 인디언 전략을 폄하하기 위해서 게이트우드의 역할을 깎아내리려고 애썼다.

(다음 호에 계속)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130 화랑세기花郎世紀, 2세 풍월주風月主 미진부공未珍夫公(8)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죽은 진지왕'과 '산 도화녀'의 사랑 이야기, 이 이야기는 삼국유사에 전한다(권1기이2도화녀, 비형랑). 진지왕은 살아서는 도화녀와의 사랑을 이루지 못했지만 죽어서는 이루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비형랑이라는 아들을 두고 있다. 이것은 진지왕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간절한 것인지 보여준다. 복숭아 꽃 같이 아름다운 여인 도화녀와의 사랑 이야기와 그들의 사랑으로 태어난 아들, 귀신을 부리는 비형랑의 이야기를 풀어본다.

삼국유사에 다음과 같이 전한다. 일부러 인용한다. [제25대 사륜왕의 시호는 진지대왕이고, 성은 김씨이다. 왕비는 기오공의 딸인 지도부인이다. 대건大建8년 병신에 왕위에 올랐다(고본古本에는 기해라고 했으나 잘못이다). 나라를 다스린지 4년 만에 정치가 어지럽고 음란하여 국민들이 폐위시켰다.

이보다 앞서 사랑부沙梁部 서녀庶女의 딸이 자식이 곱고 용모가 아름다워 당시 사람들도 도화랑桃花郎이라고 불렀다. 왕이 듣고 궁중으로 불러들여 상관하려고 하자 여인이 말하기를 "여자가 지킬 일은 두 남편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남편이 있는데 어찌 남에게로

가겠습니까? 비록 만승萬乘의 위엄으로도 끝내 정조는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했다. 왕이 말하기를 "너를 죽인다면 어찌 하겠느냐?"라고 하니, 여인이 말하기를 "차라리 저자거리에서 목을 베일지언정 다른 마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라고 했다. 왕이 희롱하여 말하기를 "남편이 없으면 되겠느냐?"하니, 여인이 말하기를 "됩니다"라고 했다. 왕이 여자를 놓아 돌려보냈다.

이 해에 왕이 폐위되어 죽었고, 3년 후에 그 남편도 죽었다. 남편이 죽은 지 열흘 후 갑자기 밤중에 왕이 평상시처럼 여자의 방에 들어와서 말하기를 "내가 옛날에 승락했듯이 지금 네 남편이 없으니 되겠느냐?"라고 하니, 여자가 가벼이 허락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알렸다. 부모가 말하기를 "임금의 말씀인데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며 딸을 방에 들어가도록 했다.

왕이 7일 동안 머물렀는데, 항상 오색 구름이 집을 덮고 향기가 방 안에 가득했다. 7일 뒤에 갑자기 왕의 자취가 사라졌다. 이것으로 인해 여자가 임신해 달이 차서 해산하려고 할 때 천지가 진동하더니 한 사내아이를 낳았는데, 이름을 비형孺荆이라고 했다.

신라의 제25대왕 진지왕(재위 576 ~ 579)의

이름은 사륜舍輪 또는 금륜金輪이다. 그는 진흥왕의 둘째 아들이다. 첫째 아들 동륜銅輪은 보명공주의 치맛폭을 찾아 월담을 하다가 개에게 물려서 죽었기에 사륜이 왕이 되었다. 사륜이 왕이 된 배경에는, 화랑세기에서는 사도 왕후와 미실 등이 정권을 잡기위해 진흥왕의 죽음을 알리지 않고 미실이 사륜에게 색공을 하여 왕후의 자리를 거대하였다. 또 다른 견해는 죽은 동륜태자의 아들 김백정이 어리기 때문에 즉 '사륜계'의 주동 인물인 거칠부와 김무력이 '동륜계'를 제치고 사륜을 즉위시키고 나서 거칠부는 상대등이 되었다는 설이다. 그리고 폐위에 관해서는 미실과의 약속인 왕후 책봉을 하지 않았고, 다른 많은 여인들과 황음荒淫을 하면서 정치를 어지럽게 했다는 연유다. 또한 거칠부가 노환으로 578년에 죽으면서 '사륜계'가 세력을 잃었고 이에 '동륜계'가 득세하였기에 진지왕을 폐위하여 죽었다고 본다. 진지왕의 재위 기간 짧아서 삼국사기에는 많은 기록이 없지만 삼국유사의 폐위기록과 도화녀와의 사랑이야기(여기서는 죽은 후의 이야기로 나오지만 진지왕 생존 시의 일일 가능성이 크다. 왕으로서 정사政事는 전혀 돌보지 않고 7일 밤만으로 정사情事만 했다면 폐위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그의 정난황음의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화랑세기를 종합해 보면 큰 그림이 드러난다.

진흥왕은 치세 중 불교의 전문성왕轉輪聖王 이념을 바탕으로 자식들의 이름도 동륜, 사륜으로 지었고, 171) 활발한 정복 활동을 하여 국토를 확장하였다. 사서의 기록 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진흥왕순수비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171) 전문성왕은 불법을 펼쳐 세상을 평정한다는 예언된 인물이다. 그는 금륜, 은륜, 동륜, 철륜이라는 네 아들을 두었다. 금륜이 4개국, 은륜이 3개국, 동륜이 2개국, 철륜이 1개국을 다스린다고 한다. 그러나 전문성왕은 황제였다. 아소카왕이나 백제의 성왕도 전문성왕을 자처했다. 그런데 진흥왕은 금륜과 은륜이라는 아들이 없으니 혹시 어릴 때 죽은 아들이 더 있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사륜은 철륜이란 뜻이다.

참고문헌:삼국사기, 삼국유사, 삼국사절요, 화랑세기-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신라속의 사랑 사랑속의 신라(김덕원과 신라사학회, 경인문화사)



쌀쌀한 가을을 보내기 위한 필수품!

가족들에게
앤티비를 선물하세요!

하루 \$1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대로!



아직도 불법 다운로드 하세요?

아직도 비디오를 빌리세요?

합법적인 앤티비를 적극 추천합니다!

지금바로 전화주세요! 617.955.9112 / 617.254.4654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영각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孝 (효)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長壽)하라"

"Honor your father and mother"-which is the first commandment with a promise -"that it may go well with you and that you may enjoy long life on the earth." - 에베소서 6:2,3.



김종인 더불어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12일 반도체를 비롯, 주력산업 경쟁력 추락을 경고하고 "20대 국회 첫 정기 국회부터 경제해법을 찾아가야 한다" 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IT(정보통신) 강국이고, AI(인공지능) 및 바이오 산업도 잘 할수 있다지만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한국의 캐시카우 (Cash Cow)라지만 중국의 발전속도를 보면 2~3년 안에 중국에 내줄 수 밖에 없는 입장" 이라고 걱정했다.

김 대표는 12일 오후 광주광역시 김대중센터에서 열린 '더민주 국회의원 당선자' 위크숍 개막 특강에서 "한국의 2%대 경제성장률도 내년엔 1%로 만족해야 할지 모른다" 며 세계경제가 급속히 변화함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일본의 소니나 핀란드의 노키아사, 현대중공업의 몰락을 지적하면서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장래를 걱정했고 주력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앞을 걱정했다.

김 대표는 "4~5년전 중국이 연구개발투자 1조5천억 달러를 5개분야에 중점 투자했는데 그 결과 중국의 기술력이 급속히 성장, 전기차 부품은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다" 며 "올해부터 시작되는 1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보면 반도체에 집중적으로 투자 - 2년후면 중국과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이 거의 같아질 것" 이라고.

"2020이되면 반도체를 생산하는 한국, 대만, 중국이 똑같은 5나노미터 공정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상황" 이라며 "임금격차만 남게 되면 중국의 임금을 따라 갈 능력이 없어 시장을 빼앗길 수 밖에 없다" 고 경고했다.

김종인 대표는 "AI를 제대로 주도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해서 선도(先導)하지 못하면 일류국가는 고사하고 현 상황도 유지하기

어렵다" 고 내다봤다.

김종인 대표는 "선거에서 우리당이 '문제는 경제' 라는 구호로 표를 얻어 제1야당이 됐다" 며 "경제가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풀지를 올해 시작하는 정기국회부터 내년 대선까지 국회에서 활발하게 토론해야 대선에서 집권하면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고 말했다.

거듭 강조한 것은 제1정당이 "정치적 효(孝)" 를 주도하는 방법을 강조한 것.

그 정치적 효를 지켜 보는 것은 또 국민의孝心(효심)이 필요한 것.

孝 효: 善事父母 선사부모 - 효도할 효, 이 효자는 분석하면 ①十: 열십 ②나: 좌의 본자 ③子: 息也식야, - 자식 자.

이렇게 세분야로 나뉜 효자를 분석하면 "十" 은 숫자로 "열" 을 가르치고 그려내고 있어도 그 그림이 "영(靈)" 적으로 깊은 진리를 담고 있다.

"네 말과 같이 내가 왕(王)이 아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 "You are right in saying I am a king. In fact, for this reason I was born, and for this I came into the world, to testify to the truth. Everyone on the side of truth listens to me." - 요한복음 18:37.

여기에서 十은 王을 증거한다. 十을 싸고 있는 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다음으로 두 번째 (二)임을 간접 증거하신 것.

더욱 중요한 十은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불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십일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

관(冕旒冠)을 네게 주리라" : "Do not be afraid of what you are about to suffer. I tell you, the devil will put some of you in prison to test you, and you will suffer persecution for ten days. Be faithful, even to the point of death, and I will give you the crown of life." - 요한계시록 2:10.

생명의 면류관은 결정적 요소가 "十자가 상의 죽음" 이 전제 돼야하고 그 표본을 주(主)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 주신 것!

② 나 는 좌의 본자로 해석한다. 나 는 그림 그대로 "하나님(-)의 숨결" 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生靈)이 된지라 : The Lord God formed the man from the dust of the ground into his nostrils the breath of life, and the man became a living being. - 창세기 2:7.

해서 하나님의 숨결로 인간이 움직이는 생령(생령)이 된 것. 까닭에 사람은 하나님의 식구(食口)가 출생부터 되어 있는 것이다.

까닭에 모든 인간은 출생부터 하나님이 생부(生父)가 돼 있는 부자(父子) 또는 부녀(父女)로 묶여 있는 진리.

중요한 것은 효자에 자(子)가 붙은 것.

자(아들 자)가 붙은 중요한 이유는 효가 이 세상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의 영원한 나라와 관계 돼 있다는 증거다.

이유는 나가 하나님 창조주의 숨결인데 이 숨결을 '아들(子)' 의 실수로 "여자(女子)가 그 나무를 본 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한 나무인 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 When

the woman saw that the fruit of the tree was good for the food and pleasing to the eye, and also desirable for gaining wisdom, she took some and ate it. She also gave some to her husband, who was with her, and he ate it. - 창세기 3:6.

이에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게 되었다.

인간의 죄(罪)가 여기에 시작 된 것.

이 죄(罪)를 벗고 다시 영원한 나라로 종착역을 옮기는 것이 다시 알파(-)와 오메가(了)로 정착하는 것.

이것이 ①十 ②나 ③子 = 효로 환원하는 것.

알파(-)와 오메가(了)로 환원하는 것을 인도하고 안내하시는 분이 곧 이자(人子) 예수님이시다.

해서 예수님(人)이 십자가(十)에 달리신 것을 "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罪)에 대하여 죽고 의(義)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 He himself bore our sins in his body on the tree, so that we might die to sins and live for righteousness ; By his wounds you have been healed. For you were like sheep going astray, but now you have returned to the Shepherd and Overseer of your souls. 베드로전서 2:24,25.

이보다 더 확실한 孝는 없다. 구주(救主)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며 죄(罪) 사(赦)해 주심보다 더 큰 孝는 영원히 없다. 영사(永死)를 영생(永生)으로 바꾸신 효이므로 .

권지영성장로교회 담임 목사 위임 예배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교민들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 권지영성장로교회에서는
미국장로교 보스턴 노회 주관으로
이순우 목사님의 제 7대 담임목사 위임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합세하는 기쁨의 자리로
여러분을 정중히 초청합니다.

일시: 2016년 5월 22일 (주일) 오후 4시
장소: 권지영성장로교회 본당
270 Franklin St, Quincy, MA, 02169
전화: 617-770-2755
www.quincychurch.org

권지영성장로교회 당회원 및 교우 일동



하나님의 기쁨
세상의 소망

이순우 목사 약력:
장로회 신학대학/ 대학원
Providence Seminary (M.A. 신교회학)
McMaster Divinity College (신교회학, M. Th. 과정 수료)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 (신교회학, Ph.D. 과정 수료)
전 루체스리 한인 장로교회 담임목사





튼튼한 안보에 기반한
한반도 평화통일과
청년의 비전

Show!
One Korea!

2016 세계 **장병·청년** **통일안보 비전 발표대회**



참가 대상 지역 초·중·고, 대학(원)생, 사회인, 국내·외/탈북, 현직인, 잠정공사후손, 군인 등 2명 이상 5명 이내의 팀

발표 방법 팀별 2~5명으로 편성, 10분 이내로 자유형식 발표
※ PT·토론·뮤지컬·공트·연극·개그·연주·마술·댄스 등 모든 퍼포먼스 허용

대회 신청 참가 신청 마감: 5월 20일, 자료 제출 마감: 5월 27일
신청서와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 참고
<https://sites.google.com/site/bostonnuacorg>

대회 진행 예선대회: 6월 4일(토) Harvard 대학
※ 각 예선대회 최우수팀 본선대회 진출
본선대회: 7월 18일-22일(장실롯데월드몰 및 컴프그리브스)
※ 방송중계 및 다양한 통일·안보 체험행사 진행

문의연락처
윤미자 mijayun@hotmail.com / 조진형 contact.bostonnuac@gmail.com

총 2억원 상당의 상금 및 다양한 특전

예선 시상	최우수상	1팀	본선참가특전
	우수상	2팀	50만원
	장려상	3팀	30만원

- 최우수팀은 본선출전권 부여
- 해외 최우수팀(전남)에게는 상금으로 본선참가를 위한 항공권(장려) 지급
- 본선팀은 대회기간 합숙비 전액지원
- ※ 국내의 지역예선대회 시상

본선 시상	대상	1팀	1천만원
	최우수상	1팀	5백만원
	우수상	5팀	3백만원
	장려상	13팀	1백만원

- 전원 '통일·안보리더, 인증서 수여
- 국내·외 통일안보 행사에 초청
- 연세 통일안보리더 워크숍 초청
- 연세대회 진행요원으로 참여
- ※ 시상 종류는 사정이 따라 변동될 수 있음

www.showonekorea.kr



대한민국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331)

투자자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 의무

미국에 이민 와서 열심히 일하고 아이들 키우고 투자하고 나면 안락한 은퇴생활을 기대해 봅니다. 이러한 기대는 전혀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이런 소박한 희망에 큰 걸림돌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돈 벌고 아이들 뒷바라지는 열심히 했는데 노후자금 투자가 문제입니다.

한국도 아닌 미국에서 투자에 대한 방법이 막연하기에 재정설계사(Financial Advisor or Planner)를 고용합니다. 재정설계사는 당연히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서 일할 것이라고 투자자는 믿습니다. 잘못된 믿음입니다.

주식 브로커(Stock Broker)나 보험인(Insurance Agent)도 요즘에는 본인들이 재정설계사라고 소개합니다만 사실 주식 브로커나 보험인에게는 투자자의 이익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법적인 요구가 없습니다. 투자자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법은 '신용의 의무(Fiduciary Duty)'입니다.

한 예를 들어봅니다. 투자 자체는 비슷한 두 개의 금융상품이 있습니다. 금융상품 'A'를 팔면 수수료가 0.5%입니다. 금융상품 'B'를 팔면 재정설계사가 수수료로 6%를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의 이익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A'를 팔아야 하지만 더 많은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금융상품 'B'를 팝니다. 주식 브로커나 보험인은 투자자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 법이 없기에 당연히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비싼 금융상품을 팔 것이며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은퇴투자를 주시하는 미국 노동국(Labor of Department)에서는 오랫동안 은퇴자금을 다루는 사람들 모두가 '신용의 의무'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으로 제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를 비롯한 모든 투자회사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2015년 초 행정부의 강력한 보조에 힘을 얻어 드디어 4월 6일(2016) '신용의 의무'를 법으로 마련하였습니다.

투자자는 '신용의 의무'가 제정되었다고 모든 재정설계사가 고객의 이익을 위해서 일할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법이 시행되는 것은 2018년 1월이기에 남은 기간 금융상품을 더욱 열심히 팔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참고로 주식 브로커, 보험에이전트, 공인재정설계사의 차이점을 간단히 소개합니다.

* 주식 브로커 639,000명이 투자자를 도와주며 주식, 채권, 뮤추얼 펀드를 판매하며 '신용의 의무'가 없습니다. 한 마디로 세일즈(Salesman) 하는 사람입니다.

* 보험 에이전트 443,000명이 어뉴어티, 뮤추얼 펀드, 생명보험을 판매하는 사람이며 '신용의 의무'가 없습니다. 적당한(Suitability) 의무만이 있습니다.

* 공인재정설계사(RIA-Registered Investment Advisor)는 11,000명이며 투자 포트폴리오를 형성해서 운용하는 총액수에 일정한 경비를 부과하며 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신용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 두 개의 역할을 하는 재정설계사(26,000)는 보험 에이전트와 재정설계사 역할을 동시에 하기에 투자 선택에 불분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신용의 의무' 법령을 제정하며 처음에 마련했던 강력한 법령보다 금융회사를 위해서 많이 양보 되고 완화되었습니다. 두 가지 예를 들어봅니다.

주식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지 않는 부동산(Non-Trade REIT) 투자는 '신용의 의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 종목은 파는 사람이 높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투자 종목입니다. 수수료가 높다는 말은 투자자에게는 그만큼 투자 손실입니다. 투자경비도 많이 부과됩니다.

재정설계사는 직장에 있던 은퇴자금을 롤오버(Rollover IRA)해서 어뉴어티 등으로 투자하자고 합니다. 직장 은퇴자금에선 수수료를 받을 수 없지만 롤오버하면 높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신용의 의무' 법령에서는 재정설계사는 롤오버하는 이유를 밝혀야 하다고 했는데 이러한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금융기관이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와 투자경비로 벌어들이는 돈이 한 해에 \$17 billion입니다. 모든 금융회사는 이러한 수익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이 시행되기 전 일 년 반이 남았습니다. 금융기관은 어뉴어티(Annuity)와 같은 상품을 팔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투자자 이익을 우선해서 일해야 한다는 규정을 더욱 완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법을 없애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런 '신용의 의무' 법령을 제정하며 처음에 마련했던 강력한 법령보다 금융회사를 위해서 많이 양보 되고 완화되었습니다. 두 가지 예를 들어봅니다. 주식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지 않는 부동산(Non-Trade REIT) 투자는 '신용의 의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 종목은 파는 사람이 높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투자 종목입니다. 수수료가 높다는 말은 투자자에게는 그만큼 투자 손실입니다. 투자경비도 많이 부과됩니다.



백영주의 부동산 따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newstarrealty.com

제로 다운페이먼트 용자 등장 '눈길'

20년 상환 7년 고정 후 이자율 변동 한도 41만7000달러, 직접 거주해야 BoA는 3% 다운페이먼트 상품 내놔

다운페이먼트 부족으로 내집마련의 염원을 이루지 못해 세입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다운페이먼트가 필요 없는 용자 프로그램이 등장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모기지 용자업체인 '워터스톤 모기지'(Waterstone Mortgage)는 다운페이먼트 없이 100% 용자를 받아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노다운페이먼트(No Downpayment) 용자 프로그램인 '웰스빌딩론(Wealth building Loan)'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 업체에 따르면, 웰스빌딩론은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대출 신청자에게 다운페이먼트를 요구하지 않는 대신 조건은 20년 만기에 첫 7년간 이자율 고정 후 변동모기지 이자율이 적용된다. 심지어 다운페이먼트 액수가 20%에 못 미치는 용자가 일반적으로 부담해야 했던 모기지 보험(PMI)도 가입할 필요가 없어 용자 신청자에게 매우 유리한 용자상품이라는 게 업체의 설명이다. 업체 측은 3% 다운페이먼트의 30년 고정 일반용자(conventional

loan) 상품보다 4년이나 빠르게 용자금 상환을 완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용자 신청 자격조건은 ▶신청자 본인의 주거용(primary residence)이어야 하고 ▶1유닛 주택 또는 콘도미니엄 ▶용자 한도액 41만7000달러(일부 FHFA의 컨포밍 용자 한도액 인상 지역 제외) 등이며 이외 요건은 업체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 워터스톤 모기지의 에릭 에겐호퍼 최고경영자(CEO)는 "웰스빌딩론 상품은 주택소유자가 에퀴티를 빨리 쌓을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며 "더 많은 예비주택소유자들이 안정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고 유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업체 웹사이트(<https://www.waterstonemortgage.com/Loan-Products/Wealth-Building-Loan>)에서 확인할 수 있다.뱅크오브아메리카(BoFA)도 다운페이먼트를 3%로 대폭 낮춘 신규 컨포밍 모기지 상품을 내놓는다고 22일 발표했다. 이는 3.5%를 다운페이먼트하는 FHA 용자보다 더 저렴하고

모기지보험도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게 BoA 측의 설명이다. 일레로 크레딧점수가 680~719점인 용자가 3% 다운페이먼트 프로그램을 통해 15만 달러를 대출받으면 월 페이먼트가 782달러인데 반해 FHA 용자를 이용하면 887달러로 100달러 이상 더 부담해야 한다고 BoA 측은 덧붙였다. BoA는 국책모기지기관 프레디맥과 노스 캐롤라이나 소재 비영리 자립(self-help) 벤처펀드와 손을 잡고 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알려진 신청자격은 660점 이상의 크레딧점수와 신청자 본인의 주거용 주택이어야 하고 또 첫주택구입자는 8시간의 주택구입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노(no)또는 로우(low) 다운페이먼트 프로그램은 주택가격 급등과 실질소득의 더딘 성장으로 인해 주택구입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 무주택자들이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뱅크레잇의 최근 조사에 의하면, 무주택자 10명중 3명은 다운페이

먼트 부족으로 집을 장만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해 다운페이먼트 마련이 주택구입에서 큰 걸림돌로 나타났다.

백영주

Clara Paik
Principal Broker
Boston New Star Realty Branch Owner
New Star Realty & Investment
Realtor, ABR., GRI.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617-969-4989, 781-259-4989
Fax 617-969-4959, 781-259-4959
Cell 617-921-6979, 978-239-0141
E-mail: clarapaik@newstarrealty.com
Website: ClaraPaik.com & newstarrealty.com

www.BoKoMart.com



LA CENA 후라이팬 4종

공중팬 2개+후라이팬 1개+뚜껍

다이아몬드 코팅보다 한 차분 더 선 안방사를 30코팅기술은 슬로 그레이트 후라이팬을 일과 교편은 그 이상일 세라믹 후라이팬입니다

<p>라세나 천연시유 30코팅 후라이팬 세트</p> <p>24cm 후라이팬</p>	<p>라세나 천연시유 30코팅 후라이팬 세트</p> <p>28cm 후라이팬</p>	<p>라세나 천연시유 30코팅 후라이팬 세트</p> <p>28cm 후라이팬</p>	<p>라세나 천연시유 30코팅 후라이팬 세트</p> <p>28cm 후라이팬</p>
---	---	---	---

\$189
\$109

mom's COOK
맘스쿡 건강식마스터

25코팅이 특별한 인체의 스레어 건강식 마스터

25분 요리완성

\$179
\$129

ecosolar 친환경 세라믹 코팅
에코솔라 손주물 4종세트

전세계 구매하고 검증된 EPOX이 코팅되지 않은 자사 자체의 친환경 세라믹 코팅은, 세라믹에 코팅된 알루미늄 코팅보다 더 건강한 손주물 만들 수 있습니다.

\$219

NEW 냉생장은 쿠폰

생선, 고기 굽는 냄새가 역겨운 사람들을 위한 조리기...
집안에 음식냄새가 잔잔히 배이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조리기...

HEALTH COOKER

전골 코펜

사각 그릴코펜

해방 되십시오!
혹시 냄새 역겨운 기계 집안에서 생선 구워요

\$90
\$75

오늘, 다시 읽는 미국사 보스턴코리아 칼럼리스트 소피아 us.herstory@gmail.com

소피아 선생님의 지난 칼럼은 mywiseprep.co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환경 오염, 몸의 기억: 러브 커널 (Love Canal) 비극과 슈퍼펀드법 (2)

1955년, 화학 산업 폐기물 매립지가 된 러브 커널 부지 위에 지어진 99번가 초등학교가 개교했다. 한편 1957년 시 교육위원회는 학교 주변의 땅을 부동산 개발업자들에게 판매하였고, 99번가 학교 주변으로 주로 아담한 주택들이 대거 들어서게 되었다. 주민들은 자신들의 집 근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의 바로 아래 독성 화학 폐기물들이 매립되어 있고, 그것이 자신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그리고 시내에서 너무 멀지도 않고, 학교나 공원, 적당한 주택 가격 등 “매력적인 주거 조건” 을 갖춘 러브 커널에는 개발 붐이 불고 있었다.

하지만 1950년대 중반부터 몇몇 주민들은 이미 알수 없는 위험의 신호를 감지하고 있었다. 역겨운 화학 약품의 악취를 호소하는 주민들이 있었고,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들이 폭발사고를 당하기도 했다. 지하실로 스며드는 검고 끈끈한 액체와 그로 인한 냄새로 고통받는 주민들도 있었다. 가령 Aileen Voorhees 와 Edwin Voorhees 부부는 러브 커널 부지 바로 옆에 새 집을 짓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하실 벽을 타고 흐르는 정체 모를 검은 액체를 발견했다. 이후 20년 가까이 온갖 방법을 동원했으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이 부부는 화학약품 냄새와 함께 살아야 했다.

학교 운동장의 아이들은 종종 운동장에서

불 이 나는 신기한 돌을 주워들고 (“Fire Rock”) 놀기도 했는데, 그 정체는 진흙에 덮인 인광물질로 작은 폭발사고를 내곤 했다. John과 Joel이라는 이름의 어린 형제는 놀이터에서 놀다가 웅덩이에서 넘어졌는데, 끈적한 기름기가 도는 검은 액체가 묻은 옷은 빨아도 그 검은 얼룩이 잘 지지 않았고, 아이들을 씻겨도 2주 이상 냄새가 가시지 않았다. 동생인 Joel은 얼마 뒤 청각 장애를 입었다.

한편, 1970년 이후, 원인 모를 유산을 겪는 산모들이나 선천적 기형을 가지고 태어나는 신생아들, 흔치 않은 질병을 안고 사는 어린 아이들이 적지 않았는데, 이런 문제들의 원인 역시 주거지 근방의 독성 화학 폐기물이었음은 나중에 밝혀진다.

문제의 원인을 “기분 탓” 으로 돌리기에 급급했던 지역 정부의 무책임은 주민들을 오랜 시간 위험에 노출되기까지 사실상 방치하고 있었던 셈이다. 또한 대부분의 주민들이 지역 화학 회사에 고용되어 있던 터라, 문제를 근본적으로 제기하는 데에도 제약이 따랐다.

상황이 급반전된 것은 언론 덕이었다. 1978년, 나이에가라 가제트의 기자 마이클 브라운이 건강 문제와 주거환경의 문제를 겪고 있는 다양한 주민들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1940년대부터 매립된 유해성 화학 폐기물의 존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탐사보도 기사를 내보내면서, 주민들은 철저한 조사와 대책을 요구하기 시작한다.

로이스 김스등이 조직한 주민대책위원회는 직접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주민 건강 상태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이들은 러브 커널 부지에 근접해있는 가정일수록, 그리고 거주 연한이 긴 가정일수록 유산과 기형아 출산, 희귀암, 피부 질환, 호흡기질환, 등의 문제가 비정상적으로 그리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같은 해 뉴욕주 보건당국의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 이 지역의 화학 물질 오염은 주민 건강에 심각한 수준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뉴욕 보건당국은 주정부 차원에서 “러브 커널 비상사태” 를 선포하고, 99번가 초등학교를 폐쇄조치하였다. 며칠 뒤, 지미 카터 대통령은 러브 커널 지역연방차원의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천 만 달러의 예산을 긴급 편성하여 러브 커널에 가장 근접한 239 가정의 보상과 이주를 지원했다. 이후 추가 예산 등으로 러브 커널 주민 전체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카터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2년이 지난 1980년 의회는 일명 슈퍼펀드법 (Super Fund Act of 1980)을 통과 시켰다. 유해물질로 인

한 주민 피해를 구제하고 오염지역을 정화시키기 위해 기금을 조성하는 법이다. 한편 뉴욕주는 이 비극적인 사건의 주범이라 할 수 있는 후커 케미칼즈(후에 옥시덴탈 페트롤룸으로 개명한다)를 대상으로 6억 3천 5백만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패소한 후커 케미칼즈는 총 2억 3천만 달러를 의료 펀드, 정화 비용 등으로 물게 되었다.

러브 커널 사건은, 아직 기업의 환경 오염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자리 잡기 이전에 시작된 재앙이었으나, 잠재적 위험을 알고도 방치한 기업의 비도덕성과 무책임이 초래한 비극이기도 했다. 한편 러브 커널 사건은 이후 매사추세츠 놀스 우번의 공장폐수로 인한 식수 오염이 원인이 된 희귀 백혈병 문제, 영화 에린 브로코비치로 유명해진 PG&E가 방출한 크롬이 야기한 주민들의 기관지 및 만성 폐질환 문제 등의 원인을 제공하고도 진실을 은폐하려 했던 대기업들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게 되는 첫 사례가 되었다.

물론, 대기업들의 천문학적 금전적 배상으로도 오염지역 주민들과,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가 짊어지고 가야하는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공포의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다. 기습기 살균제로 인해 원인 모를 폐질환으로 죽어간 산모와 어린아이들, 그리고 그 가족들의 고통이 그러하듯.



성기주 변호사 칼럼

새 대통령과 이민법

적어도 제 주위에 트럼프의 막말에 혀를 내두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농담반 진담반으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이민가겠다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 한 신문 기사를 보니 한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 조사에서 (물론 아직 초반이긴 하지만) 트럼프의 지지율이 클린턴보다 높았던 것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뒷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욕하면서 내심 트럼프의 막말에 동조하거나 적어도 속시원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백인들이겠지만) 많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심지어 트럼프는 현상이 아닌 대통령이란 현실로 다가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많은 언론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때를 가상한 기사들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다들 비판적인 기사내용이고 불안하게 합니다. 다른 분야는 제가 잘 모르니 뭐라 말할 수 없지만 적어도 이민은 트럼프가 되든 클린턴이 되든 그리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습니다.

먼저,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이민법도 대통령이 하고 싶은대로 마음대로 이리저리 휘

둘 수 없습니다.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국회의 동의를 위해 국회를 설득해야 하고 전략과 전술이 있어야 합니다. 설사 국회에서 동의를 받았더라도 이 나라 최상위법인 헌법에 위배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큰 보호 장치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무슬림의 입국을 금지하겠다는 발언은 생각해보지도 않고 표만 생각하고 던진 대표적인 막말이겠죠. 따라서, 극단적인 이민자들에 대한 차별 뿐만 아니라 이민 전반에 반이민 정책을 자기 마음대로 (선거기간 중 말한대로) 심기는 불가능합니다.

둘째로, 이미 지난 8년 동안 이민법은 암흑기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나빠지기 힘들겁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친이민 정책을 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본인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지난 8년간의 추방인원은 미국 역사상 가장 많습니다. 2011년 대부분의 이민 신청료들에 대한 대대적인 인상이 있었습니다. 대대적인. 그런데 이번에 또 한 번 더 대대적인 이민 신청료 인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상 폭을 보면 지난 2011년의 인상 폭

만큼 헉소리 나올만큼 큼니다. 첫 임기 선거 운동부터 포괄적 이민 개혁을 부르짖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포괄적 이민 개혁을 제쳐두고라도 2001년을 끝으로 이민구제에 대한 아무런 법안이 통과된 적이 없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꾸준히 포괄적 이민 개혁을 위해 사력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zero 입니다. 과연 진정성이 있었는지 개혁의 의지가 있는 시도였는지 생각해 봅니다. ‘포괄적’ 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꿔보자는 것이죠.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현실성이 있었나요? 한 아이가 엄마를 조릅니다. ‘엄마 나 아이폰도 필요하고, 아이패드도 필요하고, 랩탑도 필요하고, 데스크탑도 필요해. 다 학교공부에 필요한 것들이야 다 사줘’ 라고 조른다면 어떤 엄마가 아이에게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 사 줄 수 있을까요? 아이가 좀 똑똑했다면 (정말 가지고 싶었다면) 엄마의 거절 후 다른 방법을 선택했겠죠. ‘그럼 이번엔 랩탑 하나만 사주세요’ 같이 말이죠. 저는 오바마 대통령은 측정하기 힘들 정도로 똑똑한 분으로 알고있습

니다. 어떤 정권을 비판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럴 의도는 추호도 없습니다. 전 민주당원도 공화당원도 아닙니다. 물론 양쪽 다 지지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지난 8년간 이민법과 관련된 일들을 나열해 봤고 이번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야할 만큼의 변화 (이민법에서) 는 없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안심시켜드리려 이번 주 몇 가지 어렸습니다.

성기주 변호사 (Kijoo Joseph Sung)

http://www.lookjs.com

Copyright © Law Office of Kijoo Joseph Sun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 차원 높은 고국방문 의료서비스 이제 휴람을 통해 이용해보세요!

휴람이 인하국제의료센터와 한진관광과 함께
의료·관광 토탈 서비스로 거듭났습니다!



인하국제의료센터 · 휴람 해외동포 특별가이드 (단독 8수개)			합인비용	해외비용
Huram Transit	남·여	반려동물검진(인하·시외·국외·수출) + 복부실외수술 + 수면원세진(인하·국외) + 구강위생	400만원 43만원	43만원
Huram Basic	남	TRANSIT + CHEST X-RAY + 동맥경화 합착검사 + 초음파(심근·심방·심실) + 구강검진	700만원 73만원	73만원
	여	TRANSIT + CHEST X-RAY + 방방X-RAY + 사정경부안 + 동맥경화 합착검사 + 초음파(심근·심방·심실) + 구강검진	1000만원 84만원	84만원
Huram Detail	남	TRANSIT + CHEST CT + 심장혈관스피어검진 + MRI(신장·뇌·척추·MRA) + 스키일링	1800만원 148만원	148만원
	여	BASIC + CHEST CT + 심장혈관스피어검진 + MRI(신장·뇌·척추·MRA) + 스키일링	1900만원 157만원	157만원

* 국내·외 관련 검진비 포함입니다. 합인 시기에 납부된 금액을 다룰 수 있습니다.



新 한국기행 /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그 외 지역도 여행가능

신한국기행은 대한민국의 인기 관광지인 제주도, 강원도, 경북 등 전국 내륙 지역의 관광을 책임집니다.

- 1 환전관광 단독** 신한국기행은 1인 여행자를 위한 환전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 2 100% 출발** 400여명 출발 100% 보장합니다. 단, 일부 항공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3 최고급호텔** 고급호텔에 숙박합니다. (최소 3성급 이상)입니다.
- 4 전용차량** 신한국기행은 고급 전용차량으로 편안하게 여행합니다.
- 5 별미식제공** 신한국기행은 현지 특산물 요리와 함께 현지 특산물도 제공합니다.
- 6 모든비용포함** 호텔, 교통비, 식사, 음료, 관광료, 여행자보험, 여행자비 제공합니다.



- ▲ 전국여행 2박3일
- ▲ 강원도여행 2박3일
- ▲ 경북여행 2박3일
- ▲ 서울도 여행
- ▲ 일본 여행
- ▲ 중국 여행
- ▲ 동남아시아 여행



● 입건과 여행은 별도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문의하세요!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82-70.4141.4040
 카카오톡 : 010.3469.4040 / ID: huramkorea
 huram@huram.kr / www.huramkorea.com

미국 내 상담문의
 보스톤코리아
 Tel. 617-955-9112

사업의 시작은

Lee Associates

이경해 부동산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비즈니스 용자 일선: 20% 현금다운, 프로젝트 700+
상가건물, 콘도, 아파트건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상가건물세금혜택)서비스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E2비자 사업에 전문, 비즈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바스톤, 런드로맷(Laundromat) 상물
주유소, 식당, 편의점, 주류판매점 등 다양한 사업체
항상 리스팅 80-100 보유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캠브리지 지역 동양식당 연매상 \$500,000 계속적인 매상 증가

보스턴 북쪽 세탁소 셔츠유닛, 연매상 \$99,000 좋은 위치

네일살롱 고급동네 연매상 \$600,000 소유자 은퇴

보스턴 서쪽 세탁소 셔츠 유닛만, 고급몰 안, 연매상 \$148,000

보스턴 서쪽 런드로맷 연매상 \$236,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동양식당 로드아일랜드 프로비던스 대학가 근처, 연매상 \$350,000

네일살롱 여러장소 연매상 \$160,000 - \$800,000

보스턴 서쪽 드롭스토어 2곳, 연매상 \$300,000 과 \$250,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런드로맷 연매상 \$190,000 + 100% 주인부재 중 운영 좋은 위치

뉴햄프셔 세탁소+런드로맷 연매상 \$110,000 18년만에 은퇴, 매매가격 \$35,000

드롭 보스턴 북쪽 연매상 \$100,000 매매가격 \$35,000

드롭 스토어 보스턴 서쪽, 연매상 \$260,000 부유한 동네

메인 포틀랜드 컨비니언스, 연매상 \$700,000 좋은 위치, 변화한 플라자

보스턴 북쪽 건물; 2층 아파트, 1층 상가, 매매가격 \$980,000

뉴햄프셔 남쪽 고급동네들, 풀 플랜트, 연매상 \$550,000

드랍스토어(연매상 \$345,000 / \$180,000) 각각 매매가능, 좋은위치

뉴햄프셔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225,000 변화한 플라자 안

보스턴 풀 플랜트+드랍, 연매상 \$750,000 35년 경영, 소유자 은퇴

버몬트 남쪽 동양식당 연매상 \$390,000 Beer&Wind 면허증, 34년간 지속 영업
매매자 소유 건물 - 좋은 리스

보스턴 북쪽 드롭가게 연매상 \$208,000 고급동네

동양그로서리 연매상 \$700,000 - \$900,000 여러장소

보스턴 남쪽 Meat+컨비니언스+로터리, 연매상 \$910,000+

보스턴 북쪽 런드로맷+부동산+임대수입 유닛, 매매가격 \$529,000

보스턴 서쪽(I-495)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500,000 고급동네

보스턴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50,000+ 새 기계들, 부유한 동네

보스턴 서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80,000 이상 소유자 은퇴

보스턴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소유자 은퇴



BOSTON Edu
Boston Education World

보스톤 교육원

명문 중.고.대학 진학상담 및 수속

전문적인 맞춤형 진학상담
최고 에세이 편집자
최고 권.험직 입학 담당자 상담

섬머/윈터 프로그램

전문적인 관리 및 실질적인 프로그램
MIT/Harvard 특별 프로그램
다양한 주말 프로그램

가디언 업무

수시 교사 면담 및 성적관리
아카데믹 로드맵 작성 및 실행
다양한 경시 대회 준비, 섬머 및 교외 활동

2016 보스톤 교육원 여름방학 프로그램

I. SAT, ACT 정규반

- 기간: 6.20~8.19 (3주단위, 3 sessions) 월~금요일 수업
- 특징
 - 처음 시험준비를 시작하는 새내기 학생을 위한 class
 - 3시간의 수업을 포함한 풀타임 프로그램(8:00-8:30)
 - 과학별 기본개념과 문제유형 숙지
 - 실전연습문제 풀이 및 리뷰
 - 학교의 전문 강사진
 - 엄격한 학생 및 학사관리
 - 다양한 선택 가능성

II. SAT, ACT 실전문

- 기간: 6.20~8.19 (3주단위, 3 sessions) 월~금요일 수업
- 특징
 - 단기간내 목표점을 목표로 하는 학생을 위한 class
 - 반복적인 모의고사를 통한 실제시험의 적응도를 높임
 - 많은 실전문제 확보

III. 저학년을 위한 Writing Class

- 기간: 7.11~8.19 (2주단위, 2 sessions)
- 수업: 주 3일(2시간)
- 특징
 - 다양한 장르별 글쓰기 수업
 - 오랜 경험의 writing 전문가
 - 문법 및 어휘에 향상

상담전화:
339.234.5255~7

Korean Education World, Inc.
보스톤 교육원

128 Wheeler Rd. #301, Burlington, MA 01803
Tel. 339.234.5255~7 / Fax. 339.234.5258

www.bostonedu.org 문의: info@bostonedu.org
수업문의: academic@bostonedu.org